

▮ 연구보고서 2020-04

**생애주기별 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불안정 노동과 공적연금 보장을**

머 리 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국면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일용직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빈곤위험은 더욱더 증대되었다. 팬더믹 현상이 장기화할수록 그 여파가 중산층에게 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 또한 고조된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현상은 기존의 사회보험제도 운영방식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와 달리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노동유연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매우 넓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더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제도 보장 약화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증가시키고, 향후 노인빈곤 문제를 지속화할 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생애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공적연금 보장과 가족생애주기 그리고 빈곤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근로연령층의 연령별 코호트와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출생코호트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다양한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불안정 노동과 공적연금 보장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안서연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유현경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분석 방법에 관해 자문을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조미라 박사님 외, 자문위원분들, 보건복지부, 연금제도연구실 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가 향후 불안정 노동자 계층의 소득보장 및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 공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0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용 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이 용 하

목 차 | Contents

요약	1
I. 서론	3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2. 연구보고서 구성	38
II. 이론적 배경	39
1. 생애주기와 가족생애주기	39
2. 베이비부머와 이진부머 세대의 정의 및 일반적인 특성	43
3. 불안정 노동과 노동계약 관련 연구	45
4. 중고령자 빈곤결정 요인	47
III. 분석전략	52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52
2. 분석방법	55
IV. 전체연령대 및 연령 코호트별 분석결과	63
1. 전체 연령대의 배열분석 결과	63
2. 연령코호트별 분석결과	69
가. 30-39세 (2000년대 vs 2010년대)	69
나. 40-49세 (2001년대 vs 2010년대)	85
다. 50-59세 (2001년대 vs 2010년대)	99

라. 60-69세 (2001년대 vs 2010년대)	112
V. 출생 코호트 분석 결과	126
1.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의 연령별 분포	126
2.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 유형화 분석 결과	133
3.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 중년기 노동계적과 빈곤과의 관계 ..	147
VI. 결론	153
1. 연구내용 요약	153
2. 학술적·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제언	159
참고문헌	166

<표 목차>

<표 III-1> 4장과 5장 분석에 사용된 노동패널 차수 정보	55
<표 III-2> 로지스틱 분석을 위한 변수의 설정	62
<표 IV-1> 2001년 3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80
<표 IV-2> 2010년 3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80
<표 IV-3> 2001년 4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94
<표 IV-4> 2010년 4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94
<표 IV-5> 2001년 5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107
<표 IV-6> 2010년 5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107
<표 IV-7> 2001년 6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121
<표 IV-8> 2010년 6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121
<표 V-1>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 코호트 노동궤적 유형(47-62세) ..	142
<표 V-2> 베이비부머 코호트 노동궤적 유형(47-62세)	142
<표 V-3>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 코호트 빈곤결정요인 ..	150
<표 V-4> 남성 베이비부머와 이전 세대 코호트 빈곤결정요인	151
<표 V-5> 여성 베이비부머와 이전 세대 코호트 빈곤결정요인	152

<그림 목차>

[그림 III-1] 분석틀 1: 연령 코호트	53
[그림 III-2] 분석틀 2: 출생 코호트: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부머 세대 ..	54
[그림 III-3] 분석 모형	60
[그림 IV-1] 20세부터 83세까지 고용지위+임금보장 궤적(전체 개인)	64
[그림 IV-2] 27세부터 83세까지 고용지위+임금보장 궤적(가구주/배우자) 66	66
[그림 IV-3] 20세부터 83세까지 공적연금 보장 궤적(전체 개인) ..	66
[그림 IV-4] 27세부터 83세까지 가족생애주기(가구주와 배우자) ..	68
[그림 IV-5] 27세부터 83세까지 빈곤궤적(가구주와 배우자)	68
[그림 IV-6] 30대 연령코호트 노동궤적	71
[그림 IV-7] 30대 연령코호트 공적연금 궤적	71
[그림 IV-8] 30대 연령코호트 가족생애주기 궤적	72
[그림 IV-9] 30대 연령코호트 빈곤궤적	72
[그림 IV-10] 2001년 3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75
[그림 IV-11] 2010년 3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76
[그림 IV-12] 2001년 30대 노동궤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 (2001-2009) ..	81
[그림 IV-13] 2010년 30대 노동궤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 (2010-2018) ..	83
[그림 IV-14] 40대 연령코호트 노동궤적	86
[그림 IV-15] 40대 연령코호트 공적연금궤적	86
[그림 IV-16] 40대 연령코호트 가족생애주기 궤적	87
[그림 IV-17] 40대 연령코호트 빈곤궤적	87
[그림 IV-18] 2001년 4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89
[그림 IV-19] 2010년 4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90
[그림 IV-20] 2001년 40대 노동궤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 (2001-2009) ..	95
[그림 IV-21] 2010년 40대 노동궤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 (2010-2018) ..	97

[그림 IV-22] 50대 연령코호트 노동계적	100
[그림 IV-23] 50대 연령코호트 공적연금 가입	100
[그림 IV-24] 50대 연령코호트 가족생애주기 궤적	101
[그림 IV-25] 50대 연령코호트 빈곤계적	101
[그림 IV-26] 2001년 50대 코호트 노동계적 (2001-2009)	103
[그림 IV-27] 2010년 50대 코호트 노동계적 (2010-2018)	104
[그림 IV-28] 2001년 50대 노동계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적 (2001-2009) ·	108
[그림 IV-29] 2010년 50대 노동계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적 (2010-2018) ·	110
[그림 IV-30] 60대 연령코호트 노동계적	114
[그림 IV-31] 60대 연령코호트 공적연금 가입	114
[그림 IV-32] 60대 연령코호트 가족생애주기 궤적	115
[그림 IV-33] 60대 연령코호트 빈곤계적	115
[그림 IV-34] 2001년 60대 코호트 노동계적 (2001-2009)	117
[그림 IV-35] 2010년 60대 코호트 노동계적 (2010-2018)	118
[그림 IV-36] 2001년 60대 노동계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적 (2001-2009) ·	122
[그림 IV-37] 2010년 60대 노동계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적 (2010-2018)	124
[그림 V-1]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노동계적	128
[그림 V-2]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공적연금 보장 궤적	128
[그림 V-3]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가족생애주기 분포 ·	129
[그림 V-4]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빈곤계적	129
[그림 V-5]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노동계적(47-62세)	131
[그림 V-6]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공적연금 보장(47-62세)	131
[그림 V-7]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가족생애주기 분포(47-62세)	132
[그림 V-8]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빈곤계적(47-62세)	132
[그림 V-9] 이전부머-최종 선정된 6개의 노동계적 유형 나무그림	135
[그림 V-10] 이전부머-최종 선정된 6개의 공적 연금계적 나무그림	136

[그림 V-11] 베이비부머- 최종 선정된 6개의 노동계적유형 나무그림	137
[그림 V-12] 베이비부머- 최종 선정된 6개의 공적 연금계적 나무그림	138
[그림 V-13] 이전부머 노동계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적(47-62세)	143
[그림 V-14] 베이비부머 노동계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적(47-62세)	145

요 약

I. 서 론

-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생애 노동 궤적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 그리고 빈곤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함
 - 특히 2000년대 초반과 후반의 근로연령층의 연령코호트(age cohort)와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출생코호트(birth cohort)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와 공적연금 제도 확대, 그리고 가족생애 주기를 통한 가구형태가 빈곤에 미친 영향 분석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기도 전에 노동유연화가 진행됨
 -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공적 소득자료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불안정 노동의 확대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공적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와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한 낮은 급여수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노인빈곤의 문제를 지속화할 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의 근로연령층이 노동시장의 불안정 계층(고용불안, 소득불안, 사회적 임금의 불안정성)으로 남아있을 경우, 향후 노인 빈

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입 시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 세대 간의 노동 생애주기의 역동적인 변화를 총체적인 측면에서 포착하고, 이러한 노동궤적과 빈곤과의 관계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
- 한편, 결혼/동거를 통한 가족성립과 가족의 생애주기는 가구의 빈곤과 소득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기혼남녀의 시간 배분과 노동공급의 패턴은 가족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향후 우리나라 사회문제를 예측하는데에도 매우 중요
- 정리하자면, 현재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노동 생애주기의 역동적인 변화를 총체적인 측면에서 포착하고, 이러한 개인의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가 어떻게 조응하고 그리고 빈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재의 근로연령층의 연령대별 노동궤적이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 어떻게 변화 왔는지 비교하고,
 - 노인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세대(이하, 이전 부머 세대)들이 각각 어떤 노동궤적을 지니고 있는지 비교함
 - 다음으로 개인의 생애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가 어떤 조응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소득빈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II. 이론적 배경

1. 생애주기와 가족생애주기

- 사회과학에서 배열분석은 생명과학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응용하여 노동경력, 생애과정 등을 이해하기 위해 1980년대 처음으로 도입됨(Abbott and Tsay, 2000).
 - 배열분석은 상태, 사건, 활동, 현상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합을 총체론적 접근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함(Cornwell, 2015)
 - 특히 특정의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들의 출산, 결혼, 취업과 같은 생애과정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들과 사회문화적 환경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구조와 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개인의 생애주기는 사회적 영향에 의해 그리고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애주기 자체를 사회구조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음(Marshall, Victor W., and Margaret M. Mueller, 2002: 2).
 - 다시 말하면 개인의 생애를 역사적 공간에서 이해하고,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 생애주기 관점.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생애를 역사적·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문혜진, 2010: 350).
- 생애주기 관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과거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로로 미래를 형성한다는 접근 때문에, 노인의 삶과 경력에 대한 연구에서 적합(Birkett, Holly,

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Fiona Carmichael, and Joanne Duberley., 2017: 53).

-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인의 삶은 생애전반기, 중반기 삶의 경험과 그에 대한 반응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애주기 관점은 노인의 삶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미
- 한편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도 기혼 남녀의 노동공급 패턴은 다름. 가족생애주기 이론은 “가족”을 역동적인 변화하는 실체로 간주함으로써,
 - 가족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고 가족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전제하며 가족의 구조가 아닌 가족의 발달적 변화에 주목(한경혜 외, 2005).
- Moen (2003)은 가족생애주기를 7개 단계로 분류함
 - 먼저 1. 신희기(nonparents under agee forty)는 여성이 40세 미만으로 자녀가 없는 시기임. 다음으로 2. 가족성립기(launching)는 자녀가 6세 이하(미취학)인 경우를 말하며 3. 초기정착기(early establishment)는 자녀가 6-12세(초등생)인 경우이다. 다음단계는 4. 후기정착시기(late establishment)이며 13-18세(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의미
 - 다음으로 5. 자녀성인기(individuals with adult children)는 자녀가 19세 이상인 가족을 의미하며, 6. 자녀독립기(empty nest)는 자녀가 독립 후 부부만 남은 단계를 의미
 - 마지막으로 무자녀 부부는 여성연령이 40세 이상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를 의미

2.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의 정의 및 일반적인 특성

-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진입을 앞둔 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로써, 2020년 기준 대략 57세에서 65세까지 분포
 - ‘베이비부머’라는 용어는 특정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일컫음¹⁾(통계청 2012)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 규모는 713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비율 중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 코호트임
- 베이비부머 세대와의 비교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에 태어난 코호트를 1945년부터 1954년까지의 10개년을 포괄하는 출생 코호트로 정의하고, 이들 코호트를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교를 위한 분석의 한 축으로 삼음
 - 이들 코호트는 2020년 현재 66세부터 75세에 이르는 코호트이며, 이들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낮으며,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시기에 생애 주된 노동경력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짐작함

3. 불안정 노동과 노동계적 관련 연구

-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열풍과 함께 불안정 노동은 더욱 확대 생산되었으며(신광영, 2018: 5),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와 함

1) 베이비부머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출산율 또는 출생아 수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기준으로, 1955~1963년 조출생률이 다른 연도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부머 세대로 볼 수 있다(통계청, 2012; 김영아, 김현수 2013).

6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께 비정규직은 사회·정치적 담론으로 등장(신광영, 2018: 6)

- 실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연구나 노년기 노동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 중이나(예를 들어, Standing, 2011; 강남훈, 2013; 백승호, 2014; 서정희, 2015; 이승윤 외, 2017; 최혜지, 2018; 최혜지·정은수, 2018 등),
 - 불안정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애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가 현재의 빈곤 지위, 즉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과 제약이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 중고령자들의 생애 노동경력(궤적)과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박경하(2011), 유호선 외(2014), 한신실(2018) 등이 있음
 - 그러나 기존문헌들은 중고령층의 노동경력과 가족생애주기 그리고 빈곤의 관계에 대한 확증적 분석까지 연결되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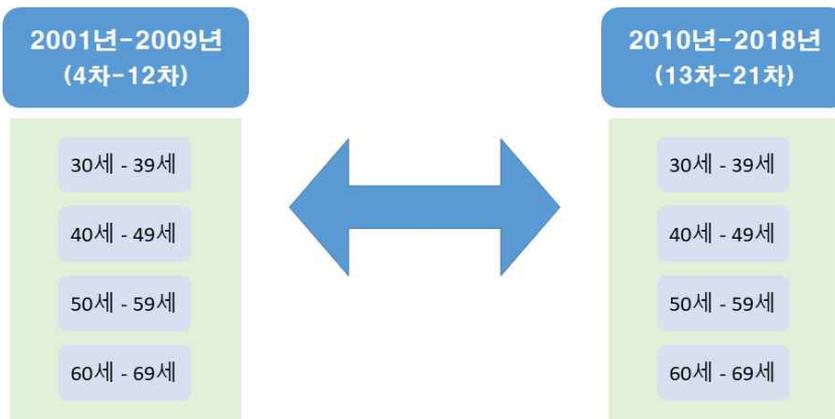
Ⅲ. 분석전략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 한국노동패널(이하 노동패널) 4차에서 21차 자료를 사용
 - 각 장별 분석자료에 대한 정보는 <표 III-1>에 제시
- 첫 번째 분석대상은 연령코호트(age cohort)로써 [요약그림 1]에서 분석틀을 제시함

- 2000년 전/후반의 대략 10년 동안의 30대, 40대, 50대, 60대의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노동궤적 유형에 따른 가족생애주기와 빈곤 궤적을 비교함

[요약그림 1] 분석틀 1: 연령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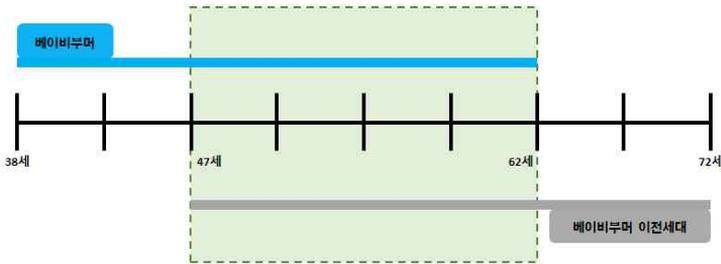
□ 두 번째 출생코호트 비교는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

-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연도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이며, 이전부머 세대의 출생연도는 1945년부터 1954년임. 4차부터 21차까지 데이터에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의 연령은 38세부터 73세까지 분포함. 단 노동패널 자료의 가구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되어, 각 코호트별 마지막 차수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함. 분석 가능 연령은 47세부터 72세임
- 전체 기간에 걸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의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 그리고 빈곤의 궤적을 살펴보고, 두 코호트가 분석자료 기간 내에서 겹치는 연령대인 47세부터 62세까지임. 본 연구에서

8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는 47세에서 62세까지의 즉 중년에서 고령진입 직전까지의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구형태가 빈곤에 미친 영향에 관해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함

[요약그림 2] 분석틀 2: 출생 코호트: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부머 세대



2. 분석 모형

- 불안정 노동을 측정하는 3가지 범주(dimension)를 이용하여 생애노동궤적을 측정함.
 - 고용불안정 측면은 Kim et al(2018)의 연구를 따라 임금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포함)/임시·일용직/비전형 노동(파견,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괄하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함
 - 다음으로 소득불안정의 경우 ILO/OECD의 저임금 기준을 따라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으로 분류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임금노동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저임금 자영업을 분류
 - 이에 따른 분류 지위는 다음과 같음. 1) 정규직 임금 근로자, 2) 비

정규직 임금 근로자, 3) 저임금 정규직 4) 저임금 비정규직 5) 자영업자, 6) 저임금자영업자, 7) 무급가족종사자, 8) 비경활(실업자 및 은퇴 포함)으로 분류

- 사회보장 불안정은 사회보험의 가입 혹은 급여 여부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측면이기 때문에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만을 포함
- 이에 따른 분류 범주는 다음과 같음. 1) 공적연금 가입, 2) 공적연금 미가입, 3) 공적 연금수급, 3) 비해당(미보장)으로 분류

□ 가족생애주기의 범주는 Moen (2003)이 제시한 가족생애주기 7 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10가지 범주로 분류

- 10가지의 가족생애주기는 다음과 같음. 1) 단독가구, 2) 신희기(nonparents under age forty)(여성이 40세 미만으로 자녀가 없는 시기) 3) 가족성립기(launching)(자녀가 6세 이하(미취학)인 경우) 4) 초기정착기(early establishment)(자녀가 6-12세(초등생)인 경우), 다음으로 5) 후기정착시기(late establishment)이며 13-18세(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6) 자녀성인기(individuals with adult children)는 자녀가 19세 이상인 가족을 의미하며, 7) 부부와 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그 외 8)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9) 무자녀/노부부 (여성연령이 40세 이상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이며, 마지막으로 10) 기타형태로 분류

10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요약그림 3] 분석 모형



3. 분석방법

□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채널 배열분석방법과 군집분석을 사용함

- 이 분석방법은 시계열적으로 관찰되는 사건의 배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
 - 이를 위해서 첫째 배열 간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해 Hamming 거리 측정방법(Dynamic Hamming Matching, DHM)을 사용하여 배열간 거리값을 구하고, 계산된 거리값에 근거하여 유형화(Cluster analysis)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
 - 사회과학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OM 방법은 배열간 거리값은 모든 배열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일한 배열을 만들도록 하는 전환과정에서의 최소비용으로 정의. 또한 동일한 배열을 만들기 위한 전환 과정은 “삽입/삭제”, “대체”를 통해서 이뤄짐(조미라, 2017). OM 방법과 관련된 비판은 삭제와 삽입을 통해 개인의 노동궤적이 실제

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방식만을 사용하는 Hamming 거리 측정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DHM 방법은 삽입/삭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방법만을 사용하여 거리측정을 하는 방식(Gabardinho, Ritschard, Müller, & Studer, 2011, p25)

○ 이 방법의 장점은 두 시점 간 전환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

- 즉 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대체비용을 낮게 계산하고 시점 간 전환이 낮은 경우 높은 대체비용을 매겨 거리값을 크게 계산(조미라, 2017).
- 예를 들어, 60세 이후에 노동상태에서 은퇴/비경활로 가는 전환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후에 비경활 상태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은 드물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렇듯 두 시점 간(본 연구에서는 t년도와 t+1년도 간) 전환 빈도에 따라 거리값을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노동궤적의 변화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노동궤적 유형을 분류 가능

□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노동궤적 유형과 가구형태가 빈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 종속변수는 소득빈곤이며, 소득빈곤의 경우 조사년도 기준 전년도 한 해의 가처분소득을 가구 균등화하였으며,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선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빈곤선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빈곤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비빈곤으로 코딩. 차상위 계층까지

1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를 빈곤으로 설정

- 3가지 모델로 분석을 실시. 모델1은 기본 모형으로 노동궤적 유형 더미 변수와 연령, 연령제곱, 성별을 통제. 모델2는 모델1에 추가로 가구형태 변수를 추가로 투입. 마지막 모델은 모델2에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초대졸 이상), 거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및 기타), 지역(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기타 지역) 등을 추가로 통제
- 노동궤적 유형변수는 분석 코호트에 따라 4차부터 21차까지의 다중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형들을 의미하며, 다른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가중치는 마지막 wave의 값을 사용
- 가구소득 빈곤과 개인의 노동궤적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에서의 분석 대상은 가구주와 배우자로 한정함

<요약표 1> 로지스틱 분석을 위한 변수의 설정

분류	항목	측정
종속변수	소득빈곤	균등화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선이며, 빈곤선 120% 미만은 빈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빈곤
독립변수	47~62세 동안의 노동궤적	노동궤적 유형 : 다채널배열분석과 군집분석결과로 도출된 유형
	가구형태	1) 단독가구, 2) 부부, 3) 부부와 자녀, 4) 한부모와 자녀, 5) 그 외 형태
통제변수	연령, 연령제곱	연속변수
	성별	남, 여
	교육수준	1)초등학교 졸업(기준) 이하, 2) 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초대졸 이상
	거주지역	1)서울, 2)경기, 3)광역시, 4)그 외 기타 지역

IV. 전체연령대 및 연령코호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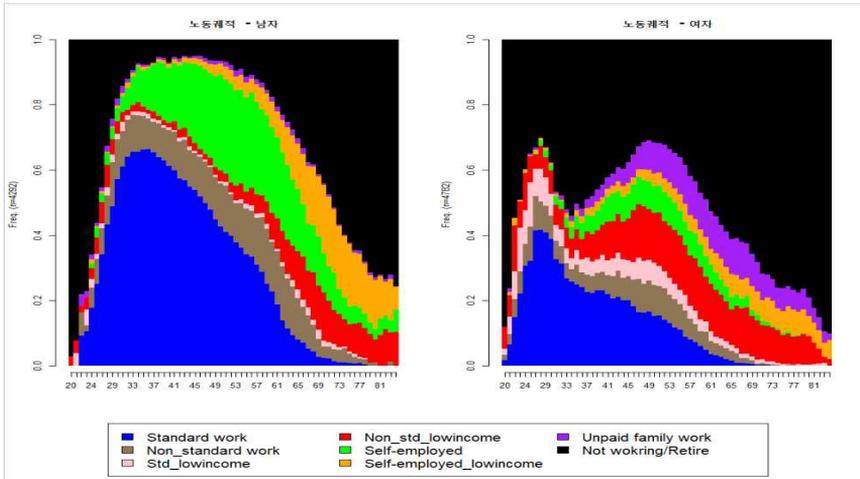
1. 전체 연령대의 배열분석 결과

- 제1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stacked data의 형태로 노동귀적, 가족생애주기 및 빈곤귀적의 배열분석 결과를 살펴봄
- (남성 노동귀적) 정규직 비율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자영업 비중이 컸으며, 60세 이상이 넘어갈수록 불안정 노동(영세자영업,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환함
- (여성 노동귀적) 남성보다 빨리 비경활에서 근로상태로 전환하지만, 여전히 비경활 상태인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서 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음.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M자형 분포가 확연하게 나타남. 특히 임신과 출산 후에 노동시장 재진입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이 우세
- (공적연금 귀적)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여성보다 높음
 - 남성의 경우에도 대략 20% 정도는 미보장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공적 연금 수급자는 대략 60세 이상이 되면서 증가
 - 70세 이상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이들 노인이 근로연령충일때는 공적연금 미성숙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서 인것으로 해석
 -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의 걸쳐서 적용제외이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비율이 높음

1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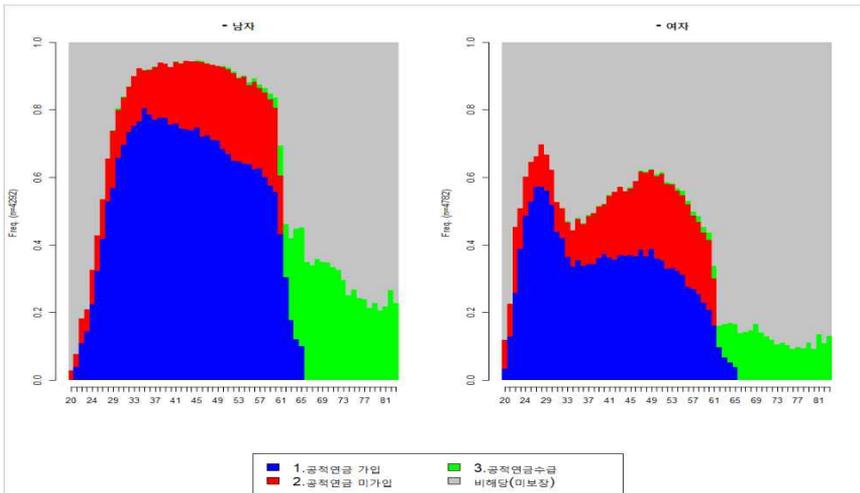
- (가족생애주기 궤적) 일반적인 연령대에 맞게 가족생애주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남성과 여성의 혼인에서의 연령차이로 인해 27세를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가족성립기 즉 6세 미만의 아동을 지닌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매우 높음. 즉 27세 기준 남성의 단독가구 비율은 70%까지였지만 여성의 경우 20%이며 대부분은 신혼기와 성립기의 상태
 - 대략 여성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35세까지 신혼기와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성립기를 경험하고, 35세부터 45세 때 대략 초기정착기(자녀 기준 6-12세)를 지나, 후기 정착기(13-19세)를 경험하고 있음
 - 특히 여성의 경우 65세의 노인을 기점으로 단독가구 비율이 매우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은 대략 79세까지도 자녀와 함께 동거하거나 혹은 노부부(2인 가족)의 형태를 지니다가 79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비율을 보임
- (빈곤궤적) 남성의 경우 65세를 기점으로 빈곤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 대략 60세부터 빈곤율이 증가
 - 남성의 경우 노동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진입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짐작되며, 여성의 경우 단독가구와 같은 가구구조 변화가 고령의 여성의 빈곤율을 높이는 이유로 짐작.
 - 이는 여성의 단독가구 비율이 남성보다 젊은 나이에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연관

[요약그림 4] 20세부터 83세까지 고용지위+임금보장 궤적(전체 개인)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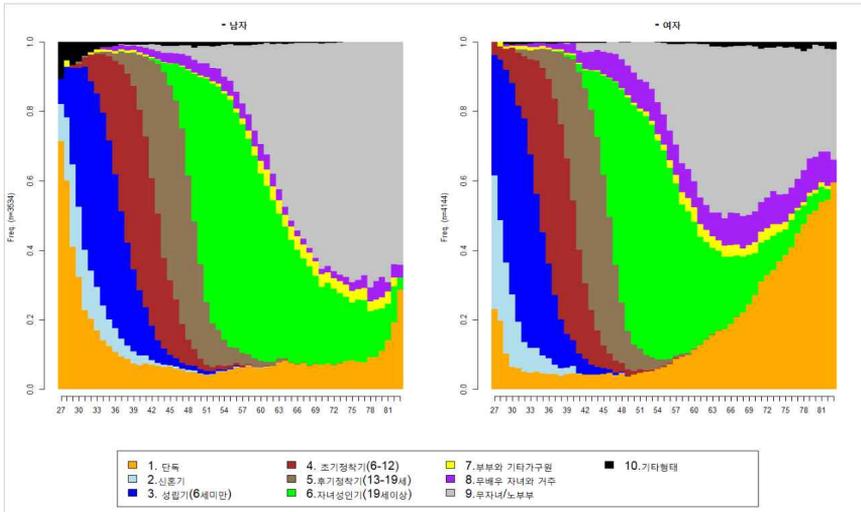
[요약그림 5] 20세부터 83세까지 공적연금 보장 궤적(전체 개인)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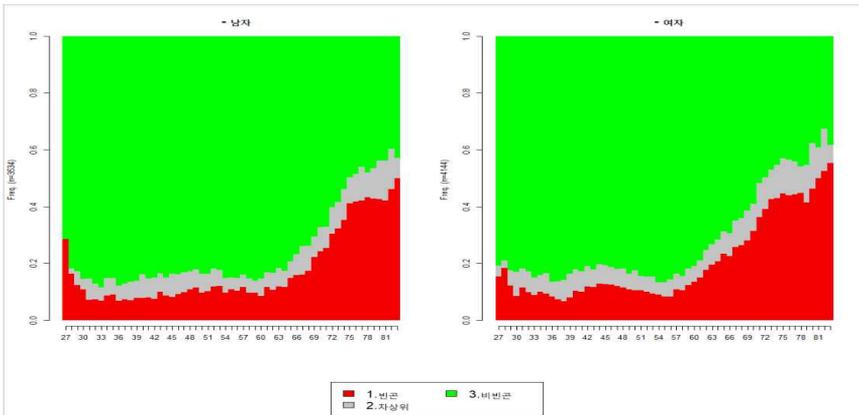
16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요약그림 6] 27세부터 83세까지 가족생애주기(가구주/배우자)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21차.

[요약그림 7] 27세부터 83세까지 빈곤궤적 (가구주/배우자)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21차.

2. 연령코호트별 분석결과

- 30대, 40대, 50대 연령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노동계적 유형은 ‘정규직_연금보장’,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비경활_연금미보장’ 유형이며, 그 외의 유형은 연령코호트별로 차이를 보임
- 연령코호트별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30대 연령 코호트는 2010년 코호트는 2001년 코호트와 달리 불안정 노동이지만, 공적연금 가입률이 대략 50%는 되는 유형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 “비경활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새롭게 포착. 이 유형은 여성 비율이 90%로 매우 높았으며, 임금근로로 전환함과 동시에 공적연금 가입은 증가
 - 2001년 여성 코호트의 경우 비경활상태(48.5%)이거나 불안정 노동(29.2%)인 상태인 반면, 2010년 코호트는 비경활 상태(33.5%)는 15%p 감소하였고 비경활에서 불안정 노동(19.4%)으로 이동하고 있음
 - 40대 연령 코호트는 30대 코호트 결과와 비슷하게, 2001년 코호트의 불안정 노동은 공적연금 미가입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0년 코호트의 경우 불안정 노동형태라도 공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불안정 노동_연금보장’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 이 유형의 여성 비율이 70%로 남성보다 높았음
 - 공적연금이 보장되는 불안정 노동은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 및 직종(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및 공공기관의 계약직 등)인 것으로 보임
 - 50대 코호트는 2001년 코호트에서 계속적 비경활 그룹과 달리 불

18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안정 노동에서 비경활/은퇴로 가는 경향이 ‘불안정 노동-연금미보장’ 집단에서 포착되었음. 이들 유형은 연금을 수급하였으며,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을 가입하다가 미가입 그리고 연금 수급의 경향을 보임

- 이는 50대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남성들이 불안정 노동으로 다시 재취업 하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후 연금수급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소득절벽 현상을 보여줌
- 60대 코호트에서 2001년과 2010년 두 코호트에서 동일하게 도출된 유형은 ‘비경활-연금미보장’과 ‘불안정 노동 연금미보장’ 유형이며, 2001년 코호트의 경우, 비경활 비율이 전체 코호트의 74.8%를 차지하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0년 코호트의 경우 비경활 비율은 47.9%에 불과함
- 2001년 코호트의 경우 (영세)자영자 집단이 연금 미보장인 비율이 높아 ‘(영세)자영자-연금미보장’유형이 도출되었지만, 2010년 코호트의 경우 같은 ‘(영세)자영자’라고 하더라도 연금을 수급하는 집단이 대략 40% 정도 수준
- 또한 비경활과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혼재하지만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유형이 도출되어, (부분)은퇴 연금 수급 유형이 도출

V. 출생 코호트 분석 결과

1.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연령별 분포

□ (노동궤적)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 오래 일하고, 고용률이 높음

-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 일하는 비율은 이전부머 세대와 비슷하였으며, 자영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불안정 노동에 종사
-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도 이전부머 보다 노동시장 종사 비율이 높았지만,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은 약간 높았으며, 불안정 임금노동 종사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 귀적) 47세 기준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40.5%(남성 61.06%; 여성 23.45%)이었으며 이전부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39.34%(남성 62.16%; 여성 12.58%)로 공적연금 가입률이 약간 증가
 -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비율이 이전부머 세대보다 높아진 경향을 찾기 힘들.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일자리들이 공적연금의 보장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영업자나 불안정 임금 노동과 같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 시행 및 확대의 시기²⁾에 비춰볼 때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이 이전부머 세대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예상가능
 - 반면 베이비부머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이전부머 여성코호트보다 10.9%p로 큰 폭 증가
- (가족생애주기)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대략 38세에서 40대 초반까지는 첫째 자녀 기준 6-12세 사이에 분포하였고,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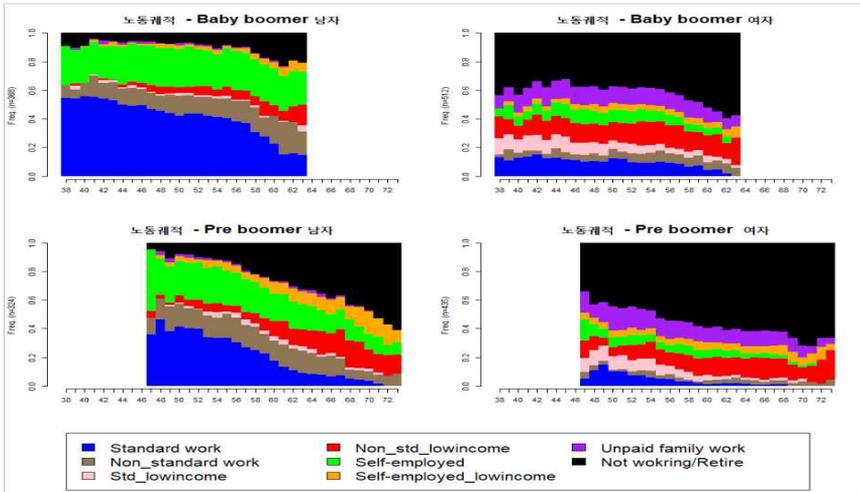
2) 국민연금 제도 시행은 1988년 1월이며 전국민 확대는 1999년 4월로, 1999년 기준 이전부머 세대의 연령대는 45세에서 54세에 분포하였으며, 베이비부머의 경우 36세에서 44세에 분포

20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후반에 13-19세의 후기 정착기에 머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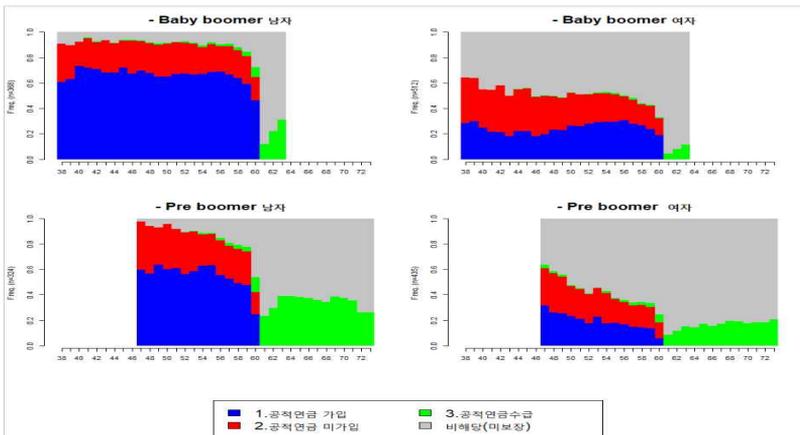
- 이전부머 세대의 경우 여성의 한부모가구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고, 단독가구 비율이 58세 이상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분포 양상
- (빈곤궤적) 베이비부머의 경우 아직 노인진입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이전부머 세대의 경우 노인진입 후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음
- 남성의 경우 대략 65세 이상부터 빈곤율이 증가하는 양상인 반면, 여성의 경우 60세 전후로 빈곤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여성의 경우 빈곤진입 시기가 남성보다 빠름

[요약그림 8]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노동귀적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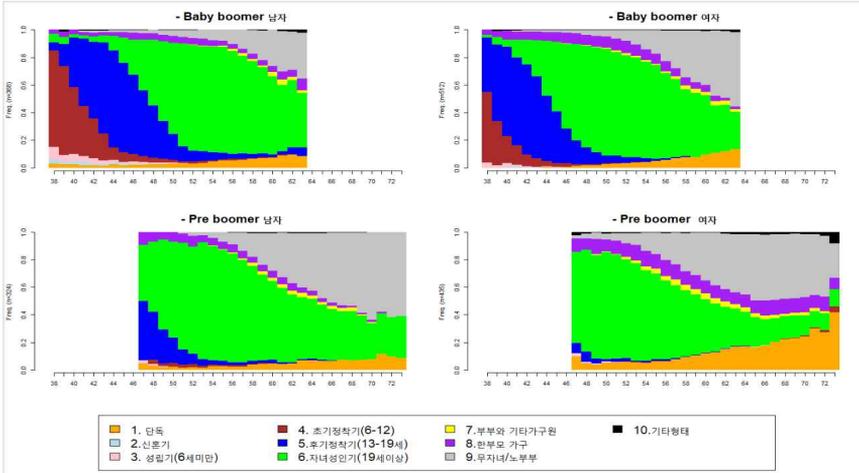
[요약그림 9]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공적연금 보장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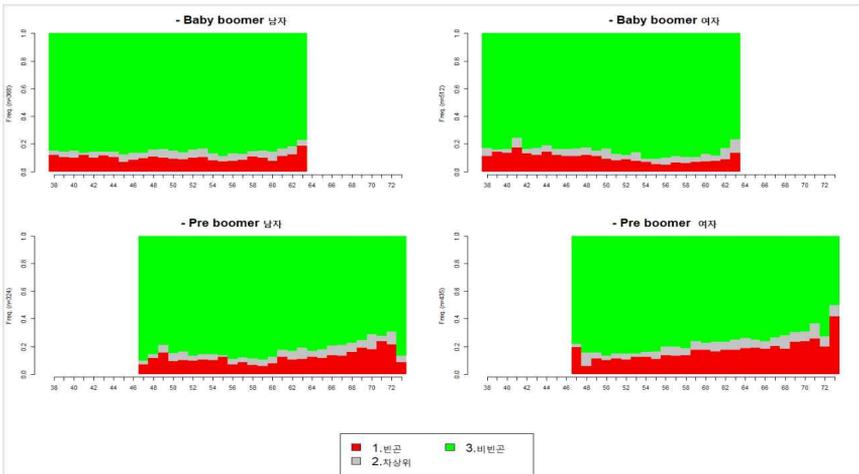
2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요약그림 10]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가족생애주기 분포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요약그림 11]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빈곤궤적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2.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 유형화 분석 결과

- 두 코호트에서 동일하게 분류된 유형은 “정규직_연금보장”, “(영세)자영업”, “비경활_연금미보장”, “불안정_연금미보장”, “무급가족종사자” 유형
-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47세에서 63세의 동일한 연령대를 유형화한 결과 각각 6개의 유형으로 최종 분류
 - 베이비부머 세대는 1. 불안정_연금미보장(15.1%), 2. 불안정 노동_연금보장(12.0%), 3. 영세)자영자(21.3%), 4.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6.7%), 5. 비경활_연금미보장(27.6%), 6. 정규직_연금보장(22.6%)으로 분류
 - 베이비부머의 코호트 중 ‘불안정 노동_연금 미보장 유형’의 경우 남성이 43.8% 여성이 56.3% 비율로 여성 비중이 약간 높았으며, ‘불안정 노동_연금 보장’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이 59.8%로 남성(40.2%)보다 높음
 - 또한 정규직_연금보장 유형은 남성 비율이 대략 76.5%를 차지하고, 비경활 비율은 반대로 여성이 82.2%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 자영업자의 경우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의 비율이 여성이 89.7%를 차지
 - 남성은 전체 유형 중 (영세)자영자 유형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규직_연금보장 유형이 30.7%로 두 번째 높은 비중에 해당함
 - 반면 여성은 비경활_연금미보장 유형에 대략 38.7%가 해당되었으며, 다음으로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에 15.6%가 속하여 두

2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이전부머 코호트의 경우 1. 불안정_연금미보장(15.8%), 2. 불안정 노동-비경활(16.2%), 3. (영세)자영자(13.9%), 4. 비경활_연금미보장(30.4%), 5. 정규직_연금보장(15.9%) 6.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7.9%)으로 분류
 - 정규직 연금보장 유형은 남성 비율이 대략 89.2%를 차지하였으며, 비경활 비율은 반대로 여성이 8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 ‘불안정 노동 연금 미보장 유형’의 경우 남성이 대략 56.5%를 차지하여 여성보다 약간 높음. 자영자는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은 여성이 93.2%를 차지
 - 이전부머 남성은 정규직 연금보장 유형에 30.3%, 자영자 유형에는 24.3%가 속한 반면, 여성은 비경활_연금미보장 유형에 대략 48.1%,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에 17.2%가 속함
-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차이는 첫째, 불안정 노동 집단 중에서 공적연금 보장 집단이 따로 유형화된 것과 둘째, 이전부머의 경우 은퇴가 빨랐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에서 비경활 즉 은퇴로 이어지는 집단이 유형화된 것임. 베이비부머 코호트는 62세까지 별다른 은퇴유형이 세분화되지 않음

3.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 생애노동궤적과 빈곤과의 관계

-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노동궤적 유형과 가구형태가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 빈곤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로지

스톡 회귀분석을 분석한 결과,

-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정규직 연금보장 집단’에 비해 ‘불안정 노동 연금 미보장 집단’이 빈곤할 확률은 대략 2배에서 3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 ‘불안정 노동 연금보장’ 집단의 경우 정규직 연금보장 집단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1.3배에서 1.7배 정도 높았으나, 여러가지 통제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에서부터 통계적 유의도는 사라짐
 - ‘비경활’ 집단은 빈곤할 확률이 대략 3.5배에서 4배 가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 이전부머의 경우는 ‘정규직 연금보장’ 집단에 비해서 ‘불안정 노동에서 비경활’로 진입한 집단의 빈곤확률이 2.2~3.12배 가까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 확률은 분석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비경활인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은 확률을 보임
- 비경활 집단은 정규직연금보장 집단에 비해서 빈곤할 확률은 대략 2.2배에서 2.9배 수준을 보임.
- 한 가지 특징적인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계적 유형 중 불안정 노동이면서 공적연금이 보장된 유형이 세분화되었으며, 이들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정규직 연금보장 유형의 집단보다 빈곤할 확률이 높긴 하였지만, ‘불안정 노동 연금미보장’ 집단 보다는 낮음
- 특히 남성의 경우 ‘정규직-연금보장’ 집단(준거집단)에 비해서 다른 유형의 집단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전체적으로 약간 높음. 특히 비경활 집단이 빈곤할 확률은 대략 7배에서 10.7배로 큰 폭으로 증가

26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 가구형태와 빈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 베이비부머 코호트는 단독가구에 비해서 한부모 자녀와 기타가구가 빈곤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부와 자녀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없음
- 이전부머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서 한부모 자녀와 기타가구의 빈곤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부와 자녀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35%~44%까지 감소하였지만, Model 2에서만 통계적 유의도가 10% 수준에서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두 출생코호트의 중고령기 노동궤적과 빈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궤적과 가구 빈곤이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둘째,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중고령기 노동경력에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

- 이러한 발견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이나 부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짐작됨

<요약표 2>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 빈곤결정요인

독립변수	베이비부머			이전부머		
	(1)	(2)	(3)	(1)	(2)	(3)
노동계약 유형 (정규직 연금보장 기준)						
불안정 노동 연금미보장	3.00** (0.795)	2.65** (0.714)	1.98* (0.559)	2.80** (1.075)	2.74** (1.059)	1.94+ (0.773)
불안정 노동→ 비경활	-	-	-	3.12** (1.204)	3.06** (1.188)	2.22* (0.892)
불안정 노동 연금보장	1.70+ (0.519)	1.59 (0.491)	1.32 (0.422)	-	-	-
비경활	4.01** (1.047)	4.06** (1.065)	3.50** (0.939)	2.94** (1.128)	2.88** (1.108)	2.19* (0.866)
자영업	1.20 (0.327)	1.19 (0.327)	1.07 (0.303)	1.42 (0.599)	1.39 (0.590)	1.14 (0.498)
무급가족종사 자	2.54** (0.874)	2.91** (1.010)	2.52** (0.898)	1.90 (0.917)	1.81 (0.886)	1.33 (0.677)
가구 형태 (단독가구 기준)						
부부	(0.181)	0.69 (0.281)	1.01	(0.357)	1.05 (0.522)	1.45 (0.346)
부부와 자녀		0.57* (0.140)	0.99 (0.267)		0.56+ (0.183)	0.65 (0.222)
한부모와 자녀		1.89* (0.609)	2.33* (0.787)		0.69 (0.295)	0.68 (0.302)
기타가구		2.31* (0.892)	3.98** (1.622)		1.21 (0.608)	1.24 (0.647)
관측치	1,642	1,642	1,642	897	897	897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자료.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괄호안은 SE.

2) 분석은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모델 1은 연령, 연령제곱, 성별을 추가로 통제. 모델 2는 모델1에 가구형태를 추가하였으며, 모델 3은 모델 2에 교육수준, 거주형태, 거주지역을 추가로 통제함.

VI. 결론

1. 연구요약

- 대략 10년의 전후로 연령코호트를 비교한 결과,
 - 불안정 노동 형태에서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증가함
 - 이와 관련하여, 빈곤궤적의 경우에도 2001년 코호트에 비해 2010년 코호트에서 감소 경향이 포착되었으며, 특히 50대 여성의 빈곤율과 60대 남성의 빈곤율이 2001년 코호트 대비 감소
 - 가족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가족의 형성과 출산과 가족주기의 성장이 지연되는 현상이 포착
-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코호트 분석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남성코호트의 공적연금 가입률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더 긴 시간 공적연금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코호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증가함
 - 두 출생코호트 간 노동시장 궤적에서의 차이는 베이비부머 남녀 모두에서 노동시장 참여가 고령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불안정 노동 혹은 (영세)자영업의 종사하는 형태로 참여함

2. 학술적·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제언

- 첫째, 현재의 노인세대와 가까운 미래에 노인으로 진입할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곤 문제는 공적연금만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공적연금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민연금이 전국민 확대 될 시기인 1999년에 36세에서 44세에 분포하였으며, 이전부머 코호트 보다 더 오랜 기간 연금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큼. 즉 연금수급액이 이전부머 코호트 보다 높을 예정.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이전부머 코호트 보다 공적연금 가입률이 대략 11%p 정도 증가
 - 베이비부머가 노인으로 진입할 경우, 경제적 자원이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공적연금 소득을 추가할 경우, 노인빈곤율의 감소를 예상
 - 안서연, 이은영(2019)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같은 연령대(54세부터 62세)의 소득과 자산의 수준과 분포를 비교한 결과, 베이비부머가 이전부머 세대 보다 소득과 자산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노인빈곤율의 감소를 예측하였음
- 둘째,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또 다른 도전임
 -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은퇴와 함께 빈곤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 노년기의 단독가구가 되면서 가구 내의 부양자의 부재로 인해 빈곤 상황에 놓임
 - 가족 간 연대의식 약화 및 사적부양책임의 약화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의 불충분함속에서 노동시장에서의 퇴거는 빈곤과 직결될 수 밖

30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에 없는데,

- 이전부터 남성이 정규직 대비 비경활 집단의 빈곤할 확률이 2.8배 높는데 반해 같은 연령대의 베이비부머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경활 집단이 빈곤할 확률이 6.8배 가까이 높았음
- 다만 47세와 62세 사이의 여성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는 본인의 노동궤적과 가구 빈곤은 관계가 거의 없지만, 남성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 그리고 동거하는 성인 자녀들과의 가구 분리 등의 가구구조 변화가 빈곤과 직결될 가능성이 큼.
 - 실제 여성의 경우 단독 가구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후의 여성빈곤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여성 노인의 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생애주기에 걸쳐서 노동시장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이 단절되거나 비경활 상태에서도 경제적 부담 수준에 따라 공적연금을 가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 출산크레딧의 확대 및 양육크레딧의 신설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관해 보상을 강화
- 셋째,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유연하지만 일관성 있는 제도 편입이 필요함
 - 2008년과 2017년 불과 9년간의 시차를 두고도 불안정 노동 일자리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대략 10%p 내외(비정규직 가입률(31.6%→45.44%; 영세자영자 21.52%→29.44%)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노동소득을 획득하면서 공적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이 높음
 - 현재의 사회적 변화와 전통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괴리가 발생함

특수형태근로 및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2020년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팬더믹을 경험

- 팬더믹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은 자영자/고용주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개월간의 보험료 납부예외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침. 특히 자영자들은 이러한 팬더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바로 타격을 받지만, 보험료의 고지 및 납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적연금 제도의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
 - 발생 소득과 보험료 고지 및 납부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과 보험료 납부를 보다 긴밀하게 고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팬더믹 같은 상황에서 납부 예외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이 보완되어야 함
- 이제껏 종사상 지위와 소득빈곤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들의 생애 주기에 걸친 노동궤적과 가족주기 및 노년기의 빈곤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제한적.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 첫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생애과정 연구들이 종사상 지위(상용직, 비정규직, 시간제, 자영업 등)를 이용한 노동궤적(work histories), 혹은 은퇴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한 반면,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노동궤적을 분석하는데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을 분류하는 국제 기준의 프레임을 직접적으로 연구에 사용하여 개인의 노동궤적을 유형화 함

3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 둘째, 노동궤적, 은퇴 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중 고령자들의 종사장 지위와 공적연금 보장의 측면에서 노동 궤적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로 가족생애주기와 빈곤궤적의 조응을 살펴본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 베이비부머와 이전세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두 출생코호트를 같은 연령대에서 분석한 코호트 연구는 찾기 힘들며, 다른 출생 코호트의 같은 연령대의 노동궤적과 빈곤과의 관계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 사회구조적 변화(IMF 이후의 고용유연화 정책과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와 개인 특성의 변화(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노동궤적과 빈곤과의 관계 변화를 분명히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다음으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함
 - 가구형태 변화가 가구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가족 생애주기와 노동 궤적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함. 특히 생애주기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궤적은 혼인 및 양육(parenting)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 관련 연구가 추후에 보완되길 기대함
 -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코호트에서 이전부머와는 다르게 은퇴가 지연되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에 관해서는 분석하지 못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건강상태가 이전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학력수준 또한 향상되어,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욕구도 이전세대와 다를 것으로 예상. 향후 관련된 연구가 필요
 - 채널 배열분석에서의 DHD의 거리측정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결측치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관측치는 제거하는 방식(List-wise deletion)으로 인해 자료 소실률이 높아, 자료의 대표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 높음

- 본 연구에서 종사상 지위의 구분에서 은퇴/비경활/실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더 긴 시계열 자료의 부재로 인해 베이비부머의 분석은 62세까지 밖에 포괄하지 못함. 향후 보다 긴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베이비부머가 법적 노인 연령인 65세를 지난 후의 빈곤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함. 또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들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과 관련한 행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생애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 그리고 빈곤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00년대 초반과 후반의 근로 연령층의 연령코호트(age cohort)와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출생코호트(birth cohort)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와 공적연금 제도 확대, 그리고 가족생애주기를 통한 가구형태가 빈곤에 미친 영향을 보다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2018), 65세 고령자의 고용률(30.6%; 남성 40.2%, 여성 23.5%) 또한 가장 높다(통계개발원, 2019). 2019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55세~79세)에 따르면,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대략 65%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근로희망사유가 “생활비 보탬”이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통계청, 2019).

우리나라는 서구의 국가와 달리,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기도 전에 노동유연화가 진행되었다.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공적 소득자료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불안정 노동형태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즉 공적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와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한 낮은 급여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노인빈곤 문제를 지속화할 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서구에 서조차 연금 개혁 이후, 노후보장제도로 불안정 노동자들을 적극 포함하지 않을 경우, 빈곤문제가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inrichs & Jessoula, 2012; 김윤영, 2018: 29 재인용).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불안정 노동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다(신광영, 2018, 5-6p). 현재의 근로연령층이 노동시장의 불안정 (고용불안, 소득불안, 사회적임금의 불안정성) 노동계층으로 남아있을 경우, 향후 노인 진입 시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듯 생애과정을 통틀어서 개인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과 종사기간이 향후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을 문제 또한 그들이 근로연령층일때의 노동궤적과 소득보장제도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연령층을 기존의 노인세대와 비교할 때,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 측면을 고려한 노동궤적과 공적연금 보장 수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노동 생애주기의 역동적인 변화를 총체적인 측면에서 포착하고, 이러한 노동궤적과 빈곤과의 관계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중고령층의 노동궤적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은퇴 궤적을 중심으로 한 연구(박경하, 2011; 남춘호, 2016; 임정연·이영민, 2016; 최민정, 2017 등)이거나, 노후소득 보장에 관심을 둔 연구라 할지라도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이행패턴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와 공적연금 가입 확대를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예를 들어, 유호선·박주완·유현경, 2014; 한신실, 2018 등). 또한 최근에는 노년기의 노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년기)노동 불안정성의 확대에 중심을 둔 연구(이승윤 외, 2017; Kim et al, 2018; 최혜지, 2018; 최혜지·정은수, 2018; 윤하림·홍백의, 2020)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노년기의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빈곤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재하다. 한편 노동경력과 빈곤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근로빈곤층에 집중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근로/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 취업상태 변화와 빈곤이행 및 빈곤 동태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결혼/동거를 통한 가족성립과 가족생애주기는 가구의 빈곤과 소득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혼남녀의 시간 배분과 노동공급의 패턴은 가족생애 주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족부양의식 약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며(통계청, 2019), 실제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은 1994년 54.7%에서 2017년 23.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정경희, 2018: 8). 특히 노인가구 형태의 변화 또한 빈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이다. 우리사회의 가족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향후 우리나라 사회문제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개인의 생애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구형태, 그리고 빈곤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이해는 향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근로연령층의 경우, 연령대별 노동궤적과 공적연금 보장여부가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유형화를 통해 비교하고, 노동궤적과 공적연금 보장궤적에 따른 가족생애주기 그리고 빈곤궤적의 양상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둘째, 노인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미 코호트의 대다수가 노인(65세 이상)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이하, 이전부머 세대)들이 각각 어떤 노동궤적으로 유형화되는지 비교한다. 셋째,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의 개인의 생애 노동궤적 유형별로 가족생애주기와 빈곤궤적이 어떤 조응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생애노동궤적과 가족생애 주기에 따른 가구형태가 소득빈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질의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 측면을 고려한 종사상지위와 공적연금 보장여부 두 측면을 고려하여 노동궤적을 유형화 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0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의 연령 코호트 분석

연구문제 1-1) 200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의 근로연령층의 고용 안전성과 소득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종사상지위와 공적연금 보장 여부를 고려한 노동궤적은 연령 코호트 별로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남녀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200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의 근로연령층의 노동궤적 유형에 따른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은 어떤 조응관계를 보이는가?

2.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출생 코호트 분석

연구문제 2-1) 베이비부머와 이전 부머 세대의 고용 안전성과 소득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종사상지위와 공적연금 보장 여부를 고려한 노동궤적은 코호트 별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남녀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의 생애 노동궤적 유형과 가구형태는 빈곤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2. 연구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와 가족생애주기의 정의와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노동궤적을 측정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의 조작적 정의 및 불안정 노동의 등장배경, 그리고 기존의 노동경력(궤적)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한 코호트 비교축인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부머 세대의 정의 및 특성에 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 본 연구에 연구모형에 관해 제시하고, 분석에 사용할 자료와 주요 분석 방법인 다채널배열 분석과 군집분석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노동궤적/가족생애주기와 빈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할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석모델에 관해 서술한다. 제4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과 후반의 근로연령층의 연령코호트별(30대, 40대, 50대, 60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분석 결과 제시에 앞서 전체 연령대의 생애주기를 살펴보기 위해 20세에서 83세까지의 종사상 지위와 공적연금 보장, 가족생애주기 및 빈곤지위에 관해서 배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연령코호트별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 및 빈곤궤적과의 조응관계 배열분석 결과를 그림을 통해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베이비부머와 이전 부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세대의 노동궤적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의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 그리고 빈곤궤적과의 조응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생애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구형태가 현재의 빈곤상태와 어떤 관련성을 띠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애주기와 가족생애주기

생애주기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60년대~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서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생애과정론에 관한 이론의 발달뿐만 아니라, 생애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인 배열분석 방법의 발달과도 관련이 깊다(우해봉, 2013). 특히 사회과학에서 배열분석은 생명과학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응용하여 노동경력, 생애과정 등을 이해하기 위해 1980년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Abbott and Tsay, 2000). 배열분석은 상태, 사건, 활동, 현상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합을 총체론적 접근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Cornwell, 2015). 특히 특정의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들의 출산, 결혼, 취업과 같은 생애과정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들과 사회문화적 환경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구조와 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생애주기(Life course) 관점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적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접근으로, 가족, 사회, 역사적 시간의 맥락에서 삶을 개념화하는 방법이다(Kok, Jan, 2007: 204). 즉 개인의 생애 주기는 사회적 영향에 의해 그리고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애주기 자체를 사회구조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Marshall, Victor W., and Margaret M. Mueller, 2002: 2). 다시 말하면 개인의 생애를 역사적 공간에서 이해하고,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 생애주기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생애를 역사적·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문혜진, 2010: 350).

생애주기 관점은 세 가지 주요 차원(Hareven, Tamara K., 1994:

439-441)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변화의 맥락에서 삶의 전환 시기(the timing of life transitions)이다. 전환시기는 전환이 발생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시대와 사회에 따른 생애주기의 문화적 구성에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는 개인의 삶의 전환과 집단적인 가족적 전환이 동시에 발생(synchronization)하고 이것이 세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는 각 코호트의 사회적 경험이 역사적 사건과 조건뿐만 아니라 초기 생애 전환에 영향을 준 역사적 과정의 누적된 영향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이전에 직면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후속 사건에 대한 이전 생애 사건의 영향(the impact of earlier life events)이다. 코호트는 해당 집단의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과 상호작용에 의해 정의되므로, 세대관계(generation relation)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코호트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주기 관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과거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로로 미래를 형성한다는 접근 때문에, 노인의 삶과 경력에 대한 연구에서 적합하다(Birkett, Holly, Fiona Carmichael, and Joanne Duberley., 2017: 53).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인의 삶은 생애전반기, 중반기 삶의 경험과 그에 대한 반응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애주기 관점은 노인의 삶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의미이다(한경혜, 2004: 93). 개인과 가족이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은 이전의 경로에 달려있으며,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유산에 의해 형성되는 노인 초기 삶이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의 세대 관계는 전 생애과정과 생애 다양한 시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변화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Hareven, Tamara K., 1994: 438).

한편 생애과정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남녀 생애주기의 탈정형화(de-standardization)와 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우해봉, 2013).

탈정형화(de-standardization)는 생애주기에서 정형화(standardization) 과정과 달리, 생애 상태(states)나, 사건(events) 그리고 이들 간의 배열(sequences)을 경험하는 집단들이 보다 하위집단화 되는 경향이 크거나, 연령별 기간별로 더욱 분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Bruckner & Mayer, 2005: 32-33). McMunn et al. (2015)의 연구는 개인 간의 비정형화(between-person de-standardization)와 개인 내에서의 복잡성(within-person differentiation)은 증가하지만, 남녀 간의 노동-가족 생애주기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애주기에 관해 연구한 우해봉(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애주기 탈정형화 경향은 출생코호트별 차이보다 여전히 성별차이가 크다고 해석한다. 즉 아직도 우리나라의 남녀의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령이나 세대와 같은 시각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젠더적 관점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도 기혼 남녀의 노동공급 패턴은 달라진다. 가족생애주기 이론은 “가족”을 역동적인 변화하는 실체로 간주함으로써, 가족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고 가족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전제하며 가족의 구조가 아닌 가족의 발달적 변화에 주목한다(한경혜 외, 2005). 가족생애주기의 주요 단계는 대략 혼인으로 인한 가족형성과 자녀 출산, 육아, 성인 자녀의 독립, 퇴직 및 노후로 구성되며, 가족형성에서 자녀출산으로 인한 발전 및 확대를 경험하였다가, 자녀의 결혼과 독립으로 인해 다시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가족생애주기에 관한 연구 중 우리나라 가족생활과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가족생애주기의 단계를 제시한 연구로는 유영주(1984)가 있다. 유영주(1984)는 국외의 다양한 가족생애주기 단계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보고, 첫 자녀를 기준으로 6단계를 제시하였다. 1단계는 형성기, 2단계 자녀출산 및 양육기, 3단계는 자녀교육기, 4단계

4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는 자녀성인기, 5단계는 자녀결혼기, 6단계는 노년기이다(유영주, 1984: 214-215). 국내 연구에서 가족생애주기를 구분할 경우 대부분 유영주(1984)의 6단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자녀의 연령이나 가구주의 연령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다(김유경, 2014: 8). 가족생애주기의 단계는 특정 집단에 맞게 별도의 가족주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기혼여성의 취업관련 가족주기로 1단계 형성기, 2단계 재생산기, 3단계 집중육아기, 4단계 육아완료기, 별도의 단계로 결혼 가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이현송, 1996: 762-765). Moen(2003, p39)은 가족생애주기를 7개 단계로 분류하였다. 먼저 1. 신혼기(nonparents under age forty)는 여성이 40세 미만으로 자녀가 없는 시기를 말한다. 다음으로 2. 가족성립기(launching)는 자녀가 6세 이하(미취학)인 경우를 말하며 3. 초기정착기(early establishment)는 자녀가 6-12세(초등생)인 경우이다. 다음단계는 4. 후기정착시기(late establishment)이며 13-18세(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5. 자녀성인기(individuals with adult children)는 자녀가 19세 이상인 가족을 의미하며, 6. 자녀독립기(empty nest)는 자녀가 독립 후 부부만 남은 단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무자녀 부부는 여성연령이 40세 이상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애주기를 Moen(2003)이 제시한 7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7개의 유형이 포괄하지 못하는 가족유형을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베이비부머와 이전 부머 세대의 정의 및 일반적인 특성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중요한 비교 코호트인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의 정의 및 일반적인 특성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진입을 앞둔 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2020년 기준 대략 57세에서 65세까지 분포한다. 베이비부머라는 용어는 특정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일컫는 말이다³⁾(통계청 2012).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 규모는 713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비율 중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 코호트이다(통계청, 2010). 이로 인해 향후 대략 10년 동안 이들의 노동시장 은퇴와 노인집입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학계와 정책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개년도에 걸친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가 향후 10년 동안 고령인구로 진입할 경우, 노인복지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이들의 생애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청소년 및 청년기를 보내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였으며(송현주·임란, 2016; 이영라·이숙종, 2018), 대략 20대였던 198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격동의 시기였으며, 이후 IMF 외환위기(1997), 글로벌 금융위기(2008) 등을 겪으며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다(방하남, 2011). 특히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이들 세대는 버팀목 세대 혹은 샌드위치 세대라 일컫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다(통계청, 2010).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노년기를 불충분한 소비생활을 통해 영위해 나가야 하는

3) 베이비부머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출산율 또는 출생아 수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기준으로, 1955~1963년 조출생률이 다른 연도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부머 세대로 볼 수 있다(통계청, 2012; 김영아, 김현수 2013).

세대이기도 하다(송현주·임란, 2016).

베이비부머와 이전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수준의 향상이다. 이들은 높은 교육기회를 누렸으며, 두 번의 경제적 위기를 겪긴 했지만, 한국 사회의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기도 하였다(정해식 외, 2014).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높은 교육수준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전 부모 세대보다 더 안정적인 노동 지위를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를 일컫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며, 학자들마다 세대 구분의 차이를 보인다. ‘해방둥이&전쟁세대’(이은희 외, 2015), 해방전쟁세대(이은희, 2015; 강소랑, 최은영, 2016), ‘해방전후 복구세대’(황상민, 김도환, 2004) 등이다. 세대 구분 또한 1941년부터 1954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략적으로 이들 세대는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 사이에 태어나, 한국전쟁과 4·19혁명 그리고 군사정부 등의 사회적 혼란기를 보낸 세대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였지만, 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세대이기도 하다(이영라·이숙종, 2018).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와의 비교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에 태어난 코호트를 1945년부터 1954년까지의 10개년을 포괄하는 출생 코호트로 정의하고 이들 코호트를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교를 위한 분석의 한 축으로 삼았다. 이들 코호트는 2020년 현재 66세부터 75세에 이르는 코호트이다. 이들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낮으며,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시기에 생애 주된 노동경력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3. 불안정 노동과 노동궤적 관련 연구

1970년대 이후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사회로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큰 변화는 표준적인 고용관계의 해체와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집약된다(Kalleberg, 2000; 백승호, 2014).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명명한 위험사회(Risk Society) 관점에서는 위험과 불안정성(Risk and insecurity)은 고용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며,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insecurity)이 더이상 하급계층(lower classes)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며 이러한 불안정성의 증대는 현재의 우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Beck, 1997, p55). 특히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열풍과 함께 불안정 노동은 더욱 확대 생산되었으며(신광영, 2018: 5),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은 사회·정치적 담론으로 등장하였다(신광영, 2018: 6).

2011년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불안정 노동이라는 개념을 비정규직/비전형 근로라는 종사상 지위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 계급을 일컫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용어는 영국의 경제학자 스탠딩가이(Standing Guy)의 2011년 저서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에서 등장한 신조어를 의미한다(신광영, 2018). 최근 연구에서는 불안정 노동을 고용지위와 고용계약 프레임에서 벗어나, 노동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포괄하는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Standing, 2011; 강남훈, 2013; 백승호, 2014; 서정희, 2015). 그러나 여전히 기존연구들은 여전히 불안정 노동의 속성 및 정의, 불안정 노동 규모와 불안정 노동계층의 실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근로빈곤층 혹은 중고령자들의 노동경력의 양극화 및 분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주환, 김교성, 2013; 한신실, 2018; 윤하림, 홍백의,

2020). 실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연구나 노년기 노동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 중이나(예를 들어, Standing, 2011; 강남훈, 2013; 백승호, 2014; 서정희, 2015; 이승윤 외, 2017; 최혜지, 2018; 최혜지·정은수, 2018 등), 불안정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애 노동 궤적과 가족생애주기가 현재의 빈곤 지위, 즉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과 제약이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에 관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중고령자들의 생애 노동경력(궤적)과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박경하(2011), 유호선 외(2014), 한신실(2018) 등이 있다. 박경하(2011)는 중고령자들의 은퇴 과정을 종사상 지위에서부터 복지수급(공적연금 수급, 사적이전, 그리고 비수급) 경로를 고려하여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결과 “재진입제약형”이 고용상태와 복지상태를 고려한 은퇴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였으며, 고용유지가 어렵고 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유형이었다. 반면 “안정적퇴직형”은 서구에서는 말하는 가장 전통적인 은퇴 경로(traditional pathway)를 의미하며, 정규직 고용가능성과 지속가능 기간이 길어 공적 연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었다. 해당 연구는 은퇴 과정을 종사상 지위에서 복지상태(공적연금 수급, 사적이전 등)까지 고려한 은퇴 경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대략 5개년도의 시계열 자료(한국노동패널조사 2차~6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질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50세에서 75세 이하의 연령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집단내의 이질성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퇴과정에 방점을 둔 연구로써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분류가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 근로, 비경활로 단순화되어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를 가진다. 유호선 외(2014)는 국민연금노후보장패널 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의 전산자료를 연결하여 노동경력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이력, 급여액, 평균소득을 분석하였다. 해당연구는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11년까지의 비교적 긴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행정자료와의 연결을 통해 유형별 국민연금 수급액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계속 상용직 유형은 공적연금 가입 경험이 91.3%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며, 국민연금가입액이 가장 높았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된 유형이 공적연금 가입경험이 낮았으며, 국민연금 수급액 또한 유형들 중 가장 낮았다. 패널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결함으로써 조사된 종사상 지위와 실제 국민연금 가입과 급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신실 (2018) 연구 또한 한국노동패널 직업력 자료와 1차에서 18차 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노동경력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중고령층의 노동경력과 가족생애주기 그리고 빈곤의 관계에 대한 확증적 분석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다.

4. 중고령자 빈곤결정 요인

중고령자 및 노인의 생애 노동경력과 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노인 빈곤의 요인을 과거 노동경력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석상훈, 2009; 김수정·김정석, 2011; 석상훈·김현수, 2012; 김재호, 2014; 김태완·신화연·임완섭 외, 2020; 이주미·김태완, 2020).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노인 빈곤의 문제는 노인이 된 시점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의 경제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홍백의(2005)는 노인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이전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홍백의, 2005: 279).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과거 노동경험은 최종직종(농·어업, 단순 노무직, 서비스업 및 전문·사무직), 고용형태(정규직

과 비정규직 여부)으로, 개인의 빈곤 여부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홍백의, 2005: 279-280). 분석결과, 노후의 경제적 상태나 빈곤은 성별이나 가족형태와 같은 대리변수(proxy variables)에 의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과거의 노동형태와 관련된 변수들은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홍백의, 2005: 286). 그러나 횡단분석을 통해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동태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옥금(2007) 또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과거 노동력도 고려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차년도에 55세 이상인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빈곤 여부는 가구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였고, 과거 직업력 요인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직종을 분석에 투입하였고, 과거의 일자리는 개인의 직업력에서 근로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의 직종을 활용하였다(최옥금, 2007: 9-11). 분석의 결과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구특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특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한 경험은 노인 빈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최옥금, 2007: 9-22).

석상훈(2009)은 기존연구와는 달리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1차(1998년)~10차(2007)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석상훈, 2009: 82). 빈곤은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였고(석상훈, 2009: 82), 과거의 경제상태는 가구주의 과거 주된 일자리(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로 보았다(석상훈, 2009: 87). 분석을 통해 노인 빈곤은 노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형태 등 노인이 되기 이전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 단독가구이면서 과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

형태가 불안정했던 집단을 항상빈곤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이 집단이 높은 노인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다(석상훈, 2009: 95).

이주미·김태완(2020)은 노인 빈곤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최근의 연구로, 50대 중고령층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3차(2007년)~14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노동시장 변화 또는 경험은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종사, 비경제활동 경험), 주된 직종 변화, 주된 활동 기업 단위(10인 미만, 10~100인 미만, 100~500인 미만, 500인 이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빈곤은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이주미·김태완, 2020: 201-20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로 비경제활동 상태를 경험한 경우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빈곤율이 매우 높았고, 안정적이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직종은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었으며, 기업규모가 작은 곳에서 경제활동을 한 경우 노후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주미·김태완, 2020: 215). 이전의 연구에 비해 장기적인 시기가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략적으로 중고령자 및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족구조, 거주지역, 고용특성, 과거 노동경력, 공적이전제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노인 빈곤의 결정요인으로 가족구조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박경숙·김미숙(2016)은 한국사회에서 노후의 소득수준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가족부양이고, 가족부양의 급격한 쇠퇴를 반영하는 것이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라고 설명한다(박경숙·김미숙, 2016: 223-224). 이에 따라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가 빈곤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2008년, 2011년 시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의 변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박경숙·김미숙, 2016: 229-230). 분

석결과,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증가,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감소는 노인의 상대빈곤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노인의 빈곤 위험을 부분적으로 완충하고 있지만,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빈곤 위험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증가에 따라 심화된 빈곤 위험이 전체 노인의 빈곤율 수준을 상승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결론내렸다(박경숙·김미숙, 2016: 248).

이은영(2019)과 강성호·이태열(2020)은 노인 빈곤과 가족구성, 가구분화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두 연구 모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득을 통해 이를 설명하였다. 이은영(2019)은 가족구성과 가구원별 근로소득 추이를 통해 은퇴연령층(2006년 기준 55~59세)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취업자녀의 분가 등 가족 구성의 변화가 총 가구소득의 감소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이은영, 2019: 14). 강성호·이태열(2020)은 노인가구 분화를 노노세대가구, 노인/자녀세대가구, 황혼이혼가구로 유형화하여 분화 전 후의 소득을 비교하였고,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자녀 분가, 황혼이혼 등에 따른 가구분화도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강성호·이태열, 2020: 5-9).

기존의 연구들이 노인의 가족구조가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면, 이주미·김태완(2020)은 노인빈곤에 50대 가족구조 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3차(2007년)~14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구원 수 변화(가구원 수 증가, 유지, 감소)와 혼인상태의 변화(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미혼)를 기준으로 보았고, 빈곤은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이주미·김태완, 2020: 201-203). 분석을 통해 50대에 유배우자와 생활하는 경우 사별·이혼·별거 등을 경험한 중고령자에 비해 노후에 빈곤율을 낮

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주미·김태완, 2020: 216).

III. 분석전략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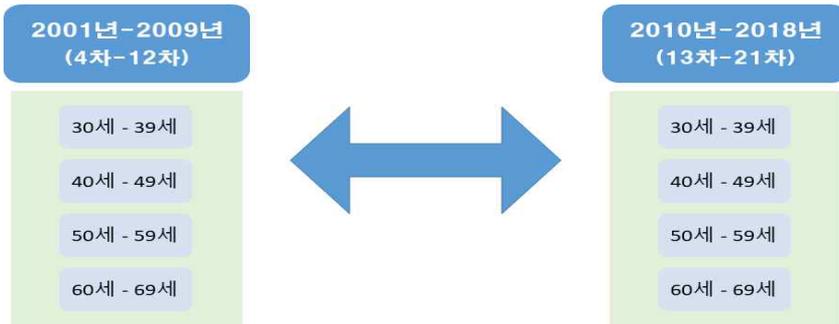
본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이하 노동패널) 4차에서 2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하는 조사로써 현재 21차까지 자료가 구축되어, 우리나라 패널데이터 중 가장 긴 기간(wave)이 조사되었다. 1차 자료부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료 구축의 초기 과정에서 질문과 측정방식의 변경(예를 들어 가구소득 관련 측정)이 있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계약 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묻는 질문문항이 4차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4차 자료부터 사용⁴⁾하였다. 분석대상은 두 개의 다른 코호트(연령 코호트와 출생 코호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연령코호트(age cohort)로써 [그림 III-1: 분석틀 1] 에 제시하였다. 2000년 전/후반의 대략 10년 동안의 30대, 40대, 50대, 60대의 노동궤적 및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을 비교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노동궤적 유형과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이 어떤 조응관계를 가지는지 비교 분석한다. 해당 분석에서 20대 청년층의 불안정 노동과 소득구성은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불안정 노동과 니트세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예를 들어 반정호 2010; 이승윤 외,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불안정 노동이 징검다리

4) 또한 97년 외환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98년부터의 노동궤적은 외부 경제상황에 의한 일시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4차 자료의 경우 2001년 조사년도로써 97년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물론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상황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개인의 노동궤적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stepping stone)인지 덫(trap) 인지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청년층의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노동생애에 걸쳐서 지속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불안정 노동과 빈곤궤적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김문길, 이주미, 2017)⁵⁾.

[그림 III-1] 분석틀 1: 연령 코호트



두 번째 출생코호트 비교는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를 의미한다. [그림 III-2]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년도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이며, 이전부머 세대의 출생년도는 1945년부터 1954년이다. 4차부터 21차까지 데이터에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의 연령은 38세부터 73세까지 분포한다. 단 노동패널 자료의 가구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되어, t-1년도의 노동궤적 자료와 t년도 소득 빈곤분석을 위해 각 코호트별 마지막 차수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로 인해 분석 가능 연령은 47세부터 72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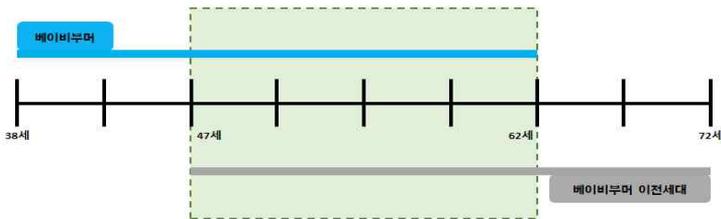
전체 기간에 걸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의 노동궤적과 가족생

5)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에 비해서도 낮으며 OECD 회원국의 청년 빈곤율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5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애주기 그리고 빈곤의 궤적을 살펴보고, 두 코호트가 분석자료 기간 내에서 겹치는 연령대인 47세부터 62세까지(이전부머의 경우 2001년부터 2008년과 베이비부머의 2010년과 2017년의 기간), 즉 중년에서 고령진입 직전까지의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를 비교하고, 빈곤에 미친 영향에 관해 두 출생 코호트를 각각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III-2] 분석틀 2: 출생 코호트: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부머 세대



본 연구는 해당 장마다 목적에 맞게 노동패널 자료의 wave를 달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wave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III-1>과 같다. 먼저 4장의 제1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연령대의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의 분포 그리고 빈곤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분석이며, 노동패널 12차부터 21차까지의 10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최근 10년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12차 조사 기준 20세 이상(가구주 및 배우자 기준 27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제4장 제2절은 연령코호트 분석으로 2000년대 초반 연령별 코호트 자료는 4차부터 1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매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개인이 분석대상이다. 2000년대 후반 연령별 코호트 자료는 13차에서 21차 매 조사에 참여한 개인이 분석대상이다. 제5장은 노동패널 자료 4차부터 21차까지 모두 참여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를 대상으로

38세부터 72세까지의 연령분포에 따른 노동궤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각 코호트의 같은 연령대가 데이터 상으로 47세~63세 사이 존재하며, 베이비부머의 경우 13차에서 21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전부머의 경우 4차부터 12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II-1> 4장과 5장 분석에 사용된 노동패널 차수 정보

	분석대상	분석연령	해당차수
제4장 제1절	전체 연령대 분석	- 전체 연령대의 노동궤적, 20(혹은 27)~83세	12차~21차
제4장 제2절	2000년대 초반 연령코호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4차~12차
	2000년대 후반 연령코호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13차~21차
제5장	베이비부머	38세에서 63세	4차~21차
		47세에서 63세	13차~21차
	이전부머	47세에서 73세	4차~21차
		47세에서 63세	4차~ 12차

2. 분석방법

먼저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성과 공적연금 보장여부를 고려한 노동궤적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채널 배열분석방법과 군집분석을 사용하도록 한다. 1980년대 도입된 배열분석은 생명과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차용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개인의 노동경력, 생애과정, 일상생활(시간자료)과 같은 주제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조미

라, 2017), 이 분석방법은 시계열적으로 관찰되는 사건의 배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배열 간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해 Hamming 거리 측정방법(Dynamic Hamming Matching, DHM)을 사용하여 배열 간 거리값을 구하고, 계산된 거리값에 근거하여 유형화(Cluster analysis)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사회과학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OM 방법은 배열 간 거리값은 모든 배열들을 돌씩 짝지어서 동일한 배열을 만들도록 하는 전환과정에서의 최소비용으로 정의된다. 또한 동일한 배열을 만들기 위한 전환과정은 “삽입/삭제”, “대체”를 통해서 이뤄진다(조미라, 2017). OM 방법과 관련된 비판은 삭제와 삽입을 통해 개인의 노동궤적이 실제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방식만을 사용하는 Hamming 거리 측정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DHM 방법은 삽입/삭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방법만을 사용하여 거리측정을 하는 방식이다(Gabadinho, Ritschard, Müller, & Studer, 2011, p25).

이 방법의 장점은 두 시점 간 전환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하는 점이다. 즉 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대체비용을 낮게 계산하고 시점 간 전환이 적은 경우 높은 대체비용을 매겨 거리값을 크게 계산한다(조미라, 2017). 예를 들어, 60세 이후에 노동상태에서 은퇴/비경활로 가는 전환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후에 비경활 상태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은 낮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두 시점 간(본 연구에서는 t년도와 t+1년도 간) 전환 빈도에 따라 거리값을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노동궤적의 변화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노동궤적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각 채널별로 거리값을 계산하고 이 거리값을 평균 또는 합을 구하여 새로운 비용을 산출하여 유형화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채널별 대체비용의 합(sum of the substitution

costs)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배열 분석 방법을 사용하며, 불안정 노동을 측정하는 3가지 범주(dimension)를 이용하여 생애노동궤적을 측정하며, 3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불안정 측면은 고용조건과 관련된 불안정성을 의미하고, 둘째, 소득 불안정은 저임금 혹은 임금/사업소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사회보장 불안정(사회임금 불안정)은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사회보장 급여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백승호, 2014: 58, 61-64). 이 세 가지 측면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고용불안정 측면은 Kim et al(2018)의 연구를 따라 임금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포함)/임시일용직/비전형 노동(파견,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소득불안정의 경우 ILO/OECD의 저임금 기준을 따라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으로 분류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임금노동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저임금 자영업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불안정은 사회보험의 가입 혹은 급여 여부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측면이기 때문에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만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렇게 측정된 불안정 노동에 관한 3가지 측면 중 1) 고용의 불안정 수준을 측정하는 범주(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와 2) 노동소득의 불안정성(중위임금 2/3 미만)의 조합으로 하나의 채널을 구성하였으며 각 분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규직 임금 근로자, 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3) 저임금 정규직 4) 저임금 비정규직 5) 자영업자, 6) 저임금자영자, 7) 무급가족종사자, 8) 비경활(실업자 및 은퇴자 포함)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채널은 공적연금 보장여부로서 구성하였으며, 공적연금 가입과 수급관련 질문을 사용하였다. 공적연금의 유형에는 국민연금과 타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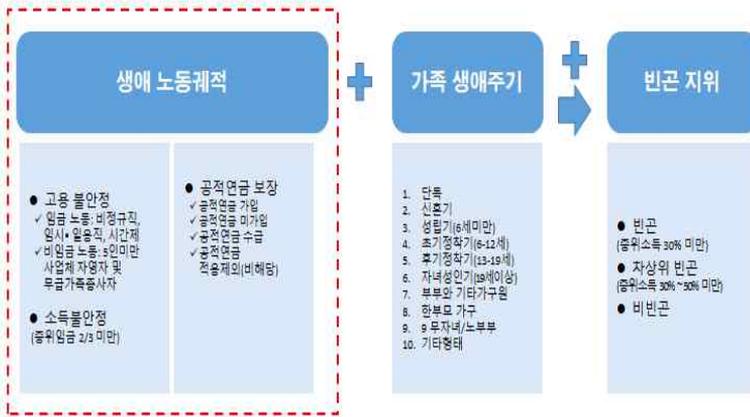
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이 포함된다. 가입형태의 경우 1) 공적연금 가입, 2) 공적연금 미가입, 3) 공적연금수급, 3) 비해당(미보장)으로 분류하였다. 4개의 범주를 그대로 두고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본 분석대상이 공적연금 가입 연령인 30세부터 60세 이상 수급연령까지 분포하는 것을 감안하여, 각 유형별 이름을 정할 때는 “가입” 혹은 “수급” 상태의 경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과 수급을 “보장”으로 그 외의 경우는 “미보장”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명칭을 정하였다.

노동패널의 임금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 여부를 2차 때부터 질문하였으며,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설문은 11차에 추가되었다. 또한 3차부터 6차까지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조사하였다. 정리하자면 임금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여부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조사된 반면,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3차부터 6차까지 조사되었고, 11차부터 다시 조사되어서 7차, 8차, 9차, 10차 4개년도의 국민연금 가입정보가 누락되었다. 대략적으로 4개년도의 결측값을 대체하기 위해 4개년도 기준 2년 전과 2년 후의 정보를 기준으로 같은 종사상 지위 즉 비임금 근로자라고 응답할 경우 대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체하였다. 결측값 대체(imputation)를 위한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6차가 비임금 근로자이며, 7차와 8차에서 비임금 근로자라고 응답한 경우, 6차 자료의 국민연금 가입정보로 대체하였으며, 11차가 비임금 근로자이면서 9차와 10차 또한 비임금 근로자일 경우 11차 자료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정보로 대체하였다. 다음으로 9차와 10차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6차 자료에서 비임금 근로자일 경우 6차 자료로 대체하였다. 이런 원칙을 통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관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령코호트 기준 분석가능 대상자는 4,059명이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람은 3,905명이며, 이중

대체된 자영자와 영세자영자 수는 7차 자료 기준으로 전체 총 659명(30대 164명; 40대 234명; 50대 172명, 60대 89명)이며, 190명(4,059명 중 4.6% 소실)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공적연금 수급 변수의 경우 사회보험급여 수급여부에서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사회보험의 종류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수급이라고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생애주기의 범주는 총 10가지로 Moen (2003)이 제시한 가족생애주기 7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7개의 유형이 포괄하지 못하는 가족유형을 포함하였다. 10가지의 가족생애주기는 다음과 같다. 1) 단독가구, 2) 신흥기(nonparents under age forty)(여성이 40세 미만으로 자녀가 없는 시기), 3) 가족성립기(launching)(자녀가 6세 이하(미취학)인 경우), 4) 초기정착기(early establishment)(자녀가 6-12세(초등생)인 경우), 다음으로 5) 후기정착기(late establishment)이며 13-18세(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6) 자녀성인기(individuals with adult children)는 자녀가 19세 이상인 가족을 의미하며, 7) 부부와 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그 외 8)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9) 무자녀/노부부(여성연령이 40세 이상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이며, 마지막으로 10) 기타형태는 앞서의 1~9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 가구형태를 뜻한다. 가족생애주기의 발달단계(2) 신흥기부터 6) 자녀성인기까지)에서 자녀연령 기준의 분류는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III-3] 분석 모형



다음으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의 노동궤적 유형과 가족생애 주기가 빈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방법으로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소득빈곤이며, 소득빈곤의 경우 조사년도 기준 전년도 한 해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 균등화하였으며, 이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선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빈곤선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빈곤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비빈곤으로 코딩하였다. 즉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까지를 빈곤으로 설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개인의 노동궤적 유형과 가족생애주기(가구 형태)를 독립변수로 분석에 투입하며, 그 외에 소득빈곤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추가로 투입하였다. 총 3가지 모델로 분석을 실시한다. 모델 1은 기본 모형으로 노동궤적 유형더미 변수와 연령, 연령제곱, 성별을 통제하였다. 모델 2는 모델1에 추가로 가족생애주기(가구 형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모델은 모델 2에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초대졸 이상), 거주 형태(자가, 전세, 월세 및 기타), 지역(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기타 지역) 등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노동궤적 유형변수는 분석 코호트에 따라 4차부터 21차까지의 다중배열분석과 군집화된 변수를 의미하며, 다른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가중치는 마지막 wave의 값을 사용하였다. 가족생애주기의 경우 전체 연령대를 분석할 경우 10개 형태가 존재하지만, 특정 연령대 분석에서는 전체 10개의 가족생애주기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가족생애주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배열분석에서는 가족생애주기 10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가구형태 즉 단독가구,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 부부와 자녀, 한부모와 자녀, 그 외 가구 형태로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전년도 기준($t-1$)이며, 다른 변수들은 t 년도 기준으로 조사가 되어, $t+1$ 차 년도의 빈곤지위 변수와 t 년도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조합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구소득 빈곤과 개인의 노동궤적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에서의 분석 대상은 가구주와 배우자로 한정하였으며 가구내의 동거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표 III-2> 로지스틱 분석을 위한 변수의 설정

분류	항목	측정
종속변수	소득빈곤	균등화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선이며, 빈곤선 120% 미만은 빈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빈곤
독립변수	47세~62세 동안의 노동궤적	생애노동궤적 유형 : 다채널배열분석과 군집분석결과로 도출된 유형
	가구형태	1)단독가구, 2)부부 3)부부와 자녀, 4)한부모와 자녀 5)그 외 형태
통제변수	연령, 연령제공	연속변수
	성별	남, 여
	교육수준	1)초등학교 졸업(기준)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초대졸 이상
	거주지역	1)서울, 2)경기, 3)광역시, 4)그 외 기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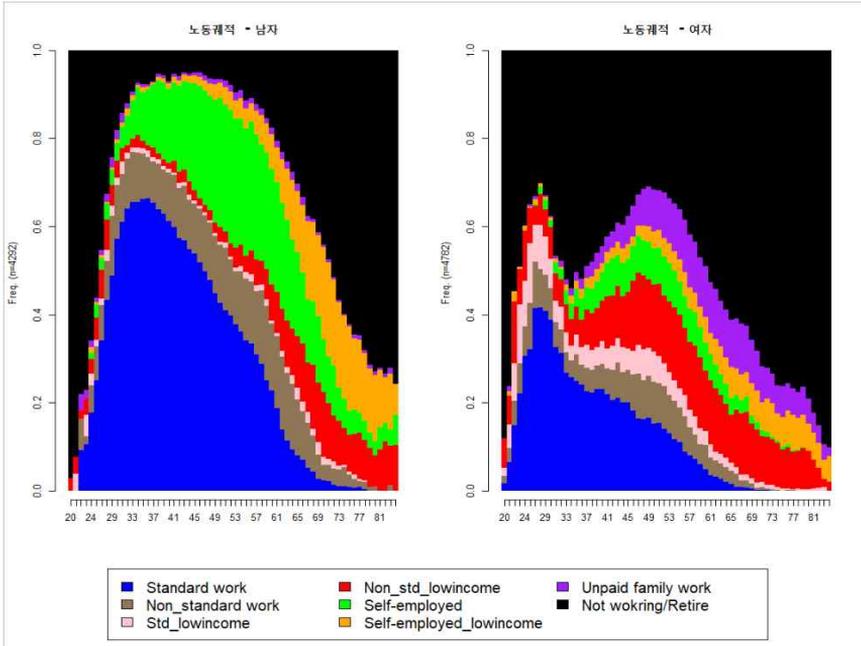
IV. 전체연령대 및 연령 코호트별 분석결과

1. 전체 연령대의 배열분석 결과

제1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stacked data의 형태로 노동귀적, 가족생애주기 및 빈곤귀적의 배열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노동패널 12차부터 21차까지의 10개년도 조사에 다 참여한 개인(12차 기준 20세 이상 74세 이하)들의 해당 연령 노동귀적을 나타낸 그림은 [그림 IV-1]과 같다. 남성과 여성 둘 다 20대 초반은 학업의 연장으로 인해 비경활 상태인 검정색이 우세하며 남성의 경우 대학교육과 군복무로 인해 비경활(검정색) 비율이 20대 중후반까지 높다. 30세 전후로 근로상태로 전환되는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빨리 비경활에서 근로상태로 전환하지만, 여전히 비경활 상태인 여성 비율이 높고, 정규직 비율 또한 40%에 못 미치며, 전 연령대에 걸쳐서 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매우 낮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M자형 분포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 후에 노동시장 재진입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이 우세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정규직 비율(파란색)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연두색) 비중이 컸다. 또한 60세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불안정 노동(영세자영업,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

6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1] 20세부터 83세까지 고용지위+임금보장 궤적(전체 개인)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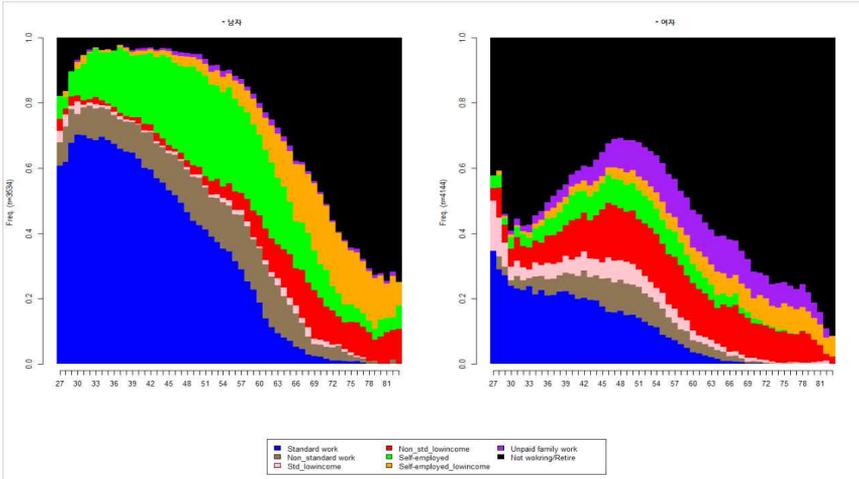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IV-2]는 분석대상 중 가구주와 배우자로 분석을 제한한 결과이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우 27세를 최저 연령기준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그림 IV-1]와 비슷한 노동궤적 분포를 보였으며, 여성 배우자의 경우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비경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3]는 공적연금 보장의 궤적을 나타낸다. 노동궤적과 비슷하게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에도 대략 20% 이상이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보장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적연금 수급자는 대략 60세 이상이 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이

들 노인이 근로연령층일때는 공적연금 미성숙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의 걸쳐서 적용제외이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공적연금 보장 궤적은 전체 개인 결과와 매우 유사하여 결과 제시는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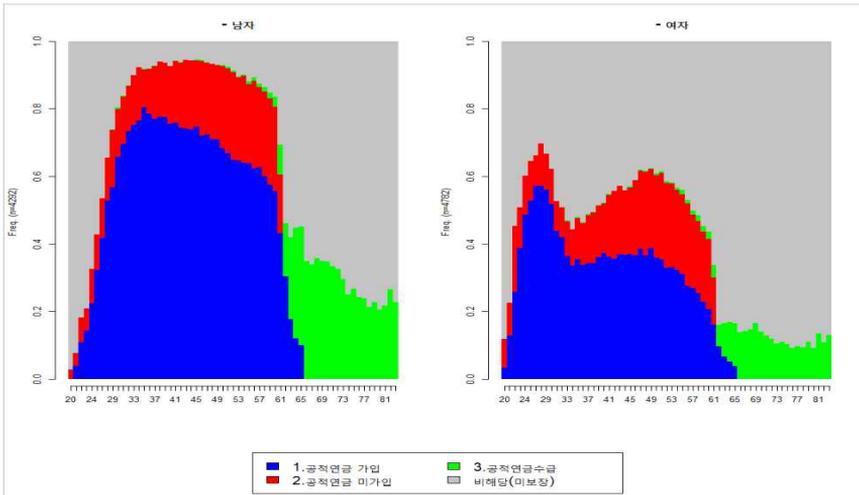
66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2] 27세부터 83세까지 고용지위+임금보장 궤적(가구주/배우자)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21차.

[그림 IV-3] 20세부터 83세까지 공적연금 보장 궤적(전체 개인)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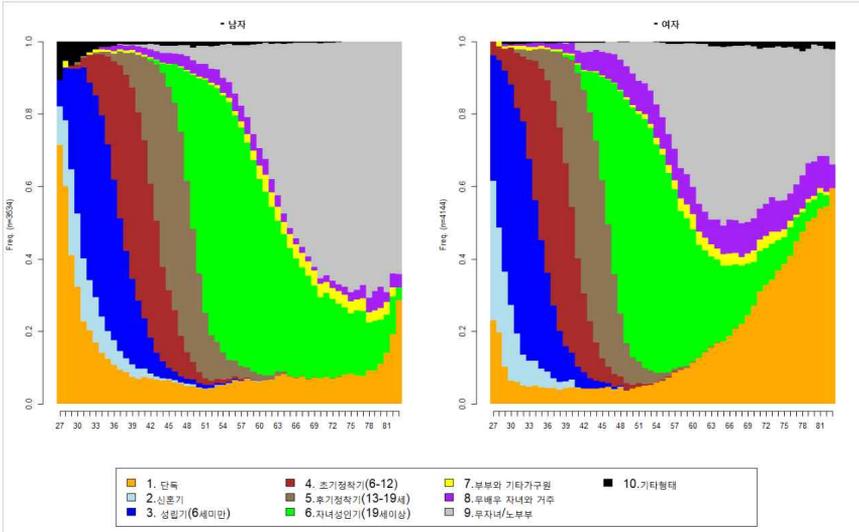
다음으로 가족생애주기 그림은 [그림 IV-4]와 같다. 27세와 83세 사이의 가구주와 배우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대부분은 연령대에 맞게 가족생애주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혼인에서의 연령차이로 인해 27세를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가족 성립기 즉 6세 미만의 아동을 지닌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매우 높았다. 즉 27세 기준 남성의 단독가구 비율은 70%까지였지만 여성의 경우 20%이며 대부분은 신혼기와 성립기의 상태였다.

대략 여성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35세까지 신혼기와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성립기를 경험하고, 35세부터 45세 때 대략 초기정착기(첫째 자녀 기준 6-12세)를 지나 후기 정착기(첫째 자녀 기준 13-19세)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높아 65세의 노인을 기점으로 단독가구 비율(개나리색)이 매우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은 대략 79세까지도 자녀와 함께 동거하거나 혹은 노부부(2인가족)의 형태를 지나다가 79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비율을 보인다.

연령대별 빈곤율은 아래의 그림 [그림 IV-5]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더 길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65세를 기점으로 빈곤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 대략 60세부터 빈곤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노동소득의 감소로 인한 빈곤진입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짐작되며, 여성의 경우 단독가구와 같은 가구구조 변화가 고령의 여성의 빈곤율을 높이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여성의 단독가구 비율이 남성보다 이른 시점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연관된다([그림 IV-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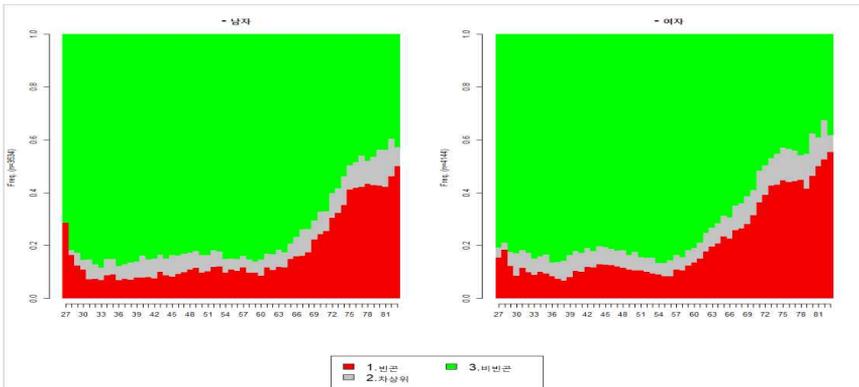
68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4] 27세부터 83세까지 가족생애주기(가구주와 배우자)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21차.

[그림 IV-5] 27세부터 83세까지 빈곤궤적(가구주와 배우자)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21차.

2. 연령코호트별 분석결과

제2절에서는 연령코호트별 (30대~60대) 2001년과 2010년의 노동귀적, 공적연금 보장여부, 가족생애주기 및 빈곤귀적 배열그래프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또한 각 연령코호트별 노동귀적과 공적연금 보장 여부를 고려하여 노동귀적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노동귀적과 가족생애주기, 빈곤귀적과의 조응관계를 살펴본다.

가. 30-39세 (2000년대 vs 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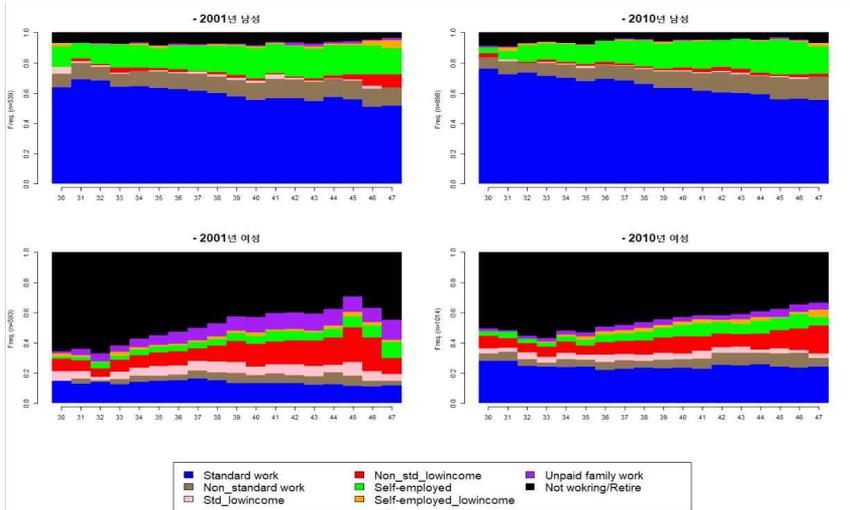
[그림 IV-6]~[그림 IV-9]는 30대 연령 코호트의 1) 노동귀적, 2)공적연금 보장귀적, 3) 가족생애주기 단계, 4) 빈곤귀적을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노동귀적 그림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0년 코호트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았으며, 2001년 코호트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47세 시점에서 2010년 코호트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2010년 코호트의 정규직 비율이 2001년 코호트보다 확연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01년 코호트보다 2010년 코호트의 공적연금 가입비율이 증가하였다.

가족생애 주기 귀적의 경우 30대 코호트의 경우 대부분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성립기에서 초기정착기와 후기정착기를 거쳐 자녀성인기를 경험하였다.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생애주기 단계가 느렸다. 2001년의 경우 30대의 남성은 30세에 신혼기부터 시작하는 비율이 일부 존재하지만, 여성은 대부분 이미 성립기 단계(6세 미만)였다. 2010년 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10년 코호트의 가족생애주기 단계가 2001년 코호트보다 느렸다. 2010년 코호트 여성의 경우 30대에도 신혼기가 일부 분포하였으며, 2010년 남성의 경우 30대와 40대까지 독신 비

70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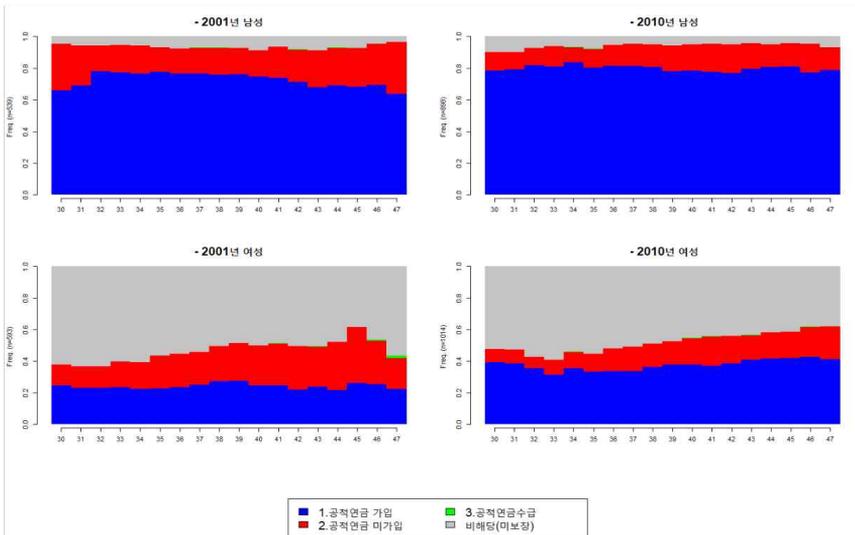
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혼인을 늦게 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특히 2001년 코호트 여성의 경우, 이미 30대 후반부터 후기정착기 단계에 이르렀으며 4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자녀성인기(연두색)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빈곤은 대략 20% 비율 정도였으며, 증가 혹은 감소양상을 찾기 힘들었으며, 2001년 코호트와 2010년 코호트 간 그리고 남녀 간의 현격한 차이를 포착하기 힘들었다.

[그림 IV-6] 30대 연령코호트 노동계적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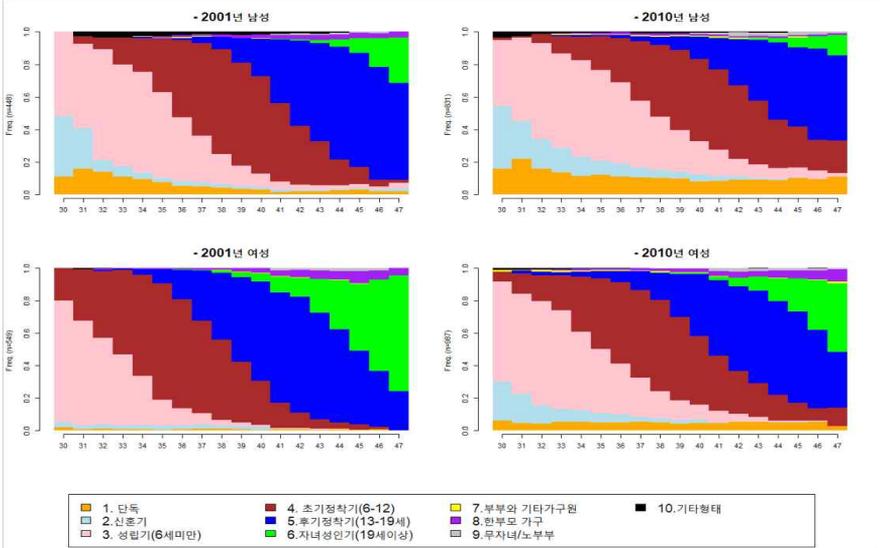
[그림 IV-7] 30대 연령코호트 공적연금 계적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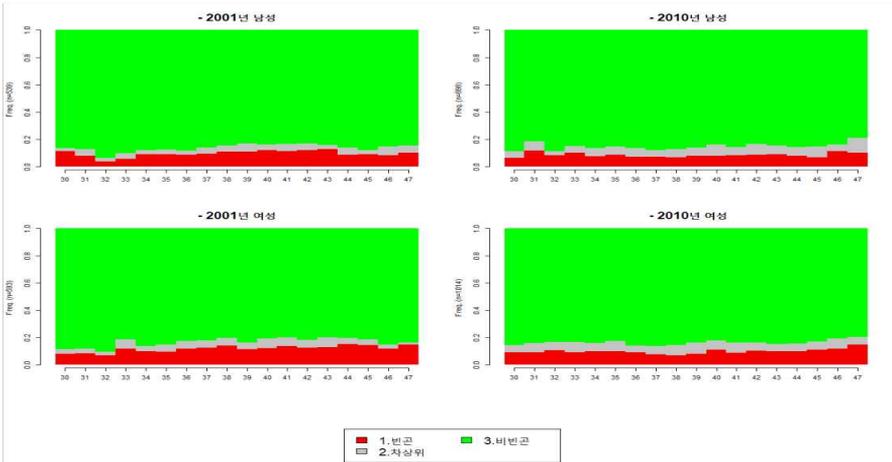
7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8] 30대 연령코호트 가족생애주기 궤적



각주: 가구주와 배우자만 분석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9] 30대 연령코호트 빈곤궤적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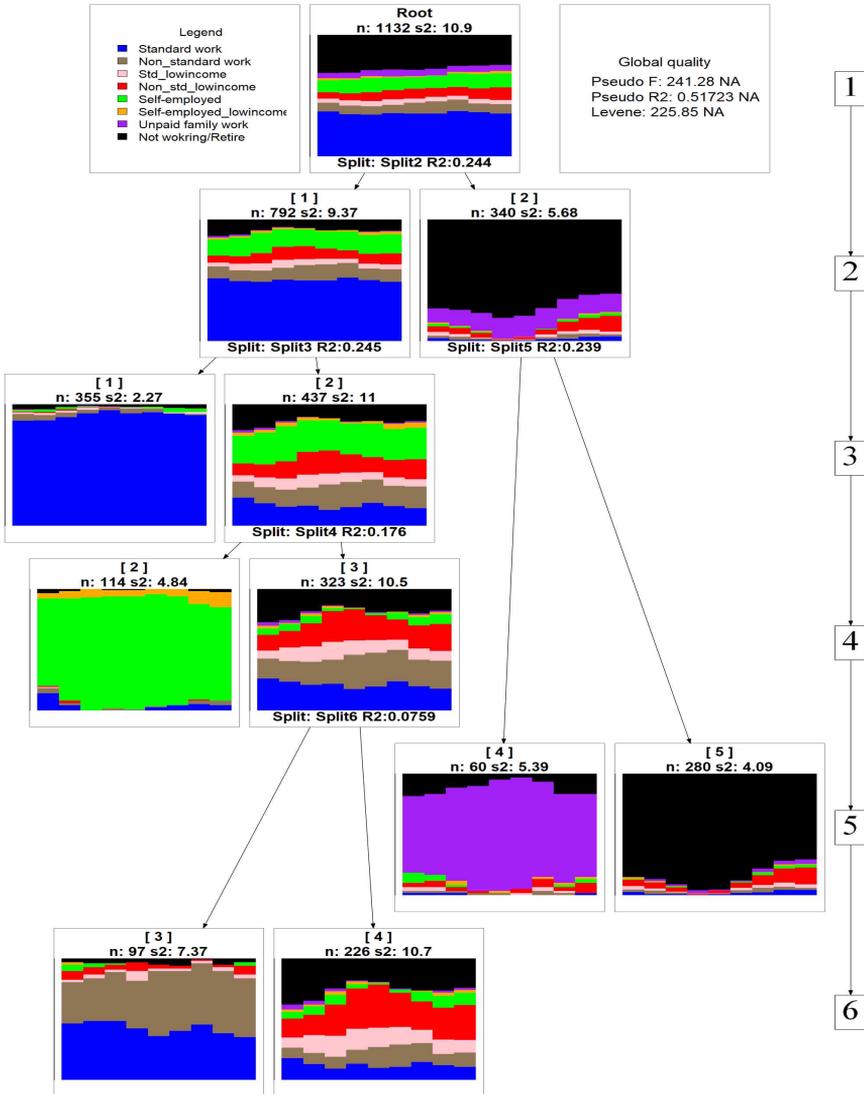
2001년과 2010년의 30대의 코호트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 9년을 추적하였으며, 각각 코호트의 마지막 차수인 2009년과 2018년에 39세에서 47세에 분포하고 있다. 두 코호트 모두에서 6개 유형이 최적화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아래의 [그림 IV-10]와 [그림 IV-11]은 각각 2001년 코호트와 2010년 코호트의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6개 유형의 나무그림(tree display)을 나타낸 것이다. 유형화하기 전의 1단계의 그림은 2001년의 코호트의 해당기간 동안의 노동궤적을 보여준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분화될 때 2개의 유형으로 분화되었으며, 첫 번째 유형은 정규직(파란색)과 자영업(연두색)이 묶여서 ‘노동시장 종사’ 집단이며 두 번째 유형은 ‘비경활(검정색)과 무급가족종사자(보라색)’이 같은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3단계에서는 정규직(파란색)과 자영업(연두색)이 함께 묶여 있던 집단이 ‘정규직 임금노동자’ 집단과 ‘자영업과 불안정 노동’ 집단으로 분화되고, 다시 4단계에서는 ‘자영업과 불안정 노동 혼재’ 집단이 ‘자영업’과 ‘불안정 노동’ 집단으로 각각 분화된다. 5단계에서는 2단계의 ‘비경활과 무급가족종사자’가 혼재되었던 그룹이 각각 ‘비경활’과 ‘무급가족종사자’로 세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4단계에서의 불안정 노동 집단이 다시 공적연금 보장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2개의 집단으로 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코호트의 경우에도 2001년 코호트와 매우 비슷한 분화 과정을 거친다. 2단계에서 ‘비경활’ 집단과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으로 나뉘고, 3단계에서는 정규직(파란색)과 자영업(연두색)과 같은 ‘노동시장 종사’ 집단이 ‘정규직 임금 노동자’ 집단과 ‘자영업과 불안정 노동’ 집단으로 분화되고, 4단계에서는 ‘자영업과 불안정 노동 혼재’ 집단이 각각 ‘자영업’과 ‘불안정 노동’ 집단으로 분화된다. 5단계에서는 2단계의 ‘비경활, 불안정 노동, 무급가족종사자가 혼재’되었던 그룹이 각각

7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비경활·무급가족종사자’와 ‘비경활→불안정 노동’으로 세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비경활’인 집단과 ‘무급가족종사자’ 집단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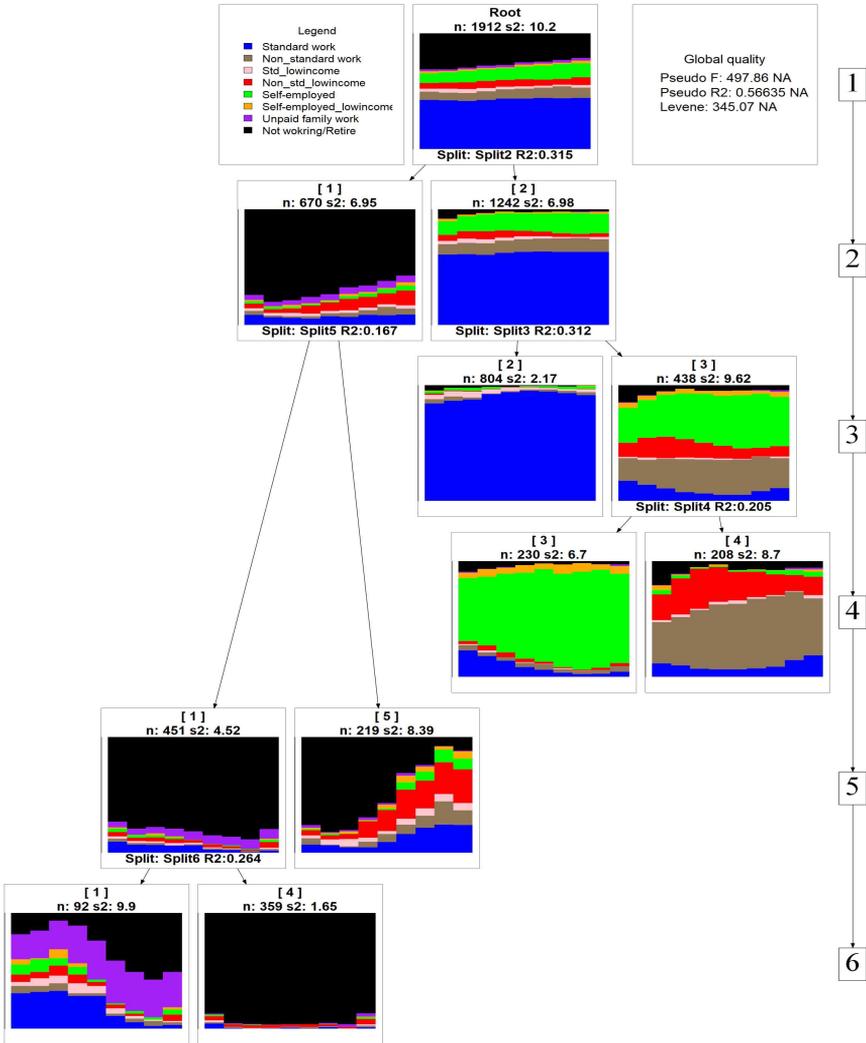
[그림 IV-10] 2001년 30대 코호트 노동계적 (2001-2009)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76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11] 2010년 3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2001년 코호트는 1. 정규직_연금보장(31.4%); 2. 자영업(10.1%); 3. 임금노동_연금미보장(8.6%), 4.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20.0%); 5. 무급 가족종사자(5.3%); 6. 비경활_연금미보장(24.7%)으로 분류되었다. 2010년 코호트는 1. 불안정·무급가족종사자→비경활(4.8%); 2. 정규직_연금보장(42.1%); 3. 자영업_연금보장(12.0%); 4. 비경활 (18.8%); 5. 불안정 노동(10.9%); 6. 비경활→불안정 노동(11.5%)으로 분류되었다. 두 코호트에서 동일하게 분류된 유형은 “정규직 연금보장”, “자영업”, “비경활_연금미보장” 유형이다. 2001년 코호트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지만 공적연금은 미보장 형태인 3번 유형이 2010년과는 달리 분류되었으며,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4번 유형이 하나의 유형으로 분리 되었고, 이 유형의 76.6% 이상이 여성이었다. 이 유형은 공적연금 미가입에서 2006년 이후로 가입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0대 코호트의 경우 2001년 코호트와 다르게 불안정 노동이 지만 공적연금 보장률이 대략 절반 이상인 5번 유형이 새롭게 분류되었으며, “비경활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이동하는 유형 또한 새롭게 포착되었다. 이 유형은 임금 근로로 전환함과 동시에 공적연금 가입은 증가하였다. 이 유형은 여성 비율이 90%로 매우 높았다. 특징적인 점은 불안정 노동이더라도 2001년 불안정 노동 코호트에 비해서 공적연금 가입률은 증가하였다는 점이며, 앞서 가족생애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혼인 출산이 2010년 코호트의 경우 지연되면서 비경활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이행하는 여성 집단이 따로 포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생애노동 궤적 그래프에 따라서 보면, 대략 M자 유형에서 두 번째 봉우리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다. 출산 및 육아를 마치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간 여성들로 보인다.

두 코호트 모두에서 정규직_연금 보장 유형의 남성비율이 각각 83.7%와 72.3%로 매우 높았으며, 반대로 비경활 연금미보장 유형은 여성의

비율이 대략 92%와 95%로 매우 높았다. 2001년과 2010년 코호트 유형에는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이 분류가 되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대략 90%와 8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안정적인 노동의 형태인 “정규직_연금미보장” 비율은 2001년 코호트의 31.5%에서 2010년 코호트의 42.1%로 10.6%p 증가하였으며, “비경활_연금미보장”비율은 2010년 코호트에서 대략 6%p 감소하였다.

2000년대 전반 30대 코호트 노동궤적 유형별 가족생애주기를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유형 4(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6(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에서 다른 유형들의 가족생애주기보다 매우 앞선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코호트의 마지막 년도인 2009년 기준 ‘자녀성인기(19세 이상)’ 단계에 진입한 비율이 유형 4의 경우 31%, 유형 6은 26%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 또한 4.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의 경우 단독가구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졌다. 빈곤궤적의 경우도 여성 비율이 높은 4.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6. 비경활_연금미보장 유형의 빈곤율이 마지막 년도 기준으로 각각 18.14%와 18.21%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 빈곤율 11.31%보다 높았다.

2000년대 후반 30대 코호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2001년 코호트에 비해서 자녀성인기 비율이 낮아, 가족생애주기가 2001년에 비해서 속도가 늦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001년 코호트의 경우 유형별 가족주기 분포가 4. 초기정착기(6-12세), 5. 후기정착기(13-19세), 6. 자녀성인기(19세 이상)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반면, 2010년 코호트는 모든 유형이 4. 초기정착기(6-12세), 5. 후기정착기(13-19세)에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여성 비율이 높은 1. 불안정 노동→비경활, 4. 비경활_연금미보장, 6. 비경활→불안정 노동 유형에서 후기정착기 단계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아, 가족생애주기 단계가 빨랐다. 단독가구 비율 또한 2001

년 코호트에 비해 높아졌는데, 3번 자영업_연금보장 유형과 5번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단독가구 비율이 각각 11.3%와 16.3%로 평균 6.64%에 비해 높았다.

빈곤율의 경우 여성 비율이 87% 이상으로 높은 유형인 1. 불안정 노동·무급가족종사자→비경활 집단이 각각 마지막 년도 기준으로 19.57%와 14.21%로 높았으며, 남녀가 대략 50%씩 비율로 구성된 5. 불안정 노동 유형 또한 빈곤율이 12.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 빈곤율은 8.79%였다.

80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표 IV-1> 2001년 3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단위: 명, 괄호 안 %)

분류	1	2	3	4	5	6	전체
	정규직_연금보장	자영업_연금보장	임금노동_연금미보장	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	무급가족종사자	비경활_연금미보장	
남성	297 (55.1) (83.7)	89 (16.5) (78.1)	72 (13.4) (74.2)	53 (9.8) (23.5)	6 (1.1) (10.0)	22 (4.1) (7.9)	539 (100.0) (47.6)
여성	58 (9.8) (16.3)	25 (4.2) (21.9)	25 (4.2) (25.8)	173 (29.2) (76.6)	54 (9.1) (90.0)	258 (43.5) (92.1)	593 (100.0) (52.4)
관측치 %	355 (31.4) (100.0)	114 (10.1) (100.0)	97 (8.6) (100.0)	226 (20.0) (100.0)	60 (5.3) (100.0)	280 (24.7) (100.0)	1132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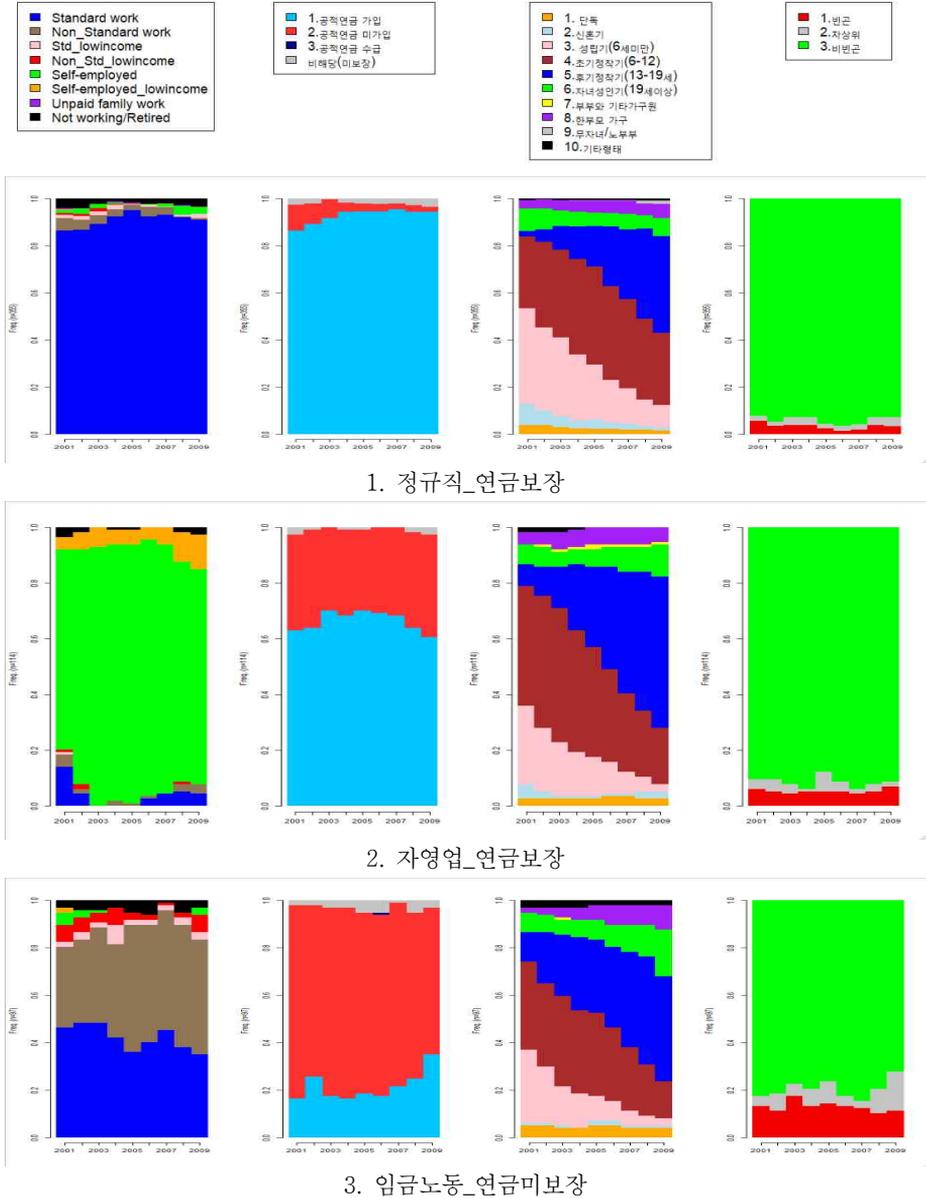
<표 IV-2> 2010년 3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단위: 명, 괄호 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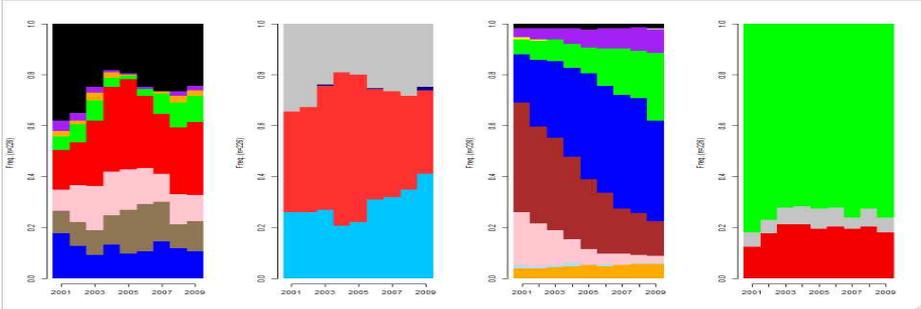
분류	1	2	3	4	5	6	전체
	불안정노동·무급가족종사자→비경활	정규직_연금보장	자영업_연금보장	비경활_연금미보장	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	비경활→불안정노동	
남성	12 (1.3) (13.0)	581 (64.7) (72.3)	162 (18.0) (70.4)	19 (2.1) (5.3)	102 (11.4) (49.0)	22 (2.5) (10.1)	898 (100.0) (47.0)
여성	80 (7.9) (87.0)	223 (22.0) (27.7)	68 (6.7) (29.6)	340 (33.5) (94.7)	106 (10.5) (51.0)	197 (19.4) (90.0)	1014 (100.0) (53.0)
관측치 %	92 (4.8) (100.0)	804 (42.1) (100.0)	230 (12.0) (100.0)	359 (18.8) (100.0)	208 (10.9) (100.0)	219 (11.5) (100.0)	1912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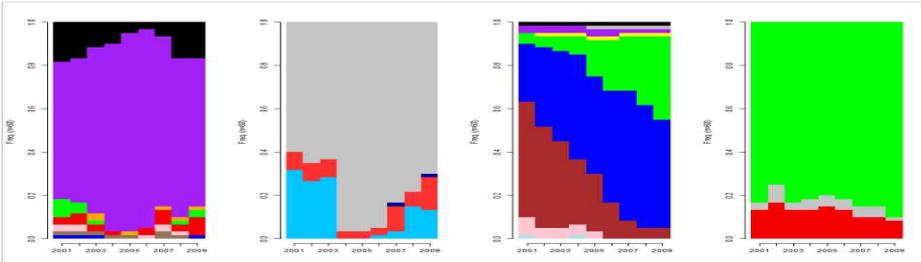
[그림 IV-12] 2001년 30대 노동계층,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층 (200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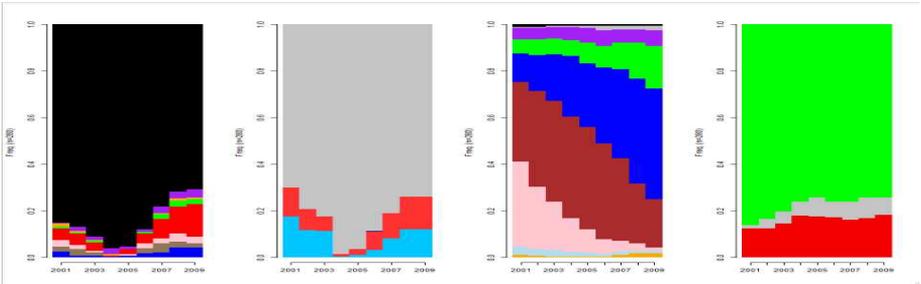
8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4. 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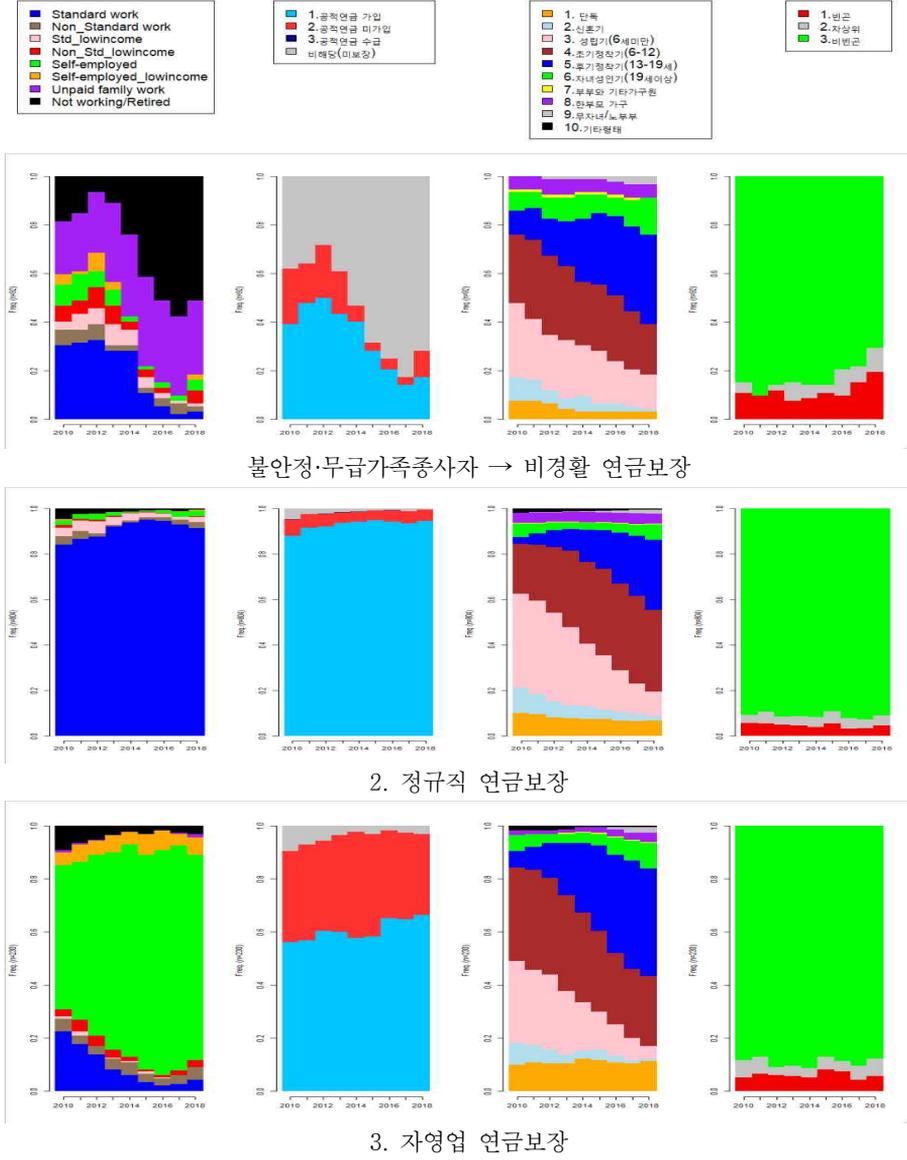
5. 무급가족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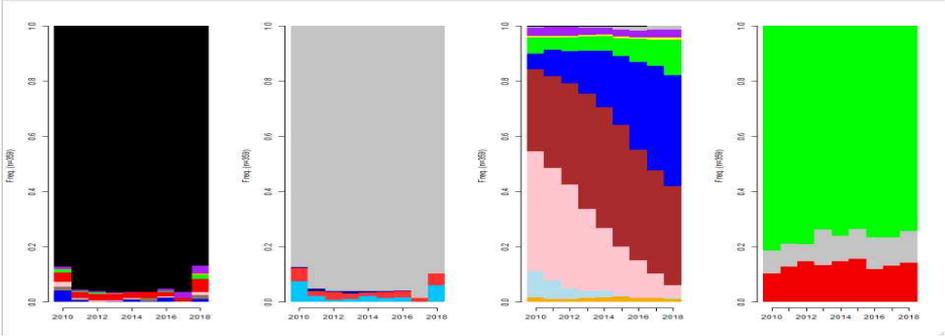


6. 비경활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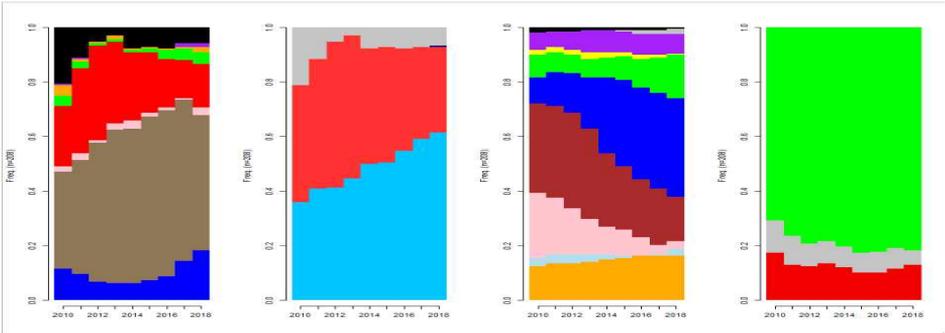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13] 2010년 30대 노동계직,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직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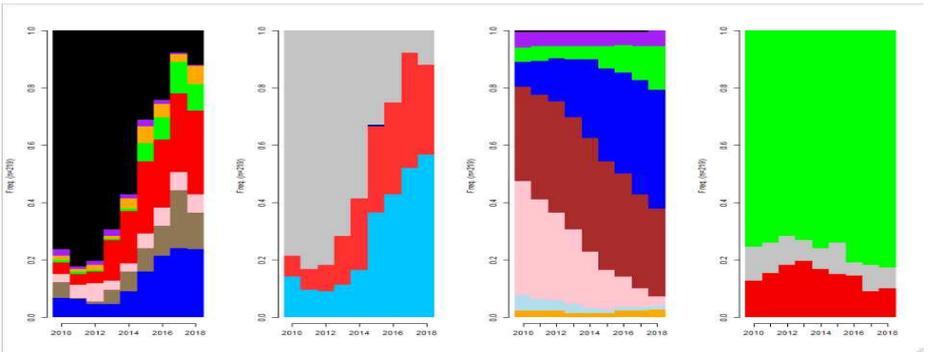




4. 비경황



5. 불안정노동 연금보장



6. 비경황 → 불안정노동 연금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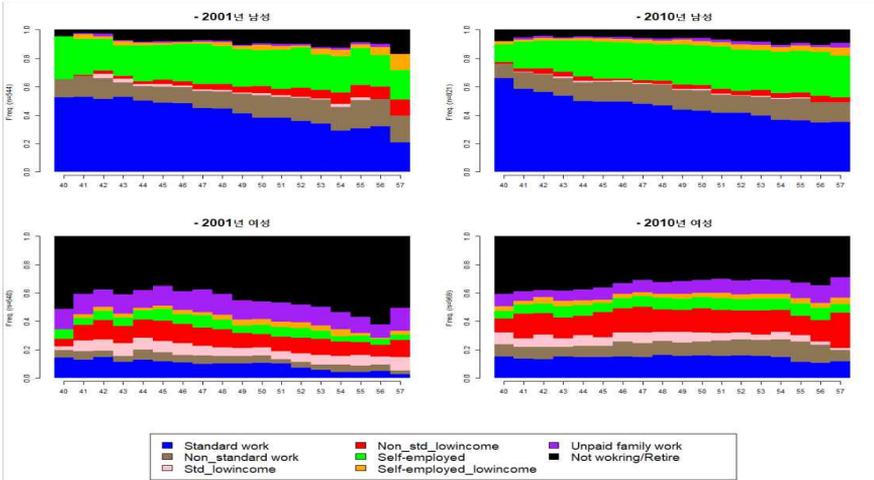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나. 40-49세 (2001년대 vs 2010년대)

[그림 IV-14]~[그림 IV-17]은 40대 연령 코호트의 1) 노동궤적, 2) 공적연금 보장궤적, 3) 가족생애주기 단계, 4) 빈곤궤적을 나타낸 그림이다. 노동궤적은 전반적으로 2010년 코호트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의 경우 2010년 코호트 정규직 비율은 2001년 코호트보다 약간 높았으며, 다른 불안정 노동 종사 비율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4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연금 가입률 또한 2001년 코호트보다 2010년 코호트가 증가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1년 코호트의 자영자와 불안정 노동자(일부 정규직 노동자들 포함)의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였는데, 2010년 기준 자영자와 불안정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면서, 40대의 연금가입률 또한 증가한 것으로 짐작된다. 1999년 국민연금이 전국민 가입으로 확대되었지만, 2001년 당시 강제 가입 대상인 사업장 가입자(정규직/상용직)를 제외한 자영자 및 그 외 불안정 노동자들의 가입률이 저조했던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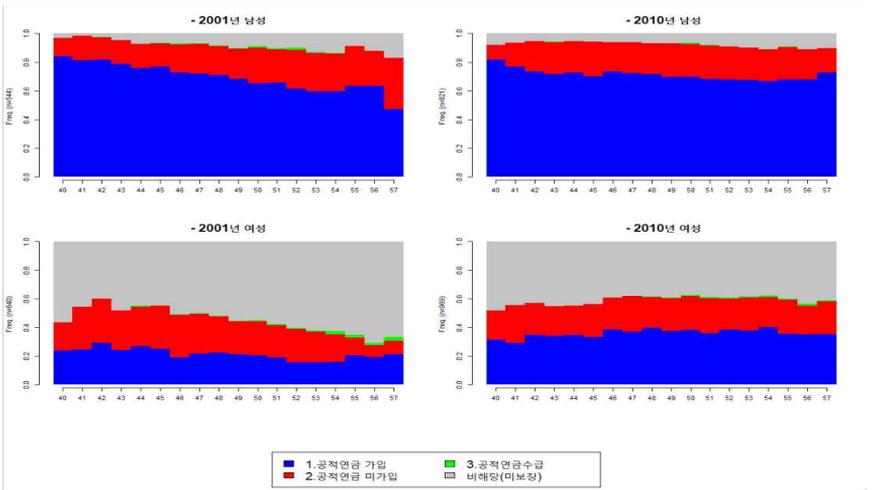
지난 10년 동안 40대 코호트의 가족생애주기는 두 코호트 모두 후기 정착기(자녀 13-19세)와 자녀성인기의 과정을 대부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코호트의 마지막 차수로 갈수록 자녀가 독립/출가 후에 나타나는 무자녀/노부부(회색) 단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2001년보다 2010년의 가족생애주기 지연 현상이 나타났으며, 2010년 코호트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6세 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성립기가 40대 초반에 존재하였고, 남성의 혼인지연으로 인해 성립기와 초기정착기의 단계를 40대에 경험하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빈곤궤적은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1년 코호트보다 2010년 코호트의 빈곤율이 약간 높았다.

[그림 IV-14] 40대 연령코호트 노동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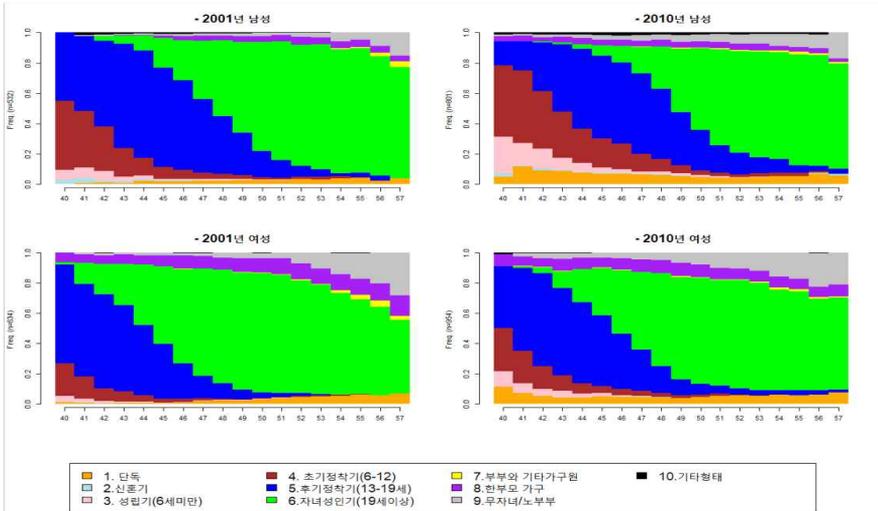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15] 40대 연령코호트 공적연금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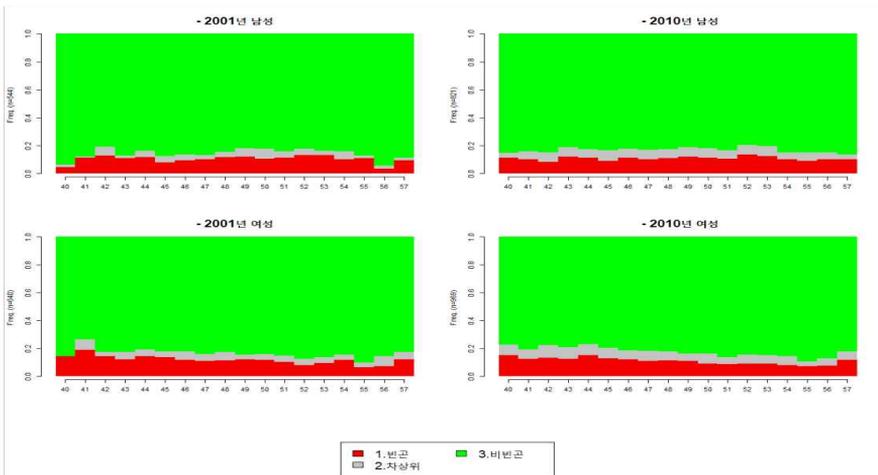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16] 40대 연령코호트 가족생애주기 궤적



각주: 가구주와 배우자만 분석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17] 40대 연령코호트 빈곤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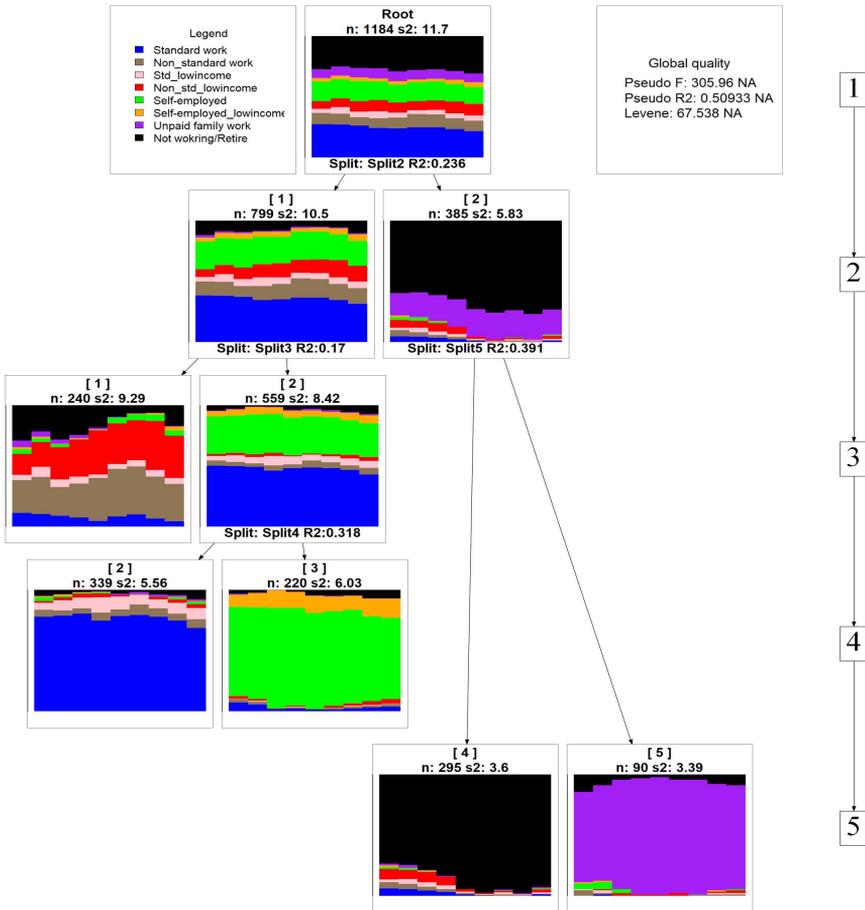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2001년과 2010년의 40대의 코호트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 9년을 추적하였으며, 각각 코호트의 마지막 차수인 2009년과 2018년에 49세에서 57세에 분포하고 있다. 2001년 코호트는 6개 유형이 2010년 코호트는 5개의 유형이 최적화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아래의 [그림 IV-18]와 [그림 IV-19]은 각각 2001년 코호트와 2010년 코호트의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유형의 나무그림(tree display)을 나타낸 것이다. 유형화 하기 전의 1단계의 그림은 해당기간 동안의 2001년의 전체 코호트의 노동궤적을 보여준다. 2001년 코호트와 2010년 코호트의 나무그림을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의 분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유급 노동과 무급/비근로 여부에 따라 나뉘었다. 즉 '비경활과 무급가족종사자'가 한 집단으로 그리고 나머지 '임금/비임금 노동자'들이 다른 한 그룹으로 나뉘었다. 3단계에서는 정규/비임금 노동자들이 다시 나뉘는데, 2001년의 경우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이 한 집단 그리고 나머지 '자영자와 정규직' 집단이 한 그룹으로 나뉘었다. 2010년 코호트에서는 '자영자와 불안정 노동'이 같은 그룹으로 그리고 '정규직 노동'이 다른 한 집단으로 나뉘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보장, 고용안정, 공적연금 보장 여부의 특성 면에서 노동시장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01년의 경우 정규직과 자영자 집단이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불안정 노동이 이질적이었던 반면, 2010년의 노동시장은 불안정 노동과 자영자가 더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정규직이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4단계에서는 2001년 코호트는 '자영자'와 '정규직'이 분화되었고 2010년 코호트는 '불안정 노동'과 '자영자'가 분화되었다. 이 차이는 공적연금 보장 여부로 인해 발생한 차이이다. 5단계에서는 비경활/무급가족종사자 집단이 '비경활'과 '무급가족종사자'로 각각 세분화되었으며, 2001년 코호트는 5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 2010년 코호트의 6단계의 경우 불안정 노동이

‘불안정 노동 임금보장’과 ‘불안정 노동 임금미보장’유형으로 더 세분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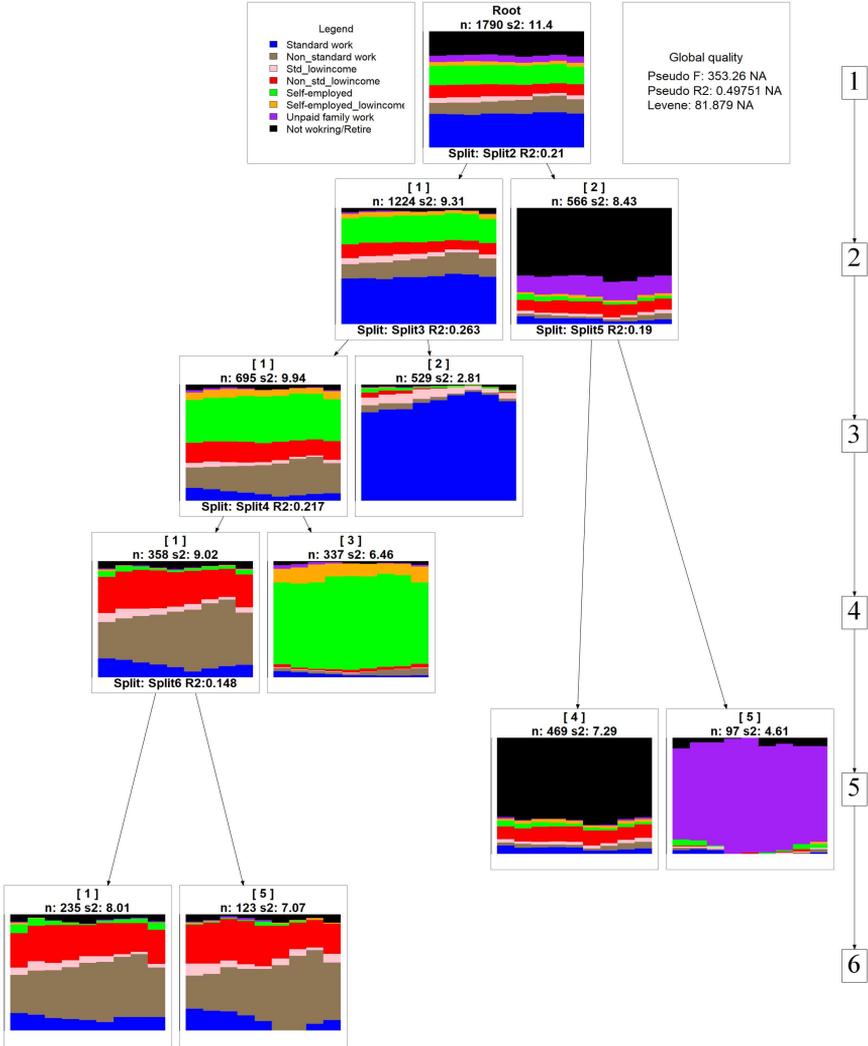
[그림 IV-18] 2001년 4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90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19] 2010년 4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다음으로 노동계적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아래 <표 IV-3>과 <표 IV-4> 참조). 2001년 40대 코호트의 노동계적 유형화 결과는 5개의 집단으로 나뉘었으며, 1.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24.0%), 2. 정규직_연금보장(28.6%), 3. 자영자_연금보장(18.6%), 4. 비경활_연금미보장(24.9%), 5.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7.6%)으로 분류되었다. 2010년 노동계적 유형화 결과 6개의 집단으로 나뉘졌으며, 1.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13.1%), 2. 정규직_연금보장(29.6%), 3. 자영업(18.8%), 4. 비경활_연금미보장(26.2%), 5. 불안정 노동_연금보장(6.9%), 6.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5.4%)으로 분류되었다.

두 코호트 모두에서 ‘정규직_연금보장’ 유형, ‘자영업’ 유형에서 남성의 비율이 두드러졌으며, 비경활과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은 여성이 매우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2001년 유형 중 “비경활”,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정규직”, “불안정 노동” 유형은 두 코호트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01년과 2010년 사이의 차별화된 유형은 2010년 코호트 중 불안정 노동_연금보장 유형이다. 2001년 기준 불안정 노동_연금미가입 유형은 분석대상 코호트의 20%를 차지하며, 해당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공적연금 미가입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여성의 비중이 60%로 높은 편이다. 반면 2010년 코호트의 경우 불안정 노동형태라도 공적연금 보장유무에 따라 1.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과 5. 불안정 노동_연금보장 유형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해당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의 결과이다. 두 유형의 합은 대략 20%로 2001년 불안정 노동 비중과 비슷하였지만, 이 중 6.9%의 불안정 노동은 공적연금 보장을 받는 유형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이 유형은 여성 비율이 70%로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의 여성 비율 54.5%보다 높았다. 즉 여성이 주로 일하는 섹터 사회서비스 유형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확대가 이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자영자의 경우에도 2001년 3. 자

9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영업 연금보장 유형의 마지막 년도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이 62.73%인데 반해 2010년 코호트의 마지막 년도 기준 자영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7.06%로 4.3%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2000년대 전반 40대 노동궤적 유형에 따른 가족생애주기와 빈곤궤적 결과 가족생애주기부터 살펴보자. 유형 1의 ‘불안정 노동-연금미보장’ 집단의 경우 한부모 가구(보라색) 비율이 마지막 년도 기준 대략 10.8%로 타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3. 자영자 연금 보장 유형의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9.6%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또한 유형 1의 ‘불안정 노동-연금미보장’은 단독가구 비율이 5.8%로 5개 유형 중 단독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빈곤궤적에서의 빈곤율도 높은 편이었다. 5번 유형인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대략 98%이며, 가족생애주기는 5개 유형 중 가장 빠른 단계로 2001년 이미 절반 이상의 비율이 자녀성인기(19세 이상)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빈곤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4. 비경활-연금미보장 유형의 빈곤율도 마지막 년도 기준 17%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 2번 ‘정규직-연금보장’ 유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2000년대 후반 40대 코호트 결과는 가족생애주기가 가장 느린 유형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인 2. 정규직-연금보장 유형과 3. 자영업-연금보장 유형이었다. 이들 유형이며, 2010년 기준 자녀성인기(19세 이상)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다. 반대로 가족생애주기가 가장 빠른 유형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 불안정 노동-연금보장과 6번의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이다. 또한 단독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는 2001년 코호트와 비슷하게 1. 불안정 노동-연금미보장 유형으로 단독가구 비율은 13.2%에 달하였다. 빈곤율의 경우 1번 불안정 노동, 4번 비경활-연금미보장 유형, 5번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년도(2018년) 기준 4번 비경활 유형이 빈

곤율이 대략 17.9%에 이르러 6개 유형들 중 가장 높았다. 반면 2번 ‘정규직_연금보장’에서 빈곤율(3.59%)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3. ‘자영업’ 유형에서의 빈곤율(6.82%)도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9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표 IV-3> 2001년 4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단위: 명, 괄호 안 %)

	1	2	3	4	5	전체
	불안정 노동_연 금미보장	정규직_ 연금보장	자영업_ 연금보장	비경활_ 연금미보 장	무급가족종 사자_연금 미보장	
남성	95 (17.5) (39.6)	246 (45.2) (72.6)	162 (29.8) (73.6)	39 (7.2) (13.2)	2 (0.4) (2.2)	544 (100.0) (46.0)
여성	145 (22.7) (60.4)	93 (14.5) (27.4)	58 (9.1) (26.4)	256 (40.0) (86.8)	88 (13.8) (97.8)	640 (100.0) (54.1)
관측 치 %	240 (20.3) (100.0)	339 (28.6) (100.0)	220 (18.6) (100.0)	295 (24.9) (100.0)	90 (7.6) (100.0)	1184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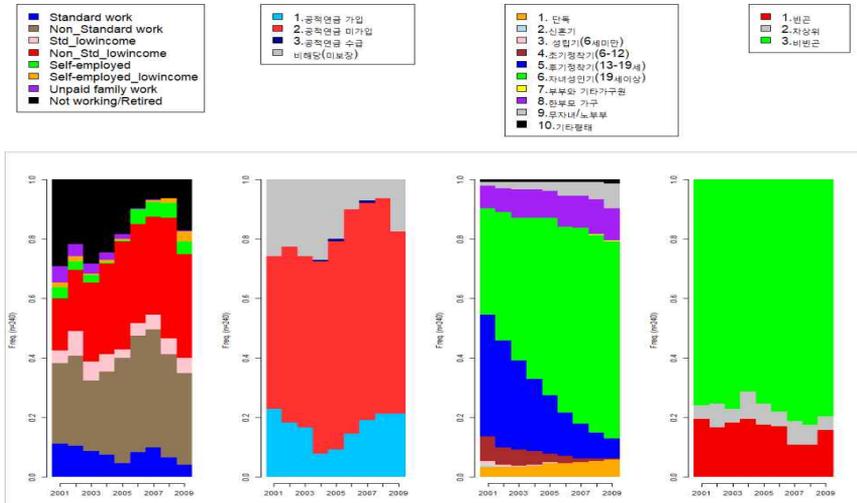
<표 IV-4> 2010년 4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단위: 명, 괄호 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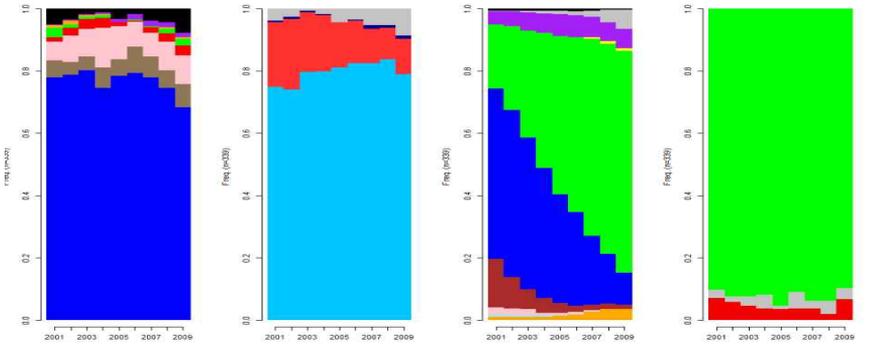
	1	2	3	4	5	6	전체
	불안정 노동_연 금미보 장	정규직_ 연금보 장	자영업_ 연금보 장	비경활_ 연금미 보장	불안정 노동_연 금보장	무급가 족종사 자_연금 미보장	
남성	107 (13.0) (45.5)	362 (44.1) (68.4)	235 (28.6) (69.7)	69 (8.4) (14.7)	37 (4.5) (30.1)	11 (1.3) (11.3)	821 (100.0) (45.9)
여성	128 (13.2) (54.5)	167 (17.2) (31.6)	102 (10.5) (30.3)	400 (41.3) (85.3)	86 (8.9) (69.9)	86 (8.9) (88.7)	969 (100.0) (54.1)
관측 치 %	235 (13.1) (100.0)	529 (29.6) (100.0)	337 (18.8) (100.0)	469 (26.2) (100.0)	123 (6.9) (100.0)	97 (5.4) (100.0)	179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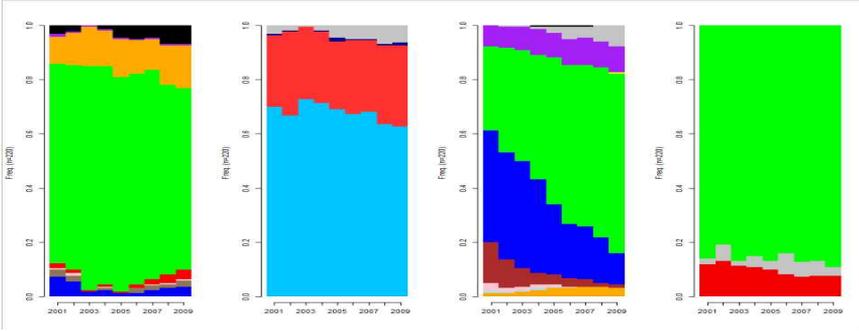
[그림 IV-20] 2001년 40대 노동취직, 가족생애주기, 빈곤취직 (200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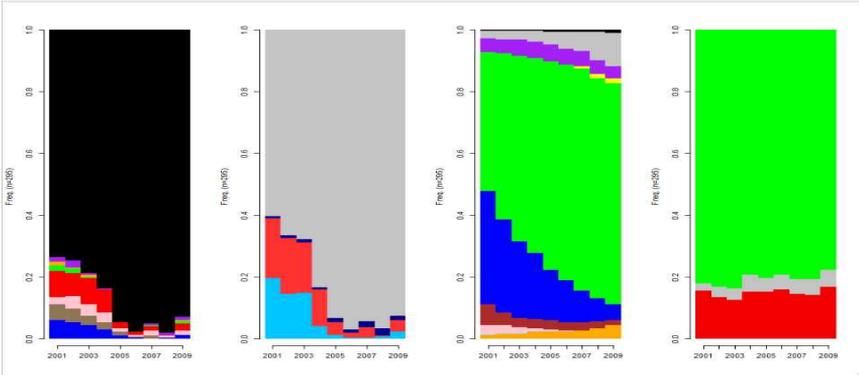
1. 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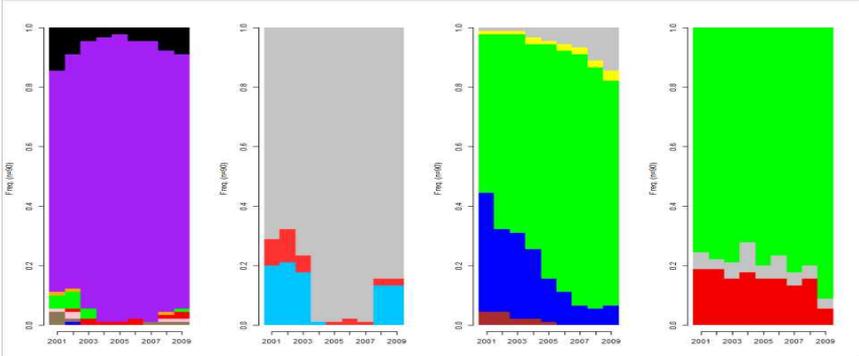
2. 정규직_연금보장



3. 자영업_연금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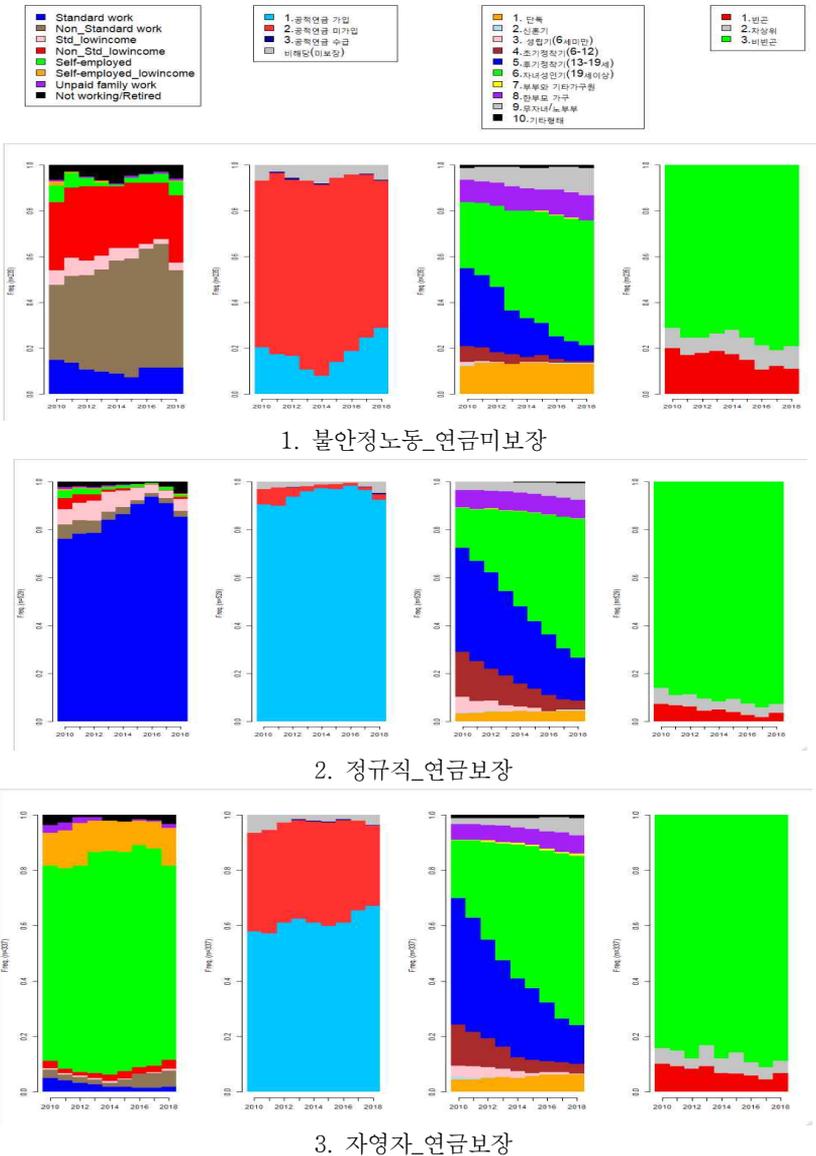
4. 비경활_연금미보장



5.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21] 2010년 40대 노동계층,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층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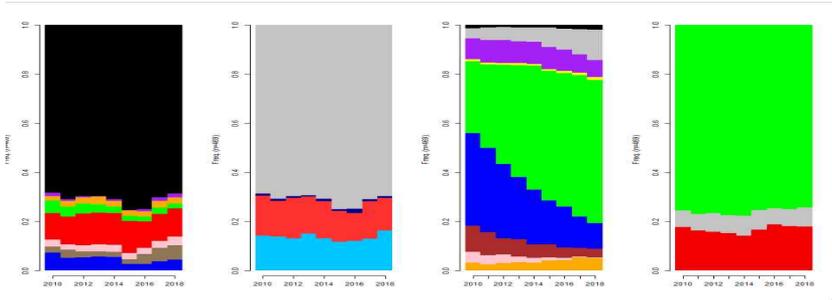


1. 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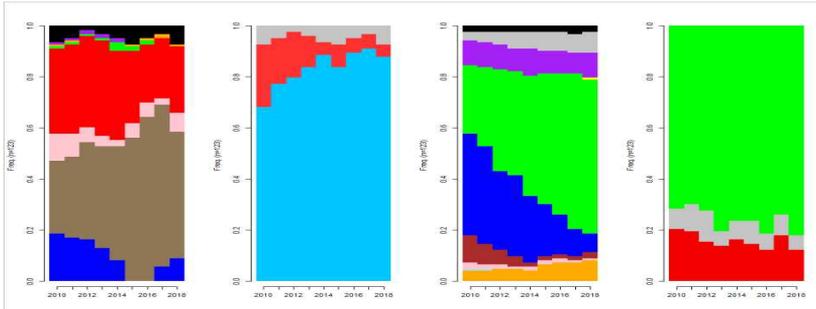
2. 정규직_연금보장

3. 자영자_연금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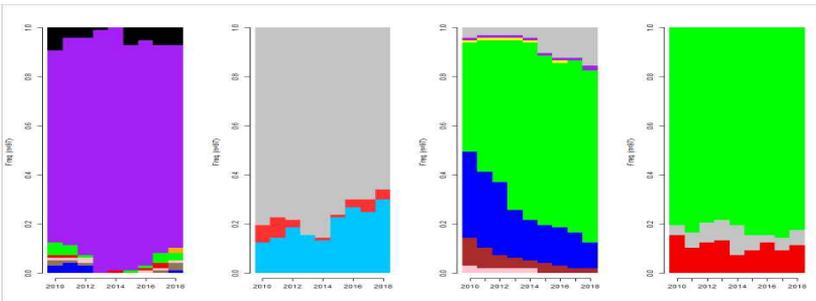
98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4. 비경활_연금미보장



5. 불안정노동_연금보장



6.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다. 50-59세 (2001년대 vs 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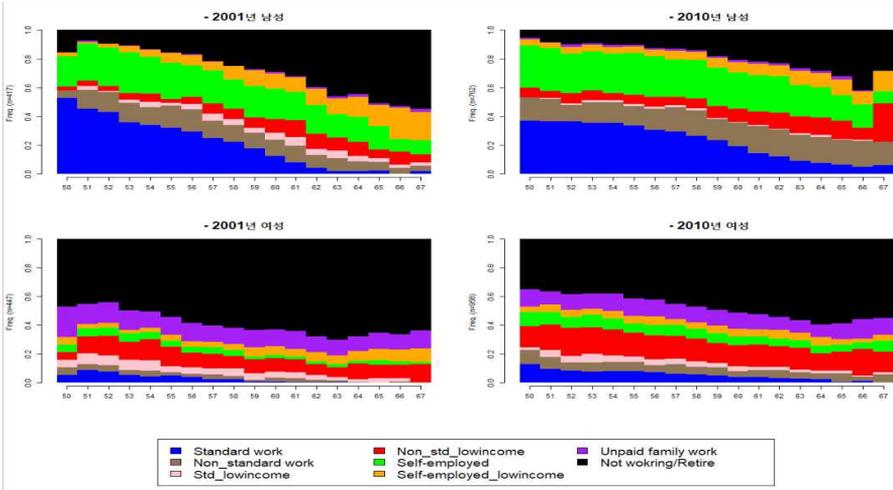
[그림 IV-22]~[그림 IV-25]은 각각 50대 연령 코호트의 1) 노동귀적, 2) 공적연금 보장귀적, 3) 가족생애주기 단계, 4) 빈곤귀적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각 코호트의 마지막 차수인 2009년과 2018년에 59세에서 67세에 분포하고 있다. 노동귀적은 2010년 50대 코호트의 정규직 비율이 2001년 코호트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유급 노동 비율도 2001년 코호트에 비해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10년 50대 코호트가 자영자와 불안정 노동 비율이 2001년 코호트 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연금 가입비율 또한 남성의 경우, 2001년 코호트보다 2010년 코호트가 더 늦은 나이까지 공적연금을 가입하였으며,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도 2001년 코호트보다 높았다.

50대 코호트의 가족생애주기는 두 코호트 모두 자녀성인기의 과정과 자녀 독립/출가 후에 나타나는 무자녀/노부부(회색)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50대에 이미 단독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한부모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2001년 코호트의 증가가 더 두드러졌다. 그러나 50대 가구의 대다수는 아직 19세 이상 성인자녀와 가구 내의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귀적은 2001년 여성 코호트의 빈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여성 코호트의 빈곤율도 2010년 남성 코호트보다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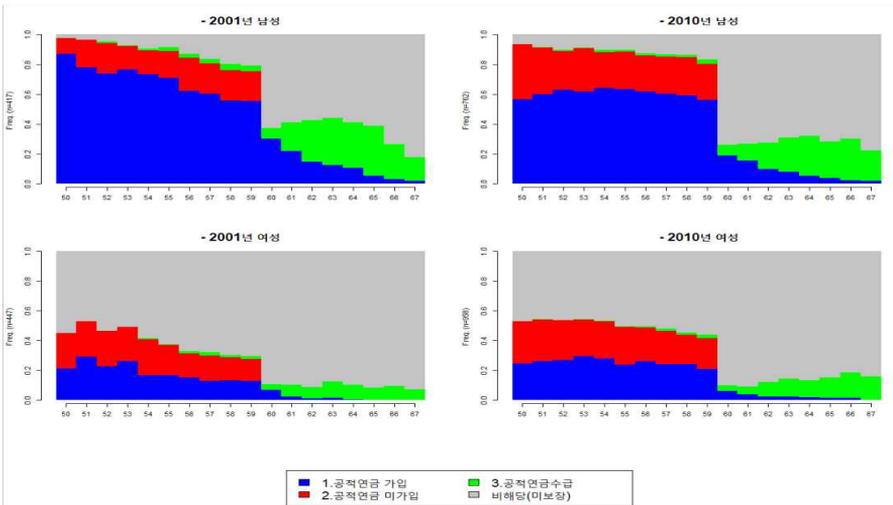
100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22] 50대 연령코호트 노동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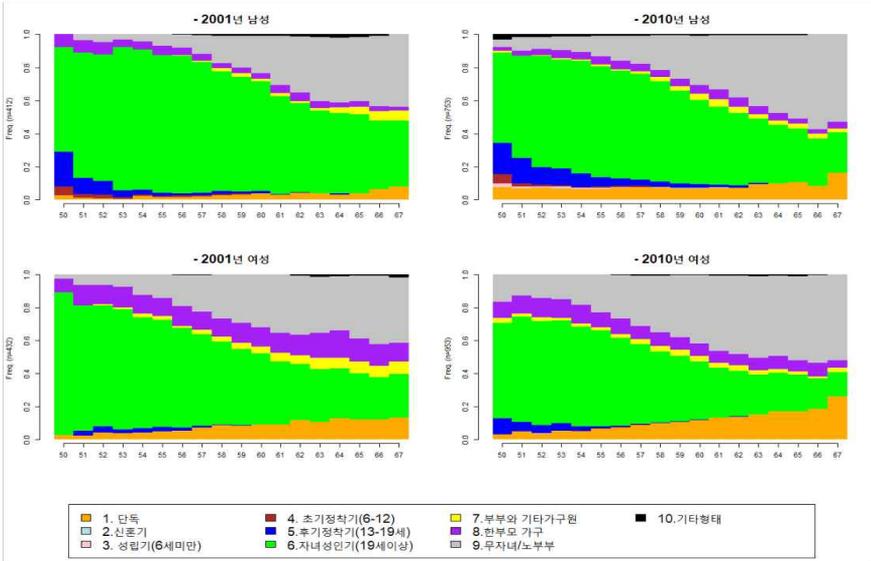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23] 50대 연령코호트 공적연금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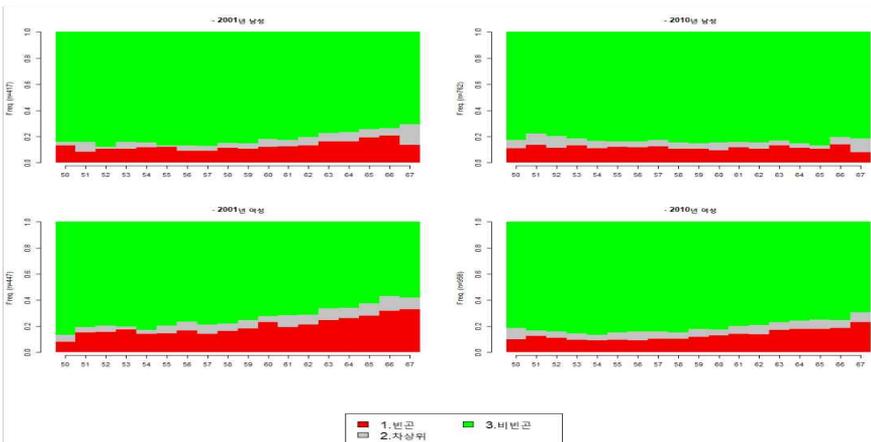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24] 50대 연령코호트 가족생애주기 궤적



각주: 가구주와 배우자만 분석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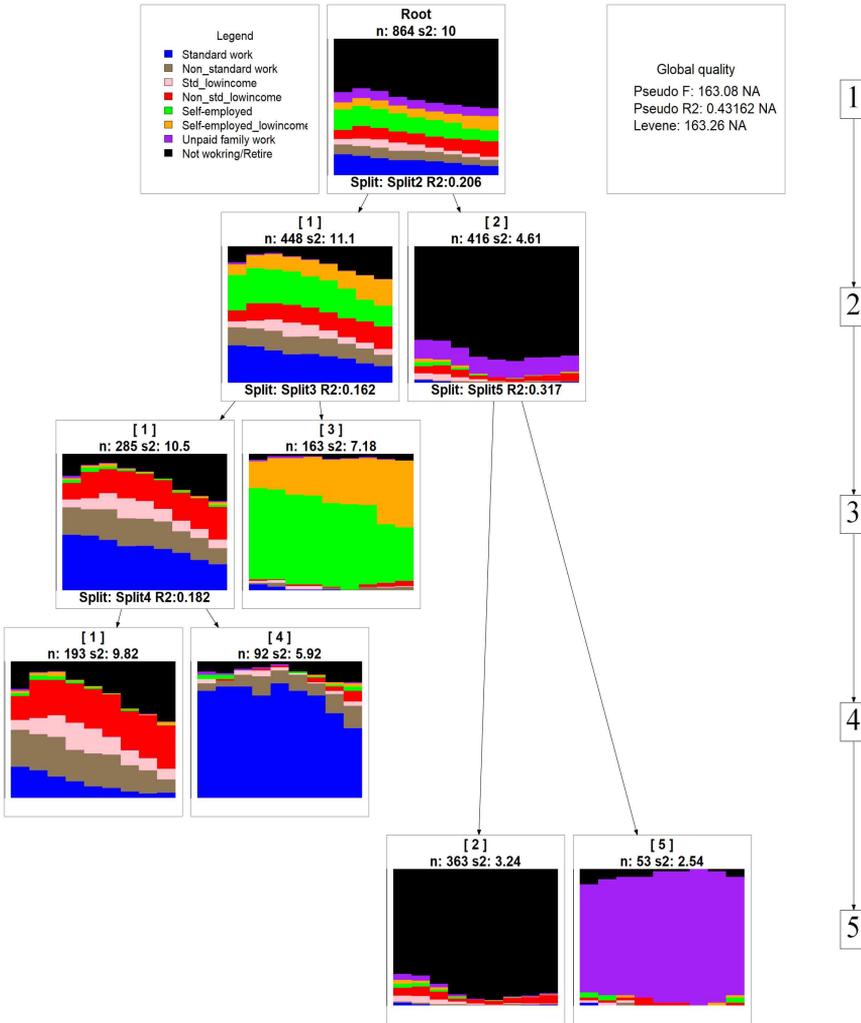
[그림 IV-25] 50대 연령코호트 빈곤궤적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2001년과 2010년의 50대의 코호트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 9년을 추적하였으며, 각각 코호트의 마지막 차수인 2009년과 2018년에 59세에서 67세에 분포하고 있다. 2001년 코호트는 5개 유형이 2010년 코호트는 6개의 유형이 최적화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아래의 [그림 IV-26]와 [그림 IV-27]는 각각 2001년 코호트와 2010년 코호트의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유형의 나무그림(tree display)을 나타낸 것이다. 2001년 코호트와 2010년 코호트의 나무그림을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의 분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유급 노동과 무급/비근로 여부에 따라 나뉘었다. 즉 ‘비경활과 무급가족종사자’가 한 집단으로 그리고 나머지 ‘임금/비임금 노동자’들이 다른 한 그룹으로 나뉘었다. 3단계에서는 임금/비임금 노동자들이 다시 나뉘는데, ‘불안정 노동 및 상용직’이 한 집단으로 그리고 ‘(영세)자영자 집단으로 나뉘었다. 4단계에서는 2001년, 2010년 코호트 모두 ‘불안정 노동자’와 ‘정규직’이 분화되었다. 5단계에서는 비경활/무급가족종사자 집단이 “비경활”과 “무급가족종사자”로 각각 세분화되었으며, 2001년 코호트는 5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 2010년 코호트의 6단계의 경우 4단계에서 분리된 불안정 노동이 연금 미보장 집단과 연금보장 집단으로 나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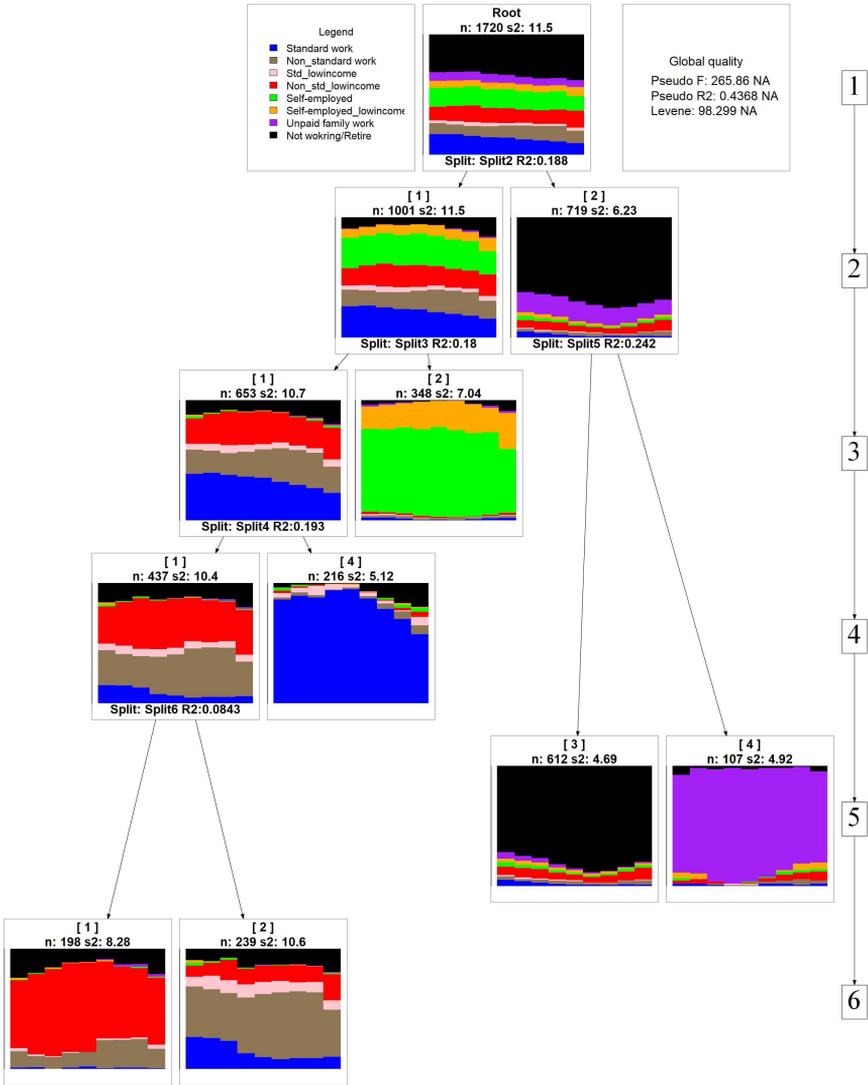
[그림 IV-26] 2001년 5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10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27] 2010년 5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2001년과 2010년의 50대 코호트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노동계적 유형화 그림은 <표 IV-5>, <표 IV-6>에 제시하였다. 2001년 코호트는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2010년 코호트는 6개가 최적화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01년 코호트의 5가지 유형이 2010년 50대 코호트에서도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특징이 동일하게 도출되었으며, 50대 코호트에서도 30대, 40대와 동일하게 ‘불안정 노동-연금 보장’유형이 2010년 도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30대와 40대의 ‘불안정 노동-연금보장’유형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30대 40대의 유형별 성별 비율이 여성이 더 높았다면, 50대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한 남성의 비율이 66.5%로 여성보다 더 높았다. 이는 해당 유형의 그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50대의 노동계적은 불안정 노동에 종사를 하면서 연금 수급으로 넘어가는 패턴을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 가입→연금 미가입→연금 수급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며, 이는 50대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남성들이 불안정 노동에서 다시 재취업하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와 연금수급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소득절벽을 보여준다. 즉 이들은 연금을 수급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기 보다는 주로 영세자영업이나 자영업, 일부는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 ‘부분 은퇴’한 집단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코호트의 비경활 비율은 2001년 코호트 대비 6.4%p 감소하였으며, 정규직 비율은 2%p, 불안정 노동 비율은 3.1%p 증가하였다. 2010년 코호트의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 비율이 2001년 코호트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코호트의 가족생애주기를 살펴보면 1. 불안정 노동-연금미보장 집단의 한부모 가구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 불안정 노동-연금미보장, 4.비경활-연금미보장, 5.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에서 가족생애주기에서 자녀의 독립/출가로 인해 노부부만 사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빈곤계적을

코호트 마지막 년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율이 높았던 1.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16.58%) 집단과 2. 비경활_연금미보장(26.7%) 유형에서 빈곤율이 높았으며, 여성이 94%를 차지하는 5. 무급가족종사자(17.0%) 유형의 빈곤율 또한 타 유형에 비해서 높았다. 반면 4. 정규직_연금보장 그룹의 빈곤율은 6.52%로 가장 낮았다.

2010년 코호트의 가족생애주기를 살펴보면 2001년 코호트와 두드러진 특징은 단독가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001년 코호트의 단독가구 비율은 9.6%이었지만, 2010년 코호트의 단독가구 비율은 11.9%로 2.3%p 증가하였다. 6가지 유형 중 1번과 2번의 불안정 노동 유형의 단독가구 비율이 각각 17.17%와 15.1%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한부모 가구의 비율 또한 높았다.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인 4. 비경활_연금미보장과 5.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의 경우 가족생애 주기 속도가 가장 빨랐다. 즉 2018년 기준 부부 2인으로 이뤄진 가구의 비율이 각각 48.5%와 51.4%로 다른 유형의 비해 높은 편이었다. 빈곤궤적의 경우 2018년 기준 4. 비경활_연금미보장 유형의 빈곤율이 22.2%로 6개 유형 중 가장 높았으며, 그 외 1번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16.2%, 5번 무급가족종사자 유형 11.2%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에서 빈곤율이 높았다.

<표 IV-5> 2001년 5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단위: 명, 괄호 안 %)

성별	1	2	3	4	5	전체
	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	비경활_연금미보장	자영자_연금보장	정규직_연금보장	무급가족종사자_	
남성	110	92	127	85	3	417
	(26.4)	(22.1)	(30.5)	(20.4)	(0.7)	(100.0)
여성	83	271	36	7	50	447
	(18.6)	(60.6)	(8.1)	(1.6)	(11.2)	(100.0)
관측치 %	193	363	163	92	53	864
	(22.3)	(42.0)	(18.9)	(10.7)	(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표 IV-6> 2010년 5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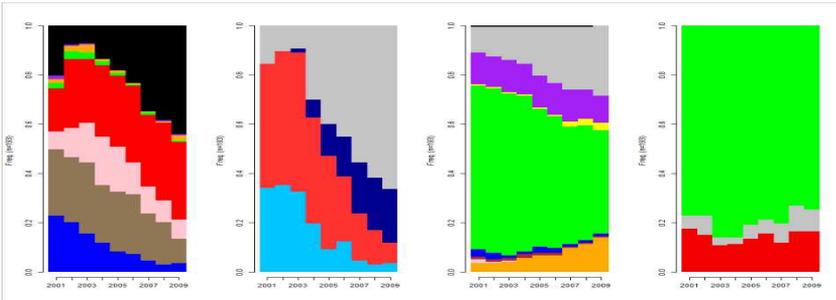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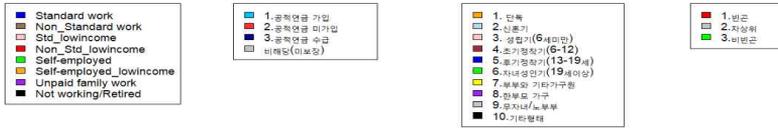
(단위: 명, 괄호 안 %)

성별	1	2	3	4	5	6	전체
	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	불안정노동_연금보장	자영자_연금보장	비경활_연금미보장	무급가족종사자	정규직_연금보장	
남성	50	159	250	123	13	167	762
	(6.6)	(20.9)	(32.8)	(16.1)	(1.7)	(21.9)	(100.0)
여성	148	80	98	489	94	49	958
	(15.5)	(8.4)	(10.2)	(51.0)	(9.8)	(5.1)	(100.0)
관측치 %	198	239	348	612	107	216	1720
	(11.5)	(13.9)	(20.2)	(35.6)	(6.2)	(1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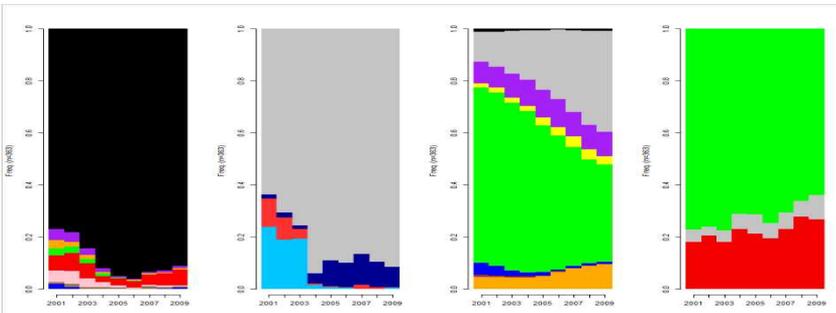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108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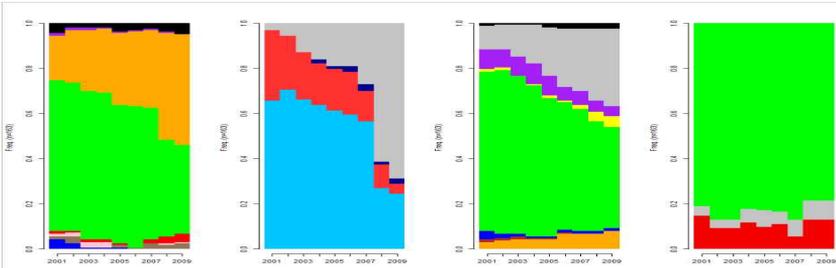
[그림 IV-28] 2001년 50대 노동궤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 (200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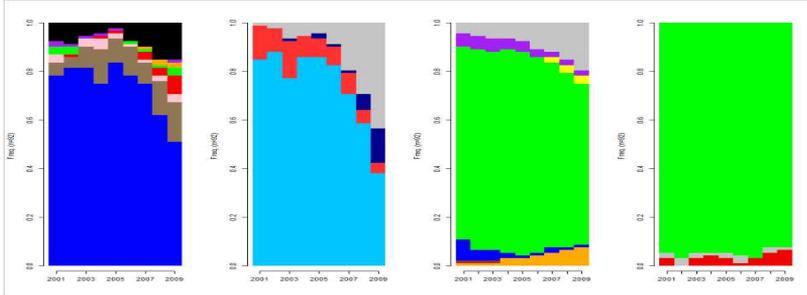
1. 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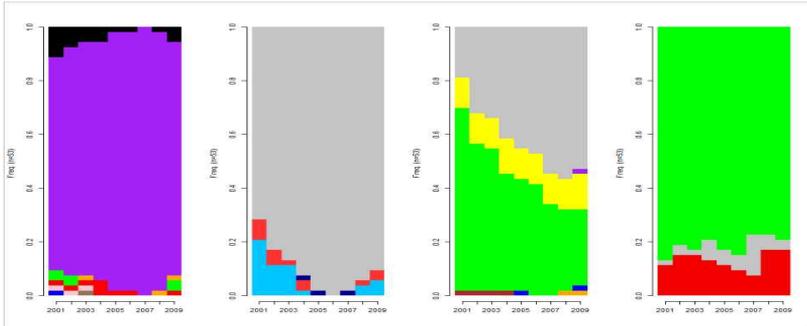
2. 비경활_연금미보장



3. 자영업_연금보장



4. 정규직_연금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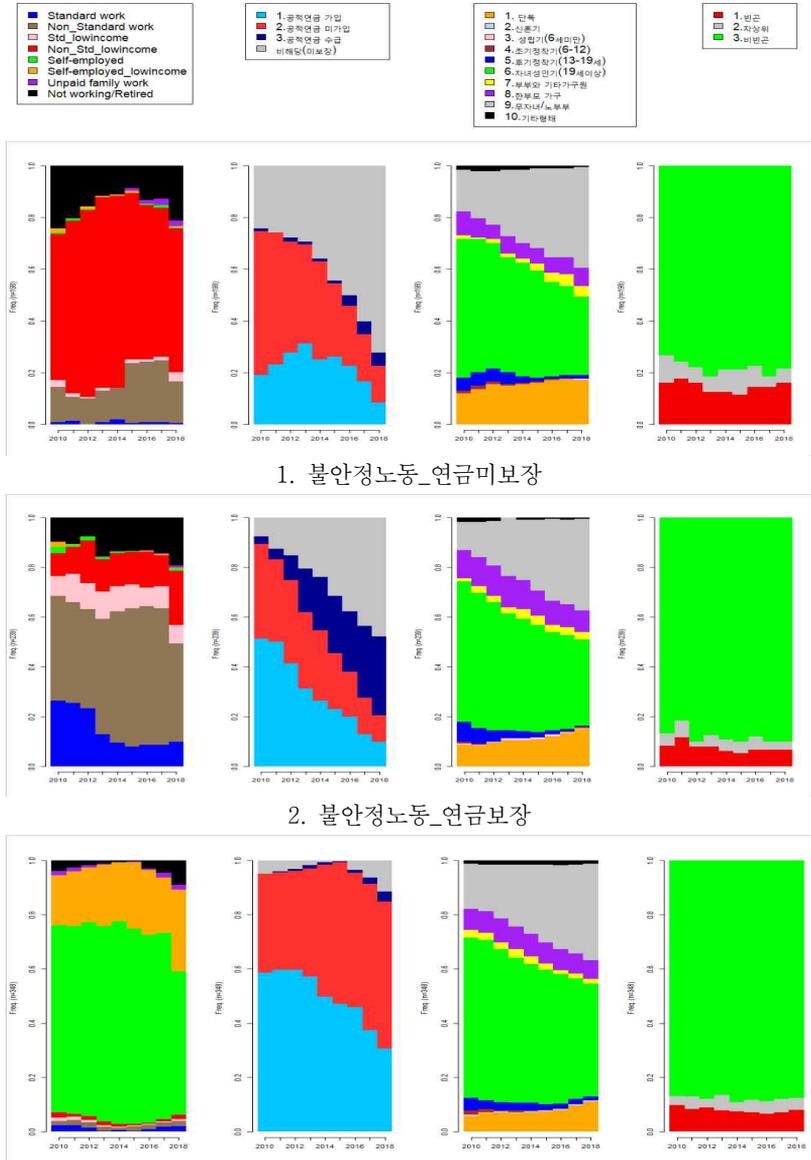


5. 무급가족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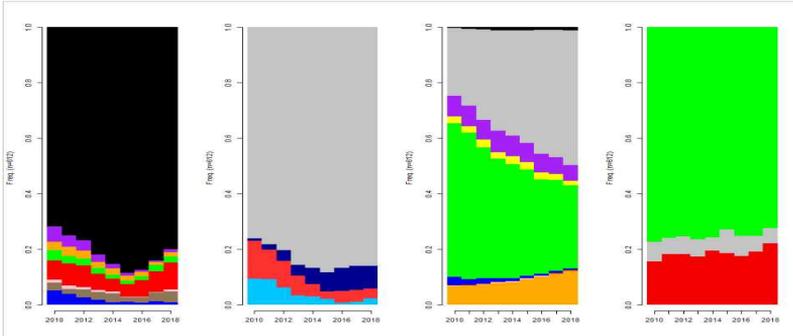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110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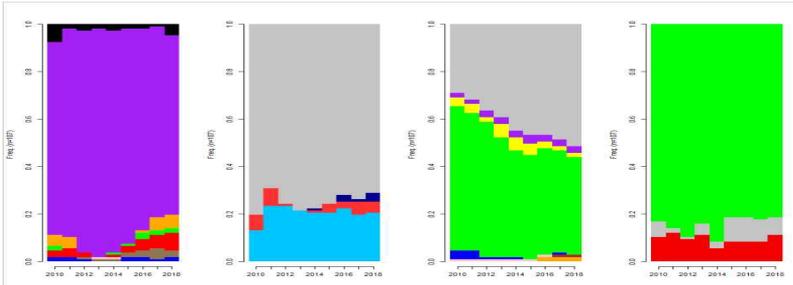
[그림 IV-29] 2010년 50대 노동궤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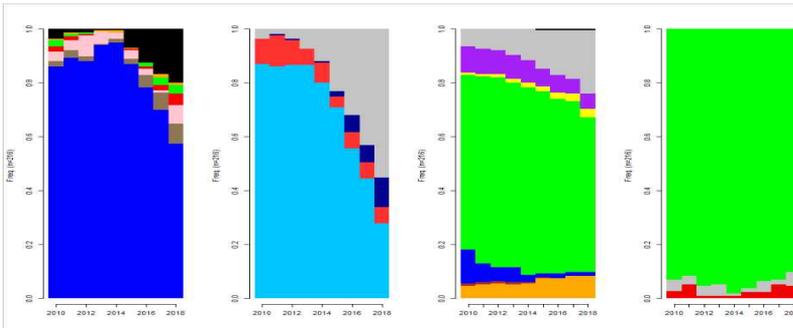
3. 자영자



4. 비경활_연금미보장



5. 무급가족종사자



6. 정규직_연금보장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라. 60-69세 (2001년대 vs 2010년대)

[그림 IV-30]~[그림 IV-33]는 각각 60대 연령 코호트의 1) 노동궤적, 2) 공적연금 보장궤적, 3) 가족생애주기 단계, 4) 빈곤궤적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각 코호트의 마지막 차수인 2009년과 2018년에 69세에서 77세에 분포하고 있다. 2001년과 60대 코호트의 경우 이전부머 세대 보다 앞선 세대이며, 2010년 코호트는 일부 이전부머 세대가 속해있다⁶⁾. 2010년 코호트의 경우 2001년 코호트보다 불안정 노동, 정규직(파란색) 비율은 매우 낮고 영세(자영업) 종사 비중이 높았지만, 전체적인 고용률은 2010년 코호트가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공적연금 수급비율 또한 2001년 코호트인 경우 대략 20% 정도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2010년 코호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대략 40%대로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에도 2010년 코호트의 공적연금 수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코호트 수급 비율이 2001년 코호트보다 2010년 코호트가 더 늦은 나이까지 공적연금을 가입하였으며,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도 2001년 코호트보다 높았다.

60대 코호트의 가족생애주기는 두 코호트 모두 대부분 자녀성인기 과정을 지나, 한부모 혹은 단독가구 그리고 자녀 독립/출가 후에 나타나는 무자녀/노부부(회색)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1년 여성 코호트의 경우 단독가구 비율이 2010년 여성 코호트보다 높았다. 여성 코호트의 한부모 가구와 단독 가구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남성 가구의 경우 자연스럽게 부부 혹은 성인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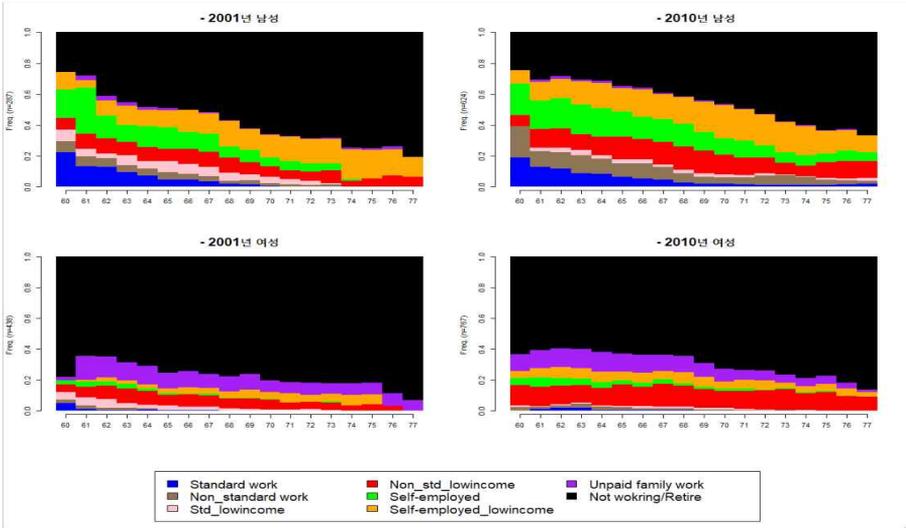
빈곤궤적에서의 빈곤율은 50대 코호트와 비교할 때 급격하게 상승하

6) 제5장에서의 베이비부머 코호트와 이전부머 코호트의 분석과 비교할 때, 2001년 코호트는 베이비부머 이전 코호트보다 앞선 코호트(1932~1941년생)이며 2010년 코호트는 이전부머 코호트코호트가 일부 포함된 코호트(1941~1950년생) 간의 분석이다.

였으며, 전체적으로 2001년 여성 코호트의 빈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빈곤율 순서는 2001년 여성 코호트 > 2001년 남성 코호트 > 2010년 여성 코호트 > 2010년 남성 코호트 순서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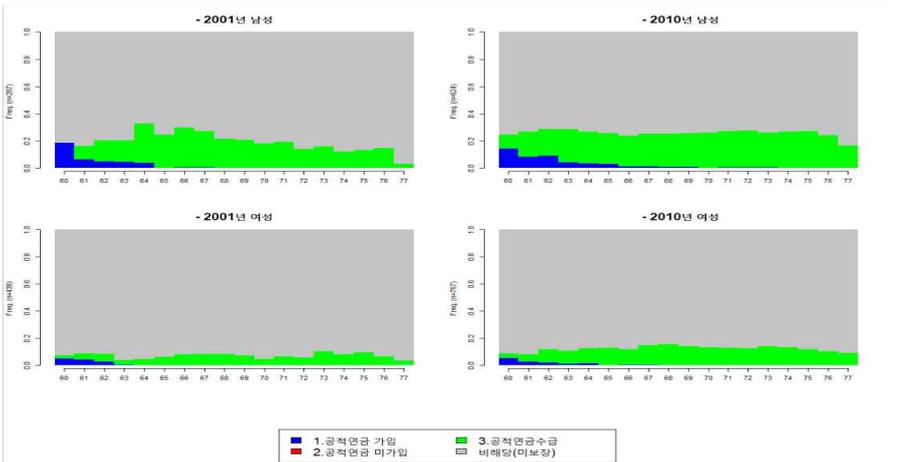
11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30] 60대 연령코호트 노동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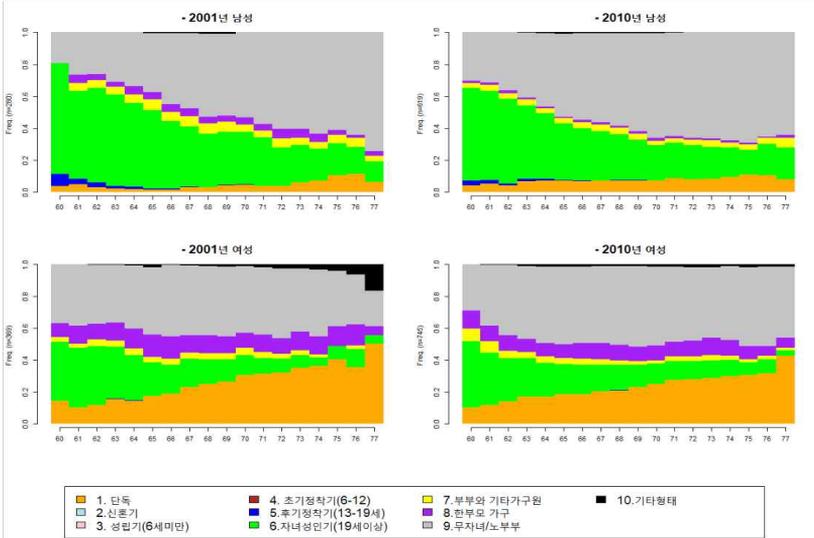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31] 60대 연령코호트 공적연금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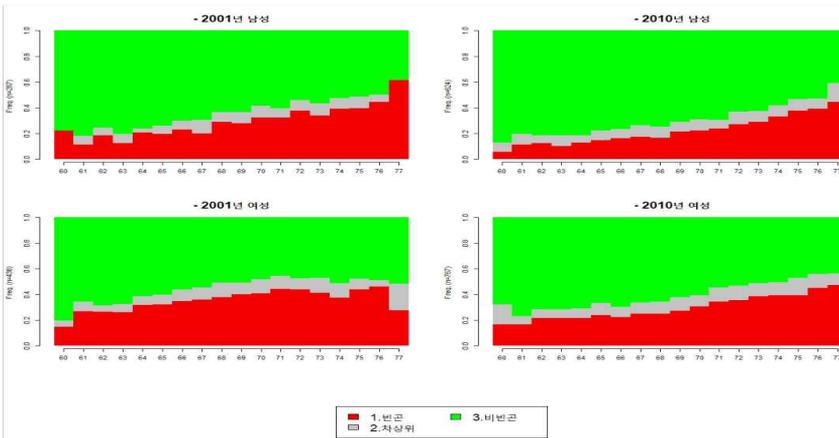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IV-32] 60대 연령코호트 가족생애주기 궤적



각주: 가구주와 배우자만 분석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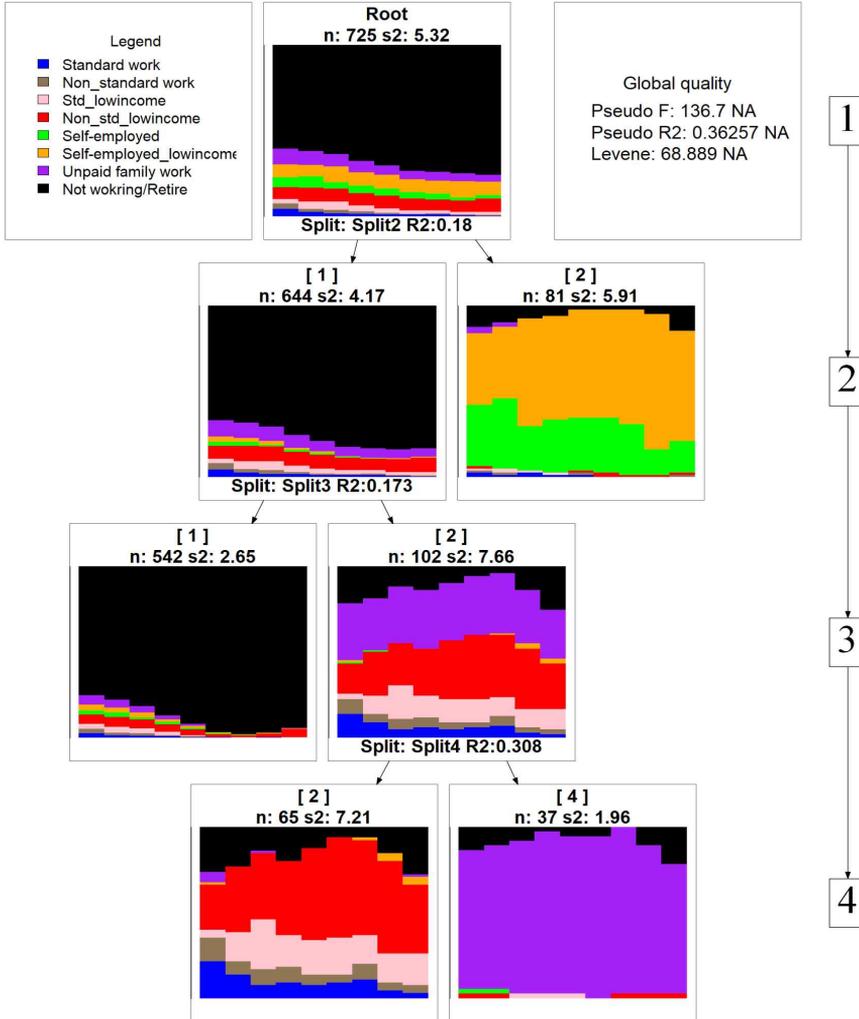
[그림 IV-33] 60대 연령코호트 빈곤궤적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2001년과 2010년의 60대의 코호트를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 9년을 추적하였으며, 각각 코호트의 마지막 차수인 2009년과 2018년에 69세에서 77세에 분포하고 있다. 2001년 코호트는 4가지 유형이 그리고 2010년 코호트는 5가지 유형이 최적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아래의 [그림 IV-34]과 [그림 IV-35]는 각각 2001년 코호트와 2010년 코호트의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유형의 나무그림(tree display)을 나타낸 것이다. 2001년 코호트와 2010년 코호트의 나무그림을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1단계에서는 2001년 코호트의 비경활 비율이 높았고 2010년 코호트보다 높았다. 즉 각 코호트의 마지막 조사년도의 비경활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코호트는 75.7%이었고, 2010년 코호트의 마지막 해의 비경활율은 62.9%로 2018년도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한 노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단계까지 비슷한 분화 패턴을 보이는데, ‘비경활과 불안정 노동’의 임금노동자가 한 집단으로 그리고 ‘영세(자영업)’이 다른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3단계에서 2001년 코호트의 경우 2단계에서의 ‘비경활+불안정 노동·무급가족종사자’ 집단이 다시 ‘비경활’ 집단과 ‘불안정노동·무급가족종사자’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4단계에서는 ‘불안정 노동’이 다시 2개로 분화하였는데, ‘불안정 노동 임금 노동’과 ‘무급가족종사자’로 다시 나뉘었다. 2010년 코호트의 경우 3단계에서 “비경활과 불안정노동”이 연금보장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 즉 2010년 코호트의 경우 3단계에서는 ‘비경활과 불안정 노동’이 ‘연금수급 불안정 노동’ 집단과 ‘연금 비수급’ 집단(불안정 노동 및 비경활)으로 분화되었다. 4단계에서는 ‘비경활/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집단이 다시 2개로 분화하였는데, ‘비경활/불안정 노동 임금 노동’과 ‘무급가족종사자’로 다시 나뉘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비경활/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집단이 다시 ‘비경활_연금미보장’ 집단과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집단으로 나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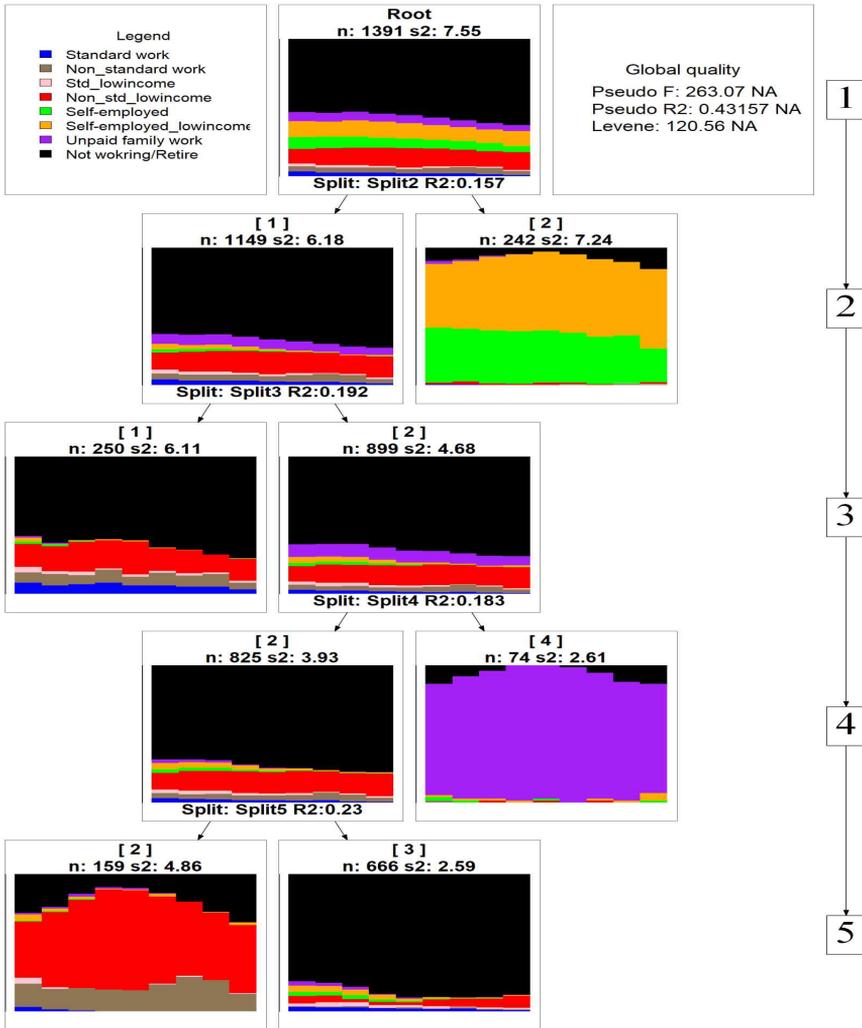
[그림 IV-34] 2001년 6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118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35] 2010년 6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2001년과 2010년 60대 코호트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노동계적 유형화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으며 표는 <표 IV-7>, <표 IV-8>이며, 그림은 [그림 IV-36]과 [그림 IV-37]에 제시하였다. 2001년 코호트와 2010년 코호트는 각각 4개와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두 코호트에서 동일하게 분류된 유형은 ‘비경활_연금미보장’,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 유형이며, 다른 유형들은 공적연금 보장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1년 코호트의 경우, 비경활 유형에 속한 코호트가 전체의 74%를 차지하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0년 코호트의 경우 비경활 유형의 비율은 47.9%에 불과하였다.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집단의 비율은 2001년 코호트에서는 9.0%이었으며 2010년 코호트의 경우 대략 11.4%를 차지하였다. 2001년 코호트의 경우 (영세)자영자 집단이 연금수급 비율은 11.11%로 낮아 ‘(영세)자영자_연금미보장’이라고 이름 지었으며, 2010년 코호트의 경우 같은 ‘(영세)자영자’라고 하더라도 연금을 수급하는 집단이 대략 35.5%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1년 코호트는 대략 5% 정도가 무급가족 종사자이었으며, 연금은 미보장 상태였다. 이는 2010년 코호트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2010년 코호트에서는 1번 집단의 경우 비경활과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혼재하며, 공적연금 수급비율(74.80%)이 매우 높았다. 공적연금 수급하면서 비경활인 집단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경험한 노인집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공적연금을 수급하면서 불안정 노동을 한다는 의미는 부분은퇴를 한 노인인 가능성이 높아 이 집단을 ‘(부분)은퇴_연금 보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60대 코호트의 노동계적 유형별 가족생애주기를 살펴보면 1. 비경활_미보장과 2.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집단의 단독가구 비율이 각각 22%, 12.1%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1. 비경활 유형의 경우 한부

모 가구 비율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 4.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의 경우 여성이 대략 97%를 차지하였으며 단독가구 비율은 찾기 힘들었으며, 부부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빈곤궤적에서의 빈곤율은 60대에 들어서면서 평균이 38.9%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비경활 집단이 41.33%, 불안정노동집단이 38.5%로 무급가족종사자 집단과 ‘(영세)자영업’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0년 코호트의 경우 1. (부분)은퇴_연금수급 유형의 단독가구 비율이 24.80%, 2.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의 단독가구 비율이 26.42%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3. 비경활_연금미보장, 4. (영세)자영업자, 5.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은 무자녀/노부부 비율이 50%로 높은 편이었다. 2010년 60대 코호트의 빈곤궤적에서 3. 비경활_연금미보장 집단의 빈곤율이 2018년 기준 39.34%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았으며 다음으로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의 빈곤율이 28.93%로 높았다.

<표 IV-7> 2001년 6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01-2009)

(단위: 명, 괄호 안 %)

성별	1	2	3	4	전체
	비경활_연 금미보장	불안정노동 _연금미보 장	(영세)자영 자_연금미 보장	무급가족종 사자_연금 미보장	
남성	186 (64.8) (34.3)	40 (13.9) (61.5)	60 (20.9) (74.1)	1 (0.4) (2.7)	287 (100.0) (39.6)
여성	356 (81.3) (65.7)	25 (5.7) (38.5)	21 (4.8) (25.9)	36 (8.2) (97.3)	438 (100.0) (60.4)
관측치 %	542 (74.8) (100.0)	65 (9.0) (100.0)	81 (11.2) (100.0)	37 (5.1) (100.0)	725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표 IV-8> 2010년 60대 코호트 노동궤적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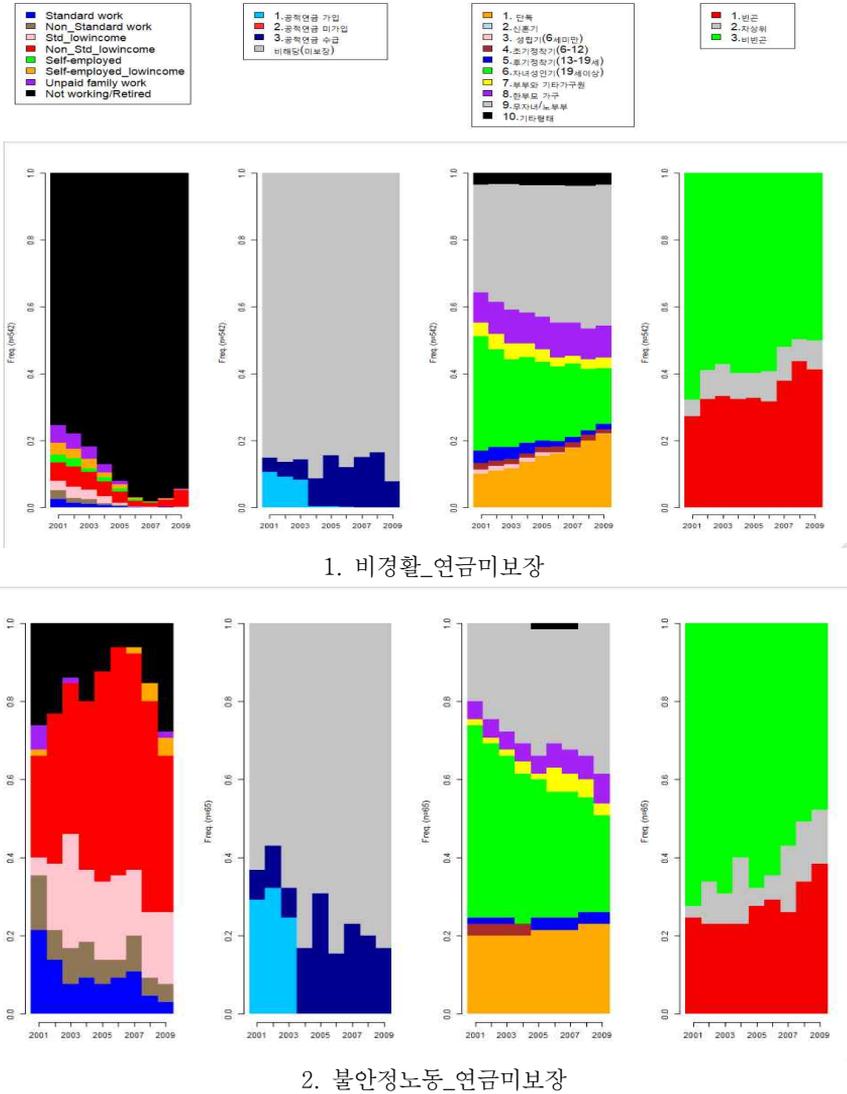
(단위: 명, %)

성별	1	2	3	4	5	전체
	(부분)은 퇴_연금 수급	불안정노동_연금미 보장	비경활_연 금미보장	(영세)자 영자	무급가족 종사자_연 금미보장	
남성	154 (24.7) (61.6)	80 (12.8) (50.3)	202 (32.4) (30.3)	183 (29.3) (75.6)	5 (0.8) (6.8)	624 (100.0) (44.9)
여성	96 (12.5) (38.4)	79 (10.3) (49.7)	464 (60.5) (69.7)	59 (7.7) (24.4)	69 (9.0) (93.2)	767 (100.0) (55.1)
관측치 (%)	250 (18.0) (100.0)	159 (11.4) (100.0)	666 (47.9) (100.0)	242 (17.4) (100.0)	74 (5.3) (100.0)	1391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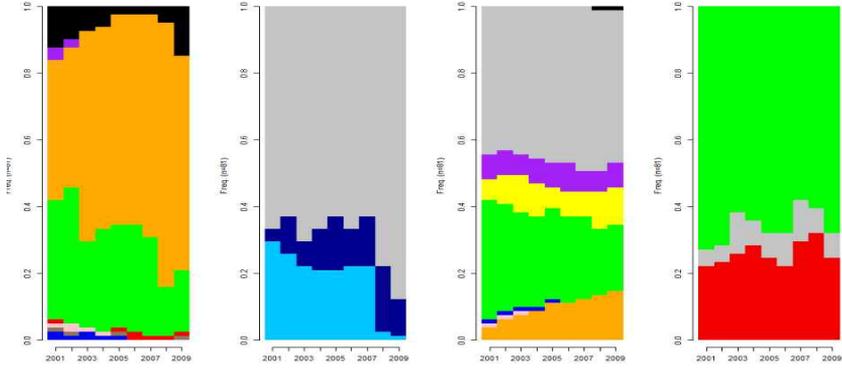
12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그림 IV-36] 2001년 60대 노동궤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 (200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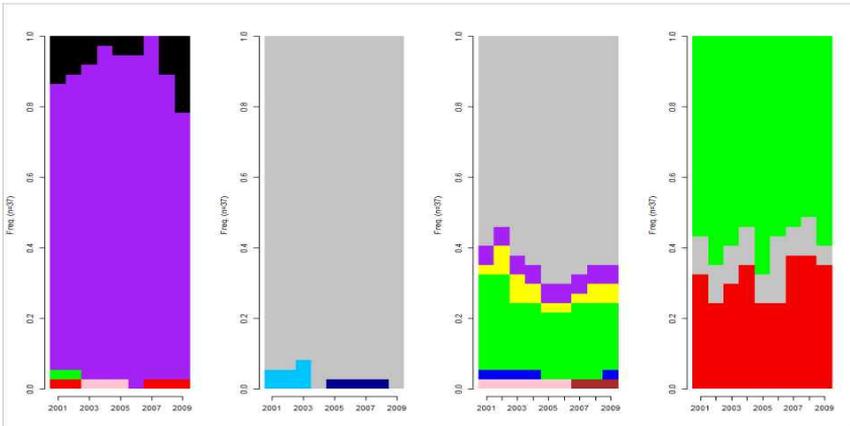


1. 비정규_연금미보장

2. 불안정노동_연금미보장



3. (영세)자영자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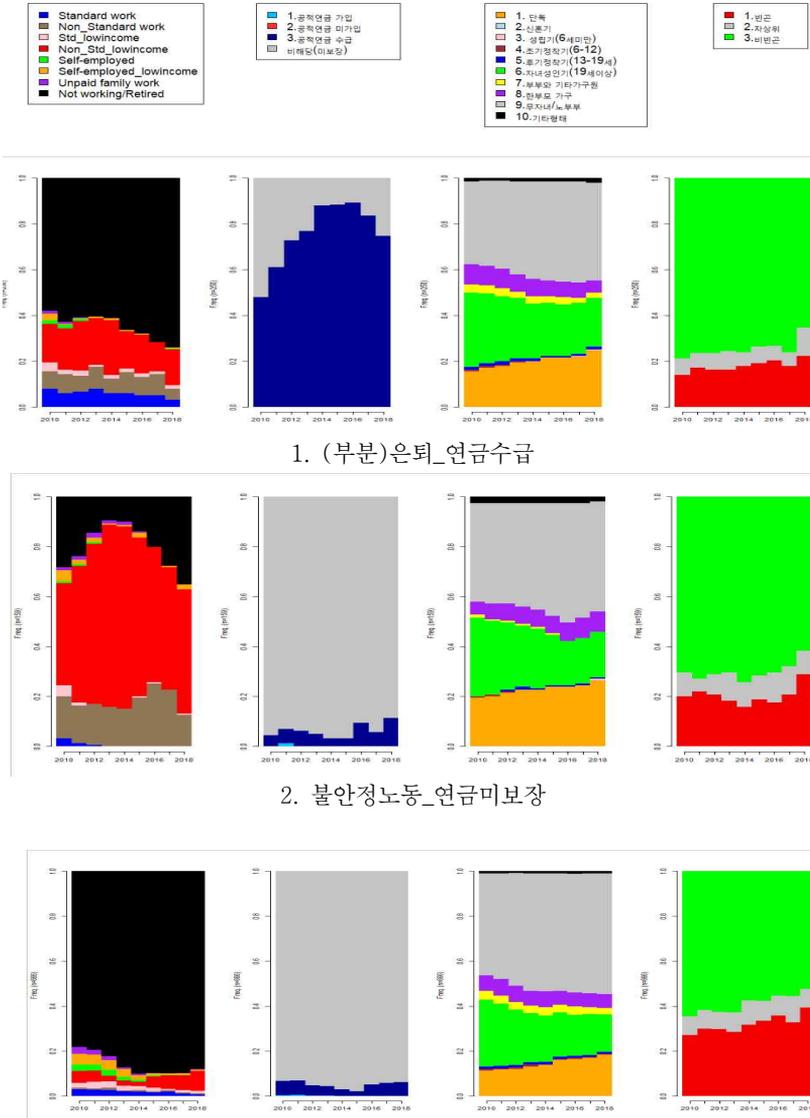


4.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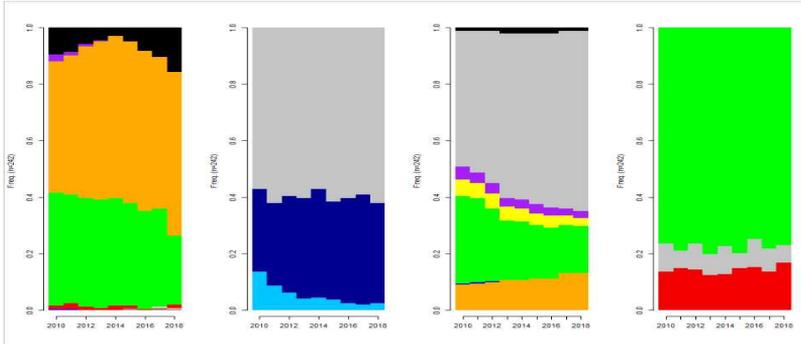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124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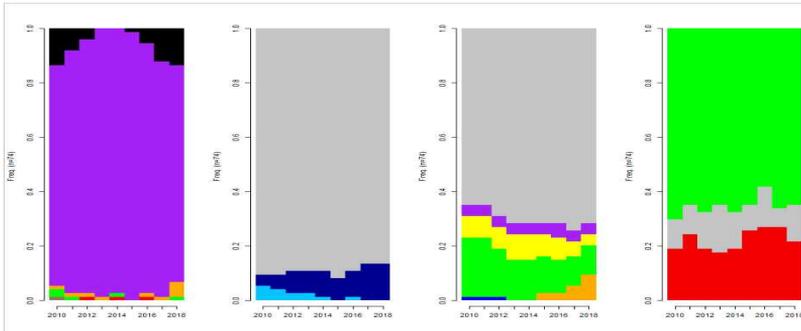
[그림 IV-37] 2010년 60대 노동궤적,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 (2010-2018)



3. 비경활_연금미보장



4. 자영업



5.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0차.

V. 출생 코호트 분석 결과

제5장에서는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두 출생 코호트를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제1절은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연령별로 1) 노동궤적, 2) 공적연금 보장 궤적, 3) 가족생애주기, 4) 빈곤궤적의 배열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제2절에서 두 코호트의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제3절에서 두 코호트의 생애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를 통한 가구유형이 빈곤에 미친 영향에 관해 분석하도록 한다.

1.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의 연령별 분포

다음으로 노동패널 4차에서 21차까지 18차 기간 동안 참여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노동궤적, 공적연금 수급, 가족생애주기와 빈곤궤적에 관해 배열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4차에서 21차의 기간 동안 베이비부머는 38세에서 63세에 분포하였으며, 이전부머 코호트는 46세에서 73세에 분포하며, 남녀분포를 따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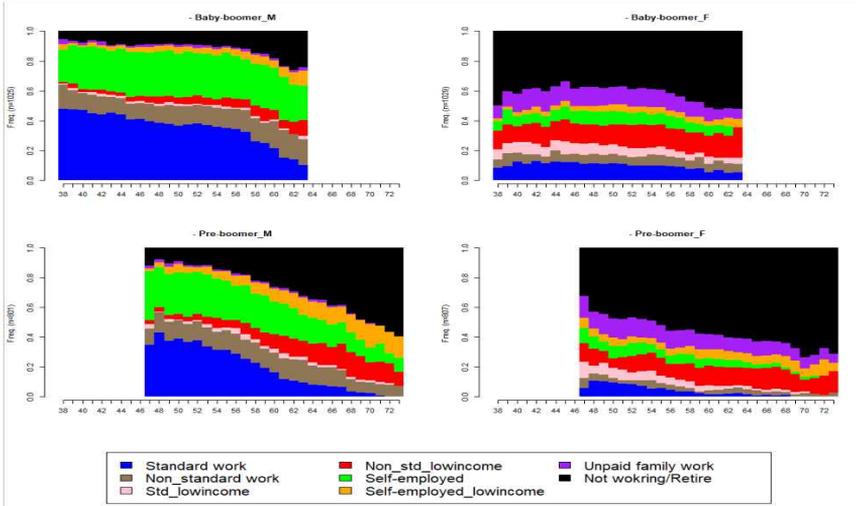
[그림 V-1]는 베이비부머 코호트와 이전부머 코호트의 노동궤적을 38세부터 73세까지 제시하였다. 두 코호트의 같은 연령대의 노동궤적을 비교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베이비부머가 이전부머 보다 더 오래 주된 일자리인 정규직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특히 정규직과 같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지만 60세 진입 후의 경우 정규직 종사 비율은 감소하며, 영세자영업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부머의 경우 47세부터 이미 정규직 종사 비율은 가파르게 감소하며 불안정 노동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경우 노동시장의 고용률이 이전부머 보다 높았으며, 남성과 비교할 때 대부분 불

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코호트의 공적연금 보장분포는 [그림 V-2]에 제시하였다.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공적연금 가입률(파란색)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전부머 코호트 보다 공적연금 가입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남녀 간의 공적연금 가입 격차는 여전히 컸는데, 남성의 경우 대략 60% 정도가 공적연금(국민연금 혹은 특수 직역연금)에 가입한 반면, 여성의 경우 대략 20%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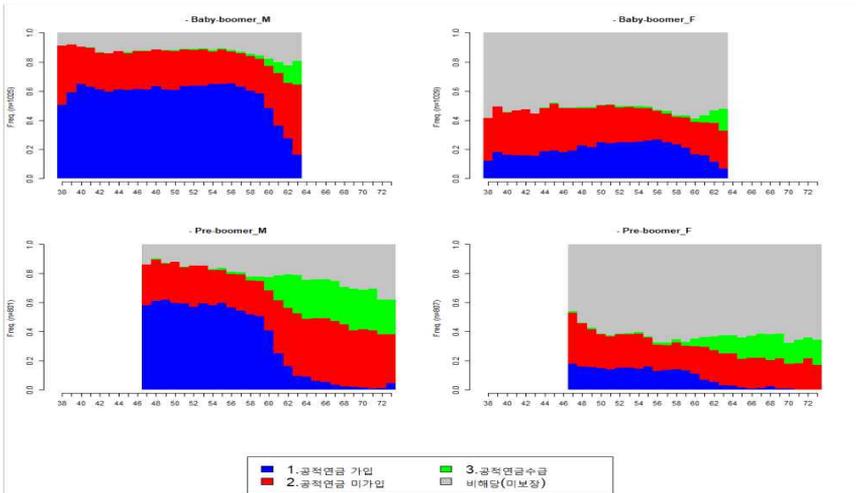
가족생애주기의 경우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경우 대략 38세에서 40대 초반까지는 첫째 자녀 기준 6세에서 12세 사이에 분포하였고, 40대 후반에 13세 19세의 후기 정착기에 머물렀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빨랐으며, 예를 들어 남성의 48세에는 후기정착기(13-19세) 단계의 비율이 꽤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자녀 성인기로 진입하였다. 73세까지 분포를 제시한 이전부머 코호트의 경우 여성의 한부모가구(보라색)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고 단독가구 비율이 58세 이상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분포 양상을 보였다([그림 V-3] 참조). 빈곤궤적의 경우 베이비부머는 아직 노인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전부머 코호트의 경우 노인진입 후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대략 65세 이상부터 빈곤율이 증가하는 양상인 반면, 여성의 경우 60세 전후로 빈곤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여성의 경우 빈곤진입 시기가 남성보다 빠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V-4] 참조).

[그림 V-1]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노동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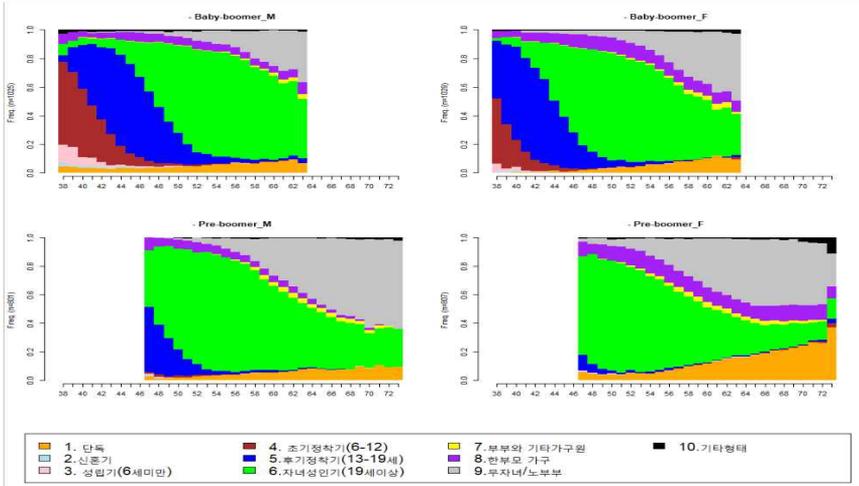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V-2]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공적연금 보장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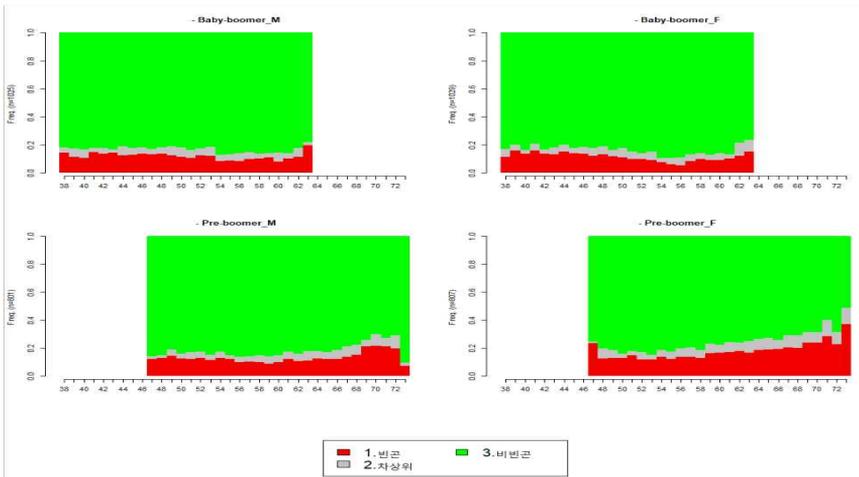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V-3]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가족생애주기 분포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그림 V-4]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남녀 빈곤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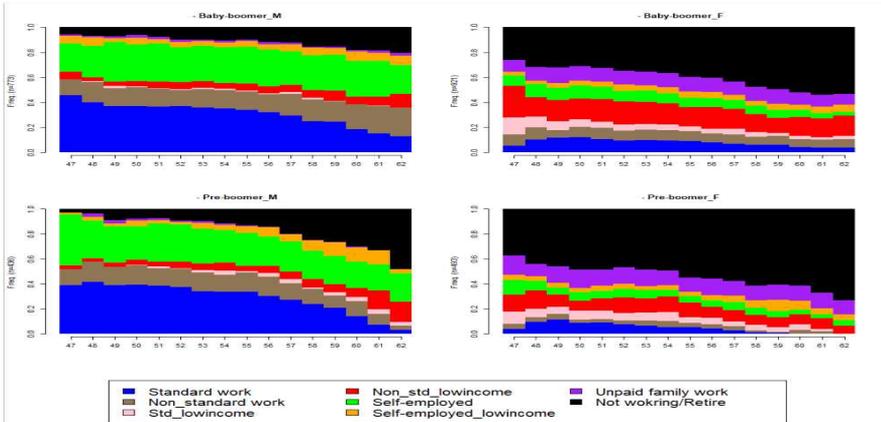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1차.

다음으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같은 연령대의 노동궤적, 공적연금 보장, 가족생애주기, 빈곤궤적을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4차부터 21차 자료에 걸쳐서 47세에서 63세까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그림 V-5]~[그림 V-8] 참조). 남성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규직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 일하는 비율은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약간 높았으며, 자영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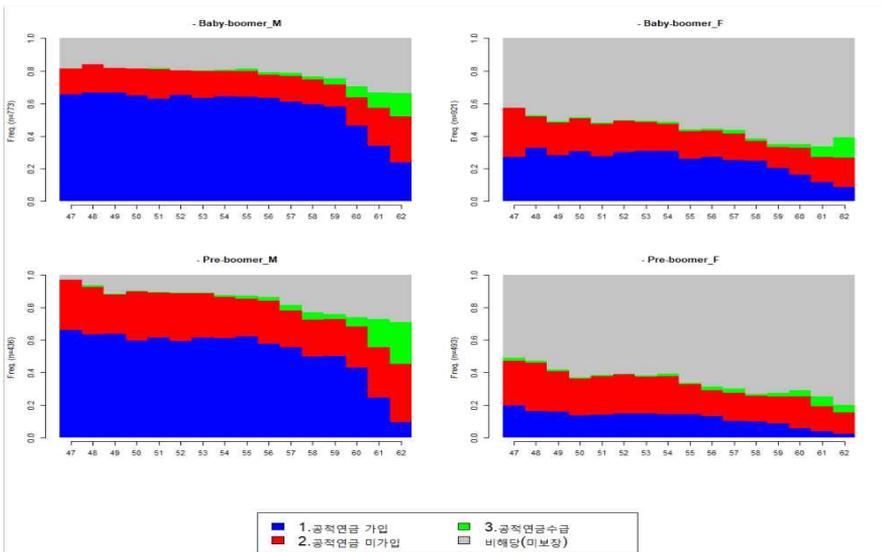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도 이전부머 보다 노동시장 종사 비율이 높았지만,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불안정 임금노동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가입의 경우 동일 연령대를 비교한 결과, 남자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비율이 이전 부머 코호트보다 약간 높아진 정도였다. 앞서의 노동궤적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일자리들이 공적연금의 보장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영업자나 불안정 임금 노동과 같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경우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공적연금 가입률이 확연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생애주기의 경우 베이비부머는 이전 부머보다 무자녀 혹은 자녀가 독립한 부부가구 비율(회색)이 약간 높았다. 남성의 경우는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가족생애 주기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여성의 경우 부부 가구 비율이 여성 이전부머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단독가구 비율이 높았다. 빈곤궤적 분포는 여성 이전부머의 빈곤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 외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V-5]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노동취적(47-6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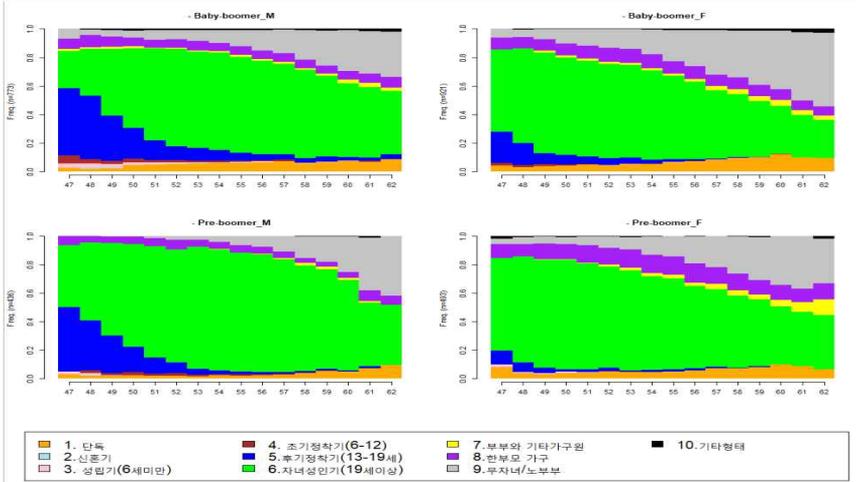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차.

[그림 V-6]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공적연금 보장(47-6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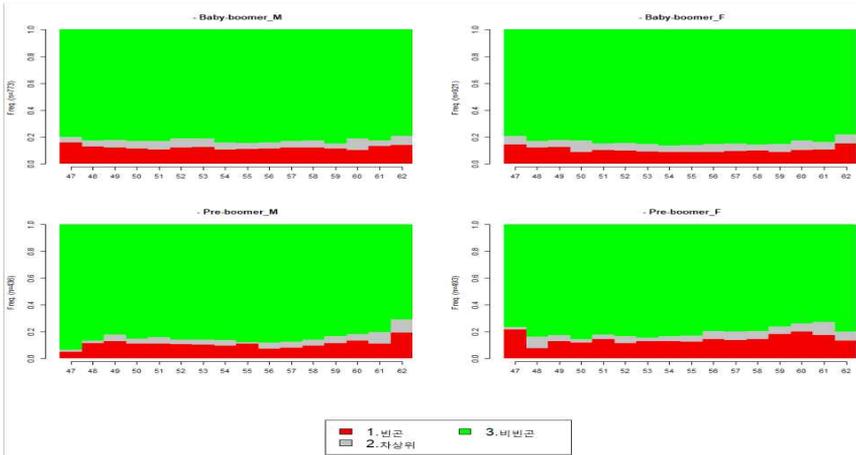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차.

[그림 V-7]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가족생애주기 분포(47-62세)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차.

[그림 V-8]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빈곤궤적(47-6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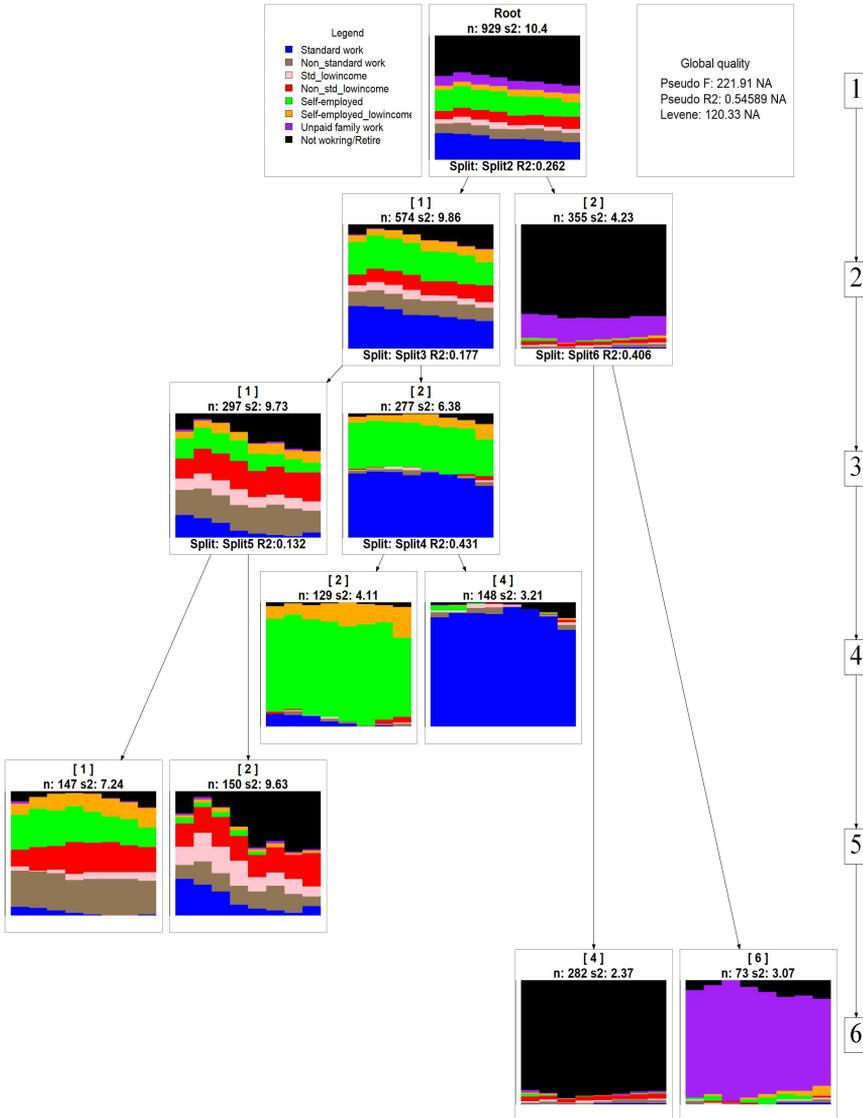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차.

2.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 유형화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이전부머와 베이비부머의 동일 연령대의 생애 노동궤적을 유형화한 결과를 서술하도록 한다. 본 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알고리즘은 Ward 연결법(Ward Linkage)을 이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이다. 아래의 [그림 V-9]와 [그림 V-10]는 각각 이전부머와 베이비부머의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6개의 유형의 나무그림(tree display)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이전부머는 47세부터 63세까지 분포하고, 이는 2001년부터 2009년(4차부터 12차)까지의 이전부머의 노동궤적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유형화하기 전의 1단계의 그림은 해당 기간 동안의 이전부머의 노동궤적을 보여준다. 유형이 세분화되는 것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 단계에서 2단계로 분화될 때에는 정규직(파란색)과 자영업(연두색)과 같은 ‘노동시장 종사’와 ‘비경활(검정색)과 무급가족종사자(보라색)’의 두 갈래로 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3단계에서는 공적연금에 가입한 ‘정규직과 자영업’이 한 유형으로 그리고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불안정 노동과 (영세)자영업’이 다시 분화되었다([그림 V-10] 참조). 4 단계에서는 정규직과 (영세)자영업 집단이 다시 두 갈래로 ‘(영세)자영자’와 ‘정규직/자영자’로 분화된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불안정/(영세)자영업’과 ‘불안정노동→비경활’ 분화되고,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비경활’ 집단과 ‘무급가족종사자’ 집단으로 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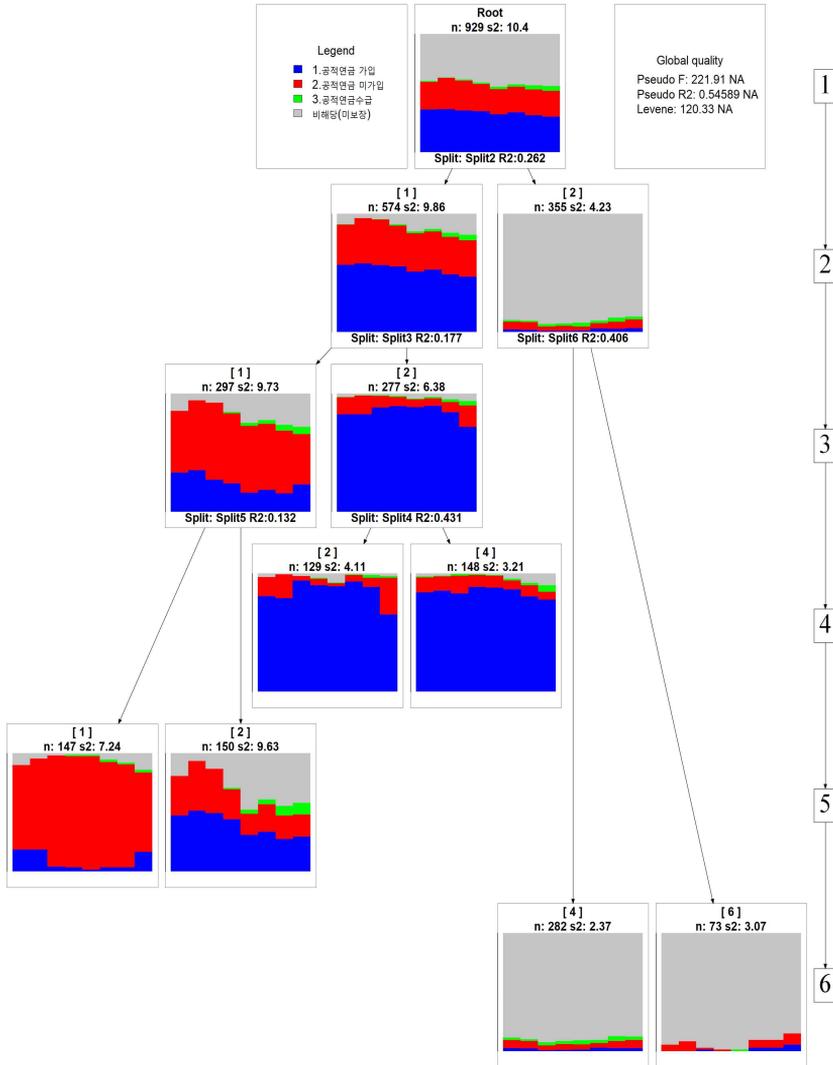
베이비부머 코호트 또한 이전부머와 비슷하게 6개의 노동궤적 유형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나무그림을 통해 6개의 유형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살펴보면, 먼저 1단계에서의 전체 노동궤적 분포 그림을 보면, 이전부머보다 해당 기간 동안 비경활(검정색) 비율이 낮다. 이는 이미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 베이비부머가 이전부머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2단계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공적연금 미가입 상태인 ‘비경활/무급가족종사자/불안정 노동’집단과 공적연금 가입 상태인 ‘정규직/자영업’집단 두개로 세분화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불안정 노동’ 집단과 ‘비경활/무급가족종사자’으로 분화되었다. 4단계에서는 ‘정규직과 일부 불안정 임금 노동’이 한 집단으로 그리고 ‘영세자영업을 포함한 자영업’ 즉 비임금 근로로 분화되었다. 5단계에서는 3단계로부터 ‘비경활’과 ‘무급가족종사자’가 분화되었고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4단계에서의 ‘불안정 노동/정규직’ 집단이 다시 ‘불안정 노동’ 집단과 정규직으로 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코호트는 불안정 임금노동 유형이 총 두개가 3단계와 6단계에서 분화되었으며, 이는 ‘공적연금 보장’ 채널의 나무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그림 V-12) 참조).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성’과 ‘소득수준’을 한 채널로 그리고 ‘공적연금 보장’을 다른 채널로 다중배열 분석을 하였으며, 불안정 노동 집단이긴 하지만 각각 공적연금 보장과 미보장의 차이가 생겨 2개의 다른 집단으로 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9] 이전부머-최종 선정된 6개의 노동취적 유형 나무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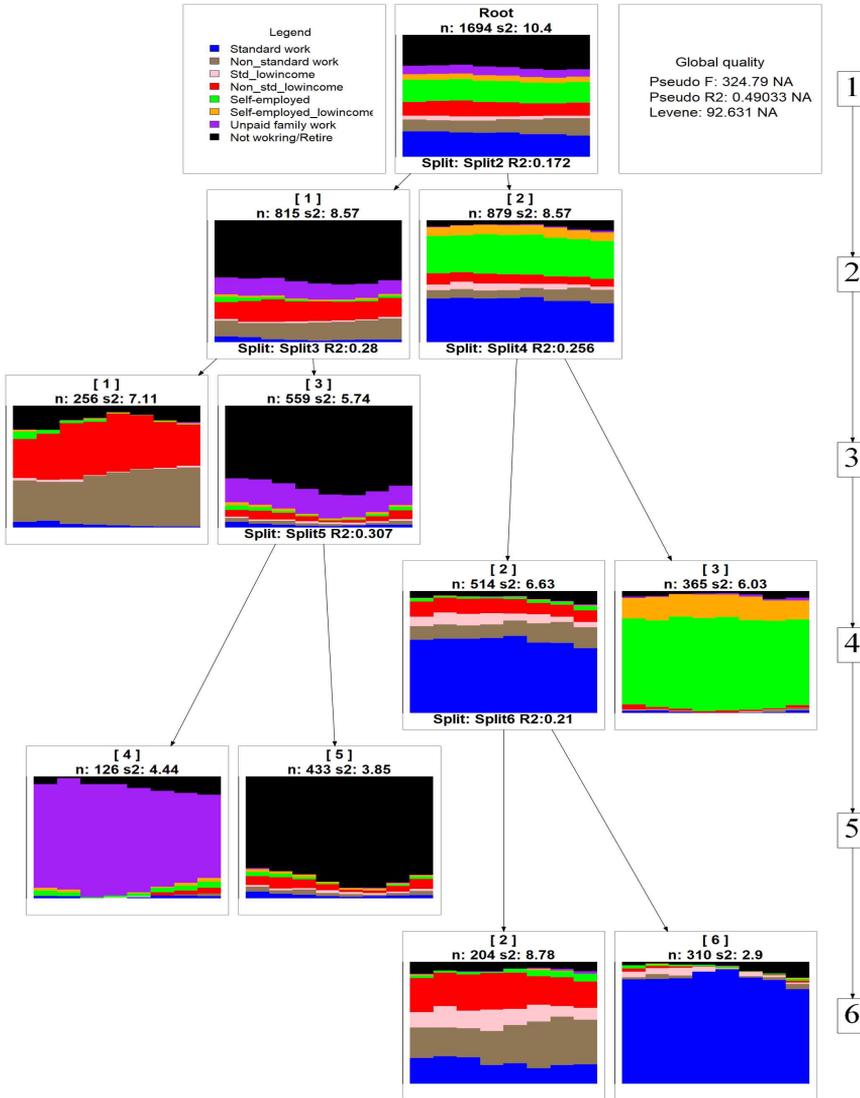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11차.

[그림 V-10] 이전부터-최종 선정된 6개의 공적 연금궤적 나무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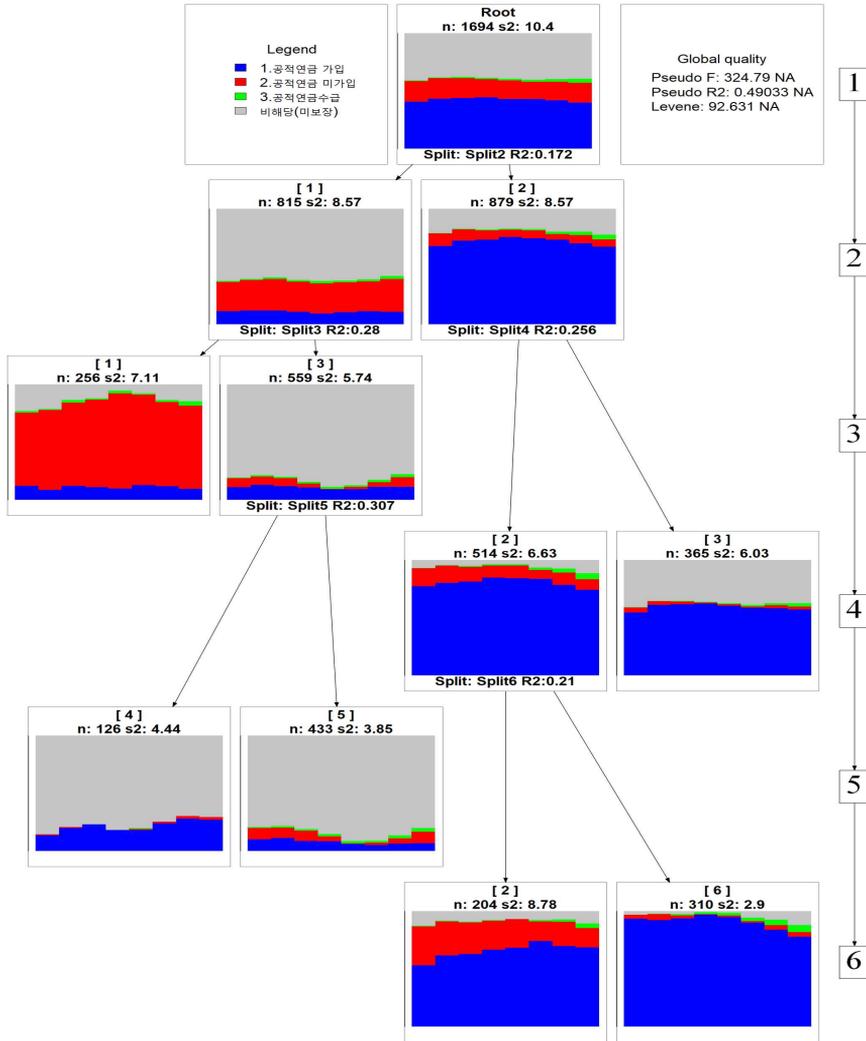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11차.

[그림 V-11] 베이비부머- 최종 선정된 6개의 노동취적유형 나무그림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0차.

[그림 V-12] 베이비부머- 최종 선정된 6개의 공적 연금계적 나무그림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0차.

앞서 도출된 6개의 유형의 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베이부머와 이전부머의 47세에서 63세의 동일한 연령대를 유형화 하였으며, 각각 6개의 유형으로 최종 분류되었다(아래의 [그림 V-12] 참조).

이전부머 코호트의 경우 1. 불안정_연금미보장(15.8%), 2. 불안정 노동-비경활(16.2%), 3. (영세)자영자(13.9%), 4. 비경활_연금미보장(30.4%), 5. 정규직_연금보장(15.9%) 6.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7.9%)으로 분류되었다([그림 V-13] 참조). 이전부머의 코호트 중 ‘불안정 노동 연금미보장’ 유형의 경우 남성이 대략 56.5%를 차지하여 여성보다 약간 높았으며 ‘정규직 연금보장’ 유형은 남성 비율이 대략 89.2%를 차지하였다. 비경활 집단 비율은 반대로 여성이 8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 남성 비율이 82.2%로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의 비율은 여성이 93.2%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은 정규직 연금보장 유형에 30.3%, 자영자 유형에는 24.3%가 속하였다. 반면 여성은 비경활_연금미보장 유형에 대략 48.1%, 불안정 노동→비경활 유형에 17.2%가 속하였다.

베이비부머 코호트는 1. 불안정_연금미보장(15.1%), 2. 불안정 노동_연금보장(12.0%), 3. 영세)자영자(21.3%), 4.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6.7%), 5. 비경활_연금미보장(27.6%), 6. 정규직_연금보장(22.6%)으로 분류되었다. 베이비부머의 코호트 중 ‘불안정 노동 연금미보장’ 유형의 경우 남성이 43.8% 여성이 56.3% 비율로 여성 비중이 약간 높았으며, ‘불안정 노동 연금보장’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이 59.8%로 남성(40.2%)보다 높았다. 또한 정규직 연금보장 유형은 남성 비율이 대략 76.5%를 차지하였다. 비경활 비율은 반대로 여성이 82.2%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의 비율이 여성이 89.7%를 차지하였다. 남성은 전

체 유형 중 (영세)자영자 유형에는 32.6%가 속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규직_연금보장 유형에 30.7%가 해당되어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여성은 비경활_연금미보장 유형에 대략 38.7%가 해당되었으며, 다음으로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에 15.6%가 속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 유형이었다.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여성이 불안정 노동(유형 1과 유형 2의 합산)에 종사하는 비중은 28.9%이며, 정규직_연금보장 종사 비중은 7.9%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여성 이전부머 코호트의 정규직_연금보장 종사 비율이 3.3%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두 코호트에서 동일하게 분류된 유형은 “정규직_연금보장”, “(영세)자영업”, “비경활_연금미보장”, “불안정_연금미보장”, “무급가족종사자” 유형이다.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차이는 첫째, 불안정 노동 집단 중에서 공적연금 보장 집단이 따로 유형화된 것과 이전부머의 경우 은퇴가 빨랐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에서 비경활 즉 은퇴로 이어지는 집단이 유형화된 것에 반해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경우 62세까지 별다른 은퇴유형이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족생애주기의 경우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가 비슷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자녀성인기 단계(19세 이상)에서 자녀가 독립한 후의 무자녀 부부가구로 이행하고 있었다.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 모두에서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에서 단독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규직_연금보장’ 유형의 경우 첫째 자녀가 19세 미만인 후기정착기를 지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정규직_연금보장’ 유형의 경우 혼인과 출산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혼인을 늦은 나이에 하는 것이 반영되었다.

이전부머 코호트의 경우에도 베이비부머와 비슷하게 3. 정규직_연금보

장 유형과 5. (영세)자영자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후기정착기(13-19세)를 거쳐 자녀성인기(19세 이상)를 지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두 유형의 빈곤율 또한 마지막 해 기준 각각 6.20%와 3.38%로 매우 낮았다. 1. ‘불안정_연금미보장’ 유형과 2. 불안정노동-은퇴 유형의 경우 ‘단독가구’ 비율과 ‘한부모 가구’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으며, 빈곤율은 2. 불안정노동-은퇴 유형이 마지막 해 기준 2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경활_연금미보장 집단은 17.02%로 두 번째로 높았다.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노동궤적 유형별 가족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높은 3.정규직 연금보장 집단과 5.(영세)자영업 집단에서 자녀의 후기정착기(13-19세)에서 자녀성인기(19세 이상)로 이행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아, 가족생애주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늦게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유형의 빈곤율은 마지막 해 기준 정규직_연금보장 유형은 2.58%, (영세)자영자 유형의 빈곤율은 6.03%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낮았다. 1. 불안정_연금미보장 집단의 경우 ‘단독가구(14.06%)’ 비율과 한부모 가구(9.77%)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높았으며 2. 불안정 노동_연금보장 유형의 경우 ‘단독가구(10.78%)’와 ‘한부모 가구(8.82%)’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빈곤율은 4. 비경활 연금미보장 유형의 빈곤율이 마지막 해 기준으로 20.8%로 가장 높았으며, 불안정 노동 유형(1번과 2번)의 빈곤율 또한 각각 10.9%와 10.8%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14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표 V-1>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 코호트 노동궤적 유형 (47-62세)

(단위: 명, 괄호 안 %)

성별	1	2	3	4	5	6	전체
	불안정_연금미보장	불안정노동_비경활	(영세)자영자_연금보장	비경활_연금미보장	정규직_연금보장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	
남성	83 (19.0) (56.5)	65 (14.9) (43.3)	106 (24.3) (82.2)	45 (10.3) (16.0)	132 (30.3) (89.2)	5 (1.2) (6.9)	436 (100.0) (46.9)
여성	64 (13.0) (43.5)	85 (17.2) (56.7)	23 (4.7) (17.8)	237 (48.1) (84.0)	16 (3.3) (10.8)	68 (13.8) (93.2)	493 (100.0) (53.1)
전체	147 (15.8) (100.0)	150 (16.2) (100.0)	129 (13.9) (100.0)	282 (30.4) (100.0)	148 (15.9) (100.0)	73 (7.9) (100.0)	929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1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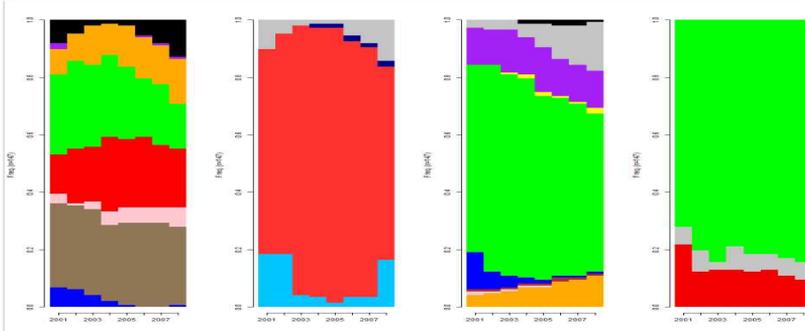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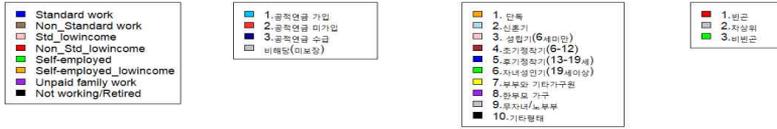
<표 V-2> 베이비부머 코호트 노동궤적 유형 (47-62세)

(단위: 명, 괄호 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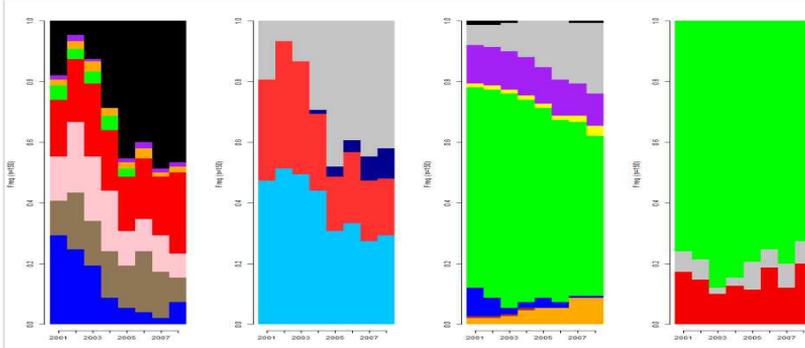
성별	1	2	3	4	5	6	전체
	불안정_연금미보장	불안정_연금보장	(영세)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	비경활_연금미보장	정규직_연금보장	
남성	112 (14.5) (43.8)	82 (10.6) (40.2)	252 (32.6) (69.0)	13 (1.7) (10.3)	77 (10.0) (17.8)	237 (30.7) (76.5)	773 (100.0) (45.6)
여성	144 (15.6) (56.3)	122 (13.3) (59.8)	113 (12.3) (31.0)	113 (12.3) (89.7)	356 (38.7) (82.2)	73 (7.9) (23.6)	921 (100.0) (54.4)
전체	256 (15.1) (100.0)	204 (12.0) (100.0)	365 (21.6) (100.0)	126 (7.4) (100.0)	433 (25.6) (100.0)	310 (18.3) (100.0)	1,694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0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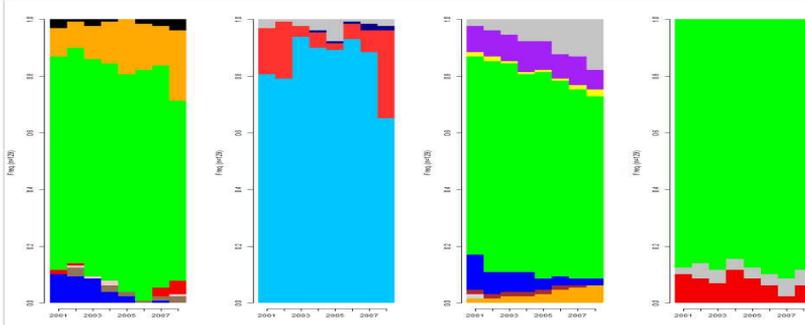
[그림 V-13] 이전부머 노동취직, 가족생애주기, 빈곤취직(47-6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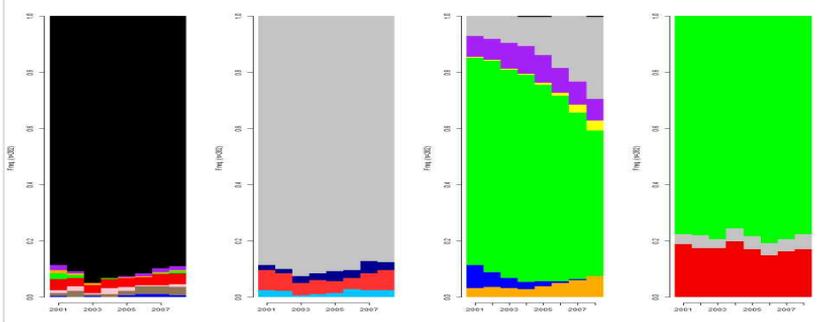
1. 불안정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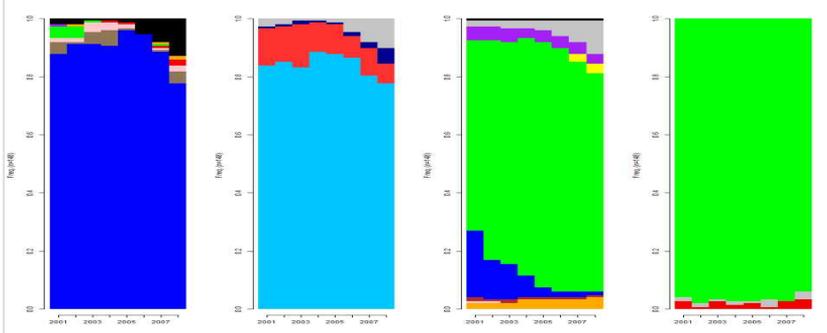
2. 불안정노동_비경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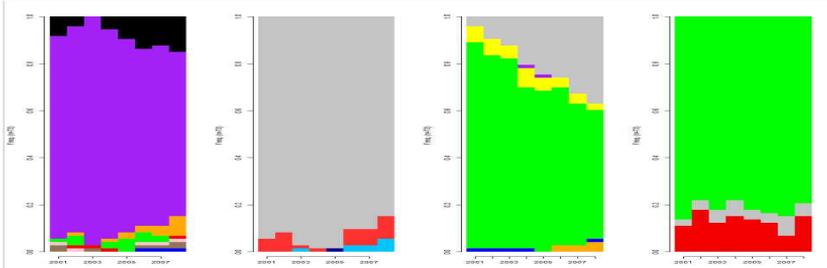
3. (영세)자영자_연금보장



4. 비경활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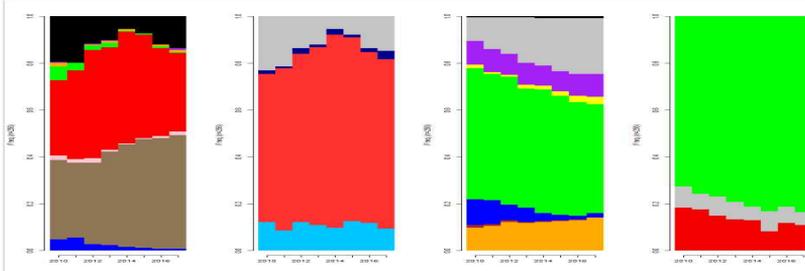
5. 정규직_연금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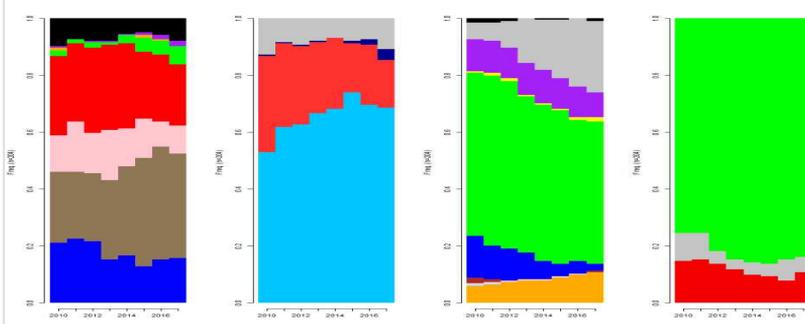
6.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1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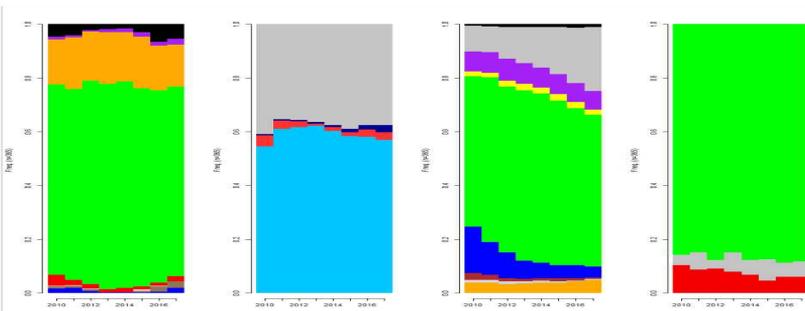
[그림 V-14] 베이비부머 노동계직, 가족생애주기, 빈곤계직(47-6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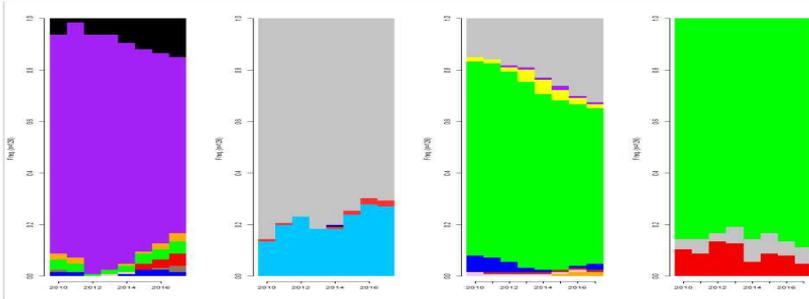
1. 불안정_연금미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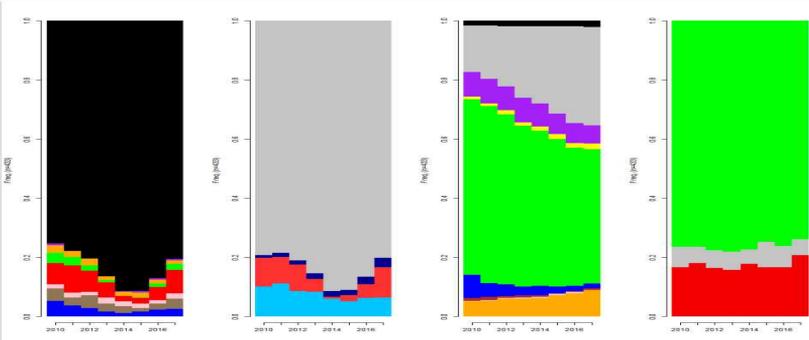
2. 불안정_연금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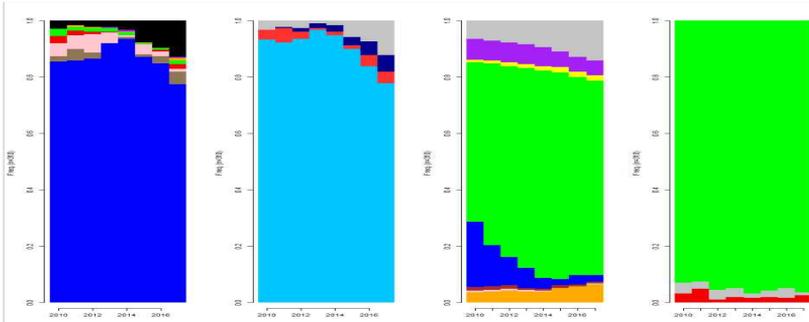
3. (영세)자영자_연금보장



4. 무급가족종사자_연금미보장



5. 비경활_연금미보장



6. 정규직_연금보장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0차.

3.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 중년기 노동궤적과 빈곤과의 관계

다음은 앞에서 도출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노동궤적 유형과 공적연금 보장여부가 마지막 년도의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 빈곤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전체 집단분석과 남녀를 각각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V-3>은 전체 집단 분석결과이다. 기준집단은 정규직 연금보장 유형이고, 종속변수는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1.2배 미만 차상위 계층까지를 빈곤으로, 그 이상을 비빈곤으로 설정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오즈비(odds ratio)를 제시하였다.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경우 ‘정규직 연금보장 집단’에 비해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집단이 빈곤할 확률은 대략 2배에서 3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불안정 노동_연금보장’ 집단의 경우 ‘정규직_연금보장’ 집단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1.32배에서 1.79배 정도 높았으나, 여러 가지 통제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와 3에서 통계적 유의도는 사라졌다. 비경활 집단은 빈곤할 확률이 대략 3.5배에서 4.1배 가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빈곤확률은 베이비부머 코호트에서 2.5배에서 2.9배 가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정규직_연금보장’ 집단보다 빈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이전부머의 경우는 ‘정규직_연금보장’ 집단에 비해서 ‘불안정 노동에서 비경활(은퇴)’로 진입한 집단의 빈곤확률이 2.2~3.1배 가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 확률은 분석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비경활인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은 확률을 보였다. ‘비경활’ 집단은 ‘정규직_연금보장’ 집단에 비해서 빈곤할 확률은 대략 2.2배에서 2.9배 수준

을 보였다.

가구형태 또한 빈곤에 영향을 미쳤다.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서 한부모 자녀와 기타가구가 빈곤할 확률(Model 3: OR=2.33, $p<0.01$; Model 3: OR=3.9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전부머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서 한부모 자녀와 기타가구의 빈곤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부와 자녀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빈곤할 확률은 (Model 2: OR=0.56, $p<0.1$)이 44%까지 감소하였다. 결과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자가에 비해서 전세나 월세와 같은 주거형태일 경우 빈곤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은 빈곤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같은 분석을 남성과 여성을 각각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의 <표 V-4>와 <표 V-5>와 같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_연금보장' 집단(준거집단)에 비해서 다른 유형의 집단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전체적으로 약간 높아졌다. 특히 비경할 집단이 빈곤할 확률은 대략 7배에서 10.7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정규직_연금보장 유형 대비 빈곤할 확률의 통계적 유의도는 사라졌다. 이전부머의 경우에도 남성집단만 분석하였을 경우 주요결과는 비슷하였지만 빈곤확률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궤적과 가구 빈곤이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둘째,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생애노동경력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이나 부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짐작된다. 가구형태가 빈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대비 기타가구의 빈곤확률이 Model 3의 경우 3.18배 증가하였으며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전부머의

경우 단독가구 대비 모든 가구유형에서 빈곤할 확률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우, 생애노동궤적과 가구단위 빈곤상태가 별다른 관련성을 띠지 않았다.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우 비경활 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통제변수를 추가한 후에 대략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베이비부머 코호트와 이전부머 코호트 여성의 경우 혼인, 출산 이후 전업주부로 비경활 상태로 지내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들의 빈곤지위는 대부분 남성 배우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은 남성을 통해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우 여성 개인의 노동시장 경력이 빈곤에 주는 영향 보다,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분리와 같은 가구형태의 변화 등이 빈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형태와 빈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부부와 자녀 가구’ 형태는 빈곤할 승산비가 대략 50% 정도 감소(Model 2: ORs=0.54, $p<0.1$) 하였으며, ‘한부모와 자녀’ 가구와 기타 가구가 빈곤할 승산비(odd ratios)는 대략 2배에서 4배까지 통계적으로 높았다. 반면 이전부머 여성의 경우 단독가구 대비 다른 가구 유형의 빈곤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한가지 특징적인 결과는 이전부머 코호트와 다르게, 베이비부머 코호트 노동궤적 유형 중 불안정 노동이면서 공적연금이 보장된 유형이 세분화 되었으며, 이들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정규직 연금보장’ 유형의 집단보다 빈곤할 확률이 높긴 하였지만, ‘불안정 노동 연금미보장’ 집단 보다는 낮았다. 특히 전체집단 분석과 남성의 경우는 ‘불안정 노동 연금보장’ 집단의 경우 빈곤할 확률의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졌다.

<표 V-3>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 코호트 빈곤결정요인

독립변수	베이비부머			이전부머		
	(1)	(2)	(3)	(1)	(2)	(3)
노동계직 유형 (정규직 연금보장 기준)						
불안정노동 연금미보장	3.00** (0.795)	2.65** (0.714)	1.98* (0.559)	2.80** (1.075)	2.74** (1.059)	1.94+ (0.773)
불안정노동 → 비경활	-	-	-	3.12** (1.204)	3.06** (1.188)	2.22* (0.892)
불안정노동 연금보장	1.70+ (0.519)	1.59 (0.491)	1.32 (0.422)	-	-	-
비경활	4.01** (1.047)	4.06** (1.065)	3.50** (0.939)	2.94** (1.128)	2.88** (1.108)	2.19* (0.866)
자영업	1.20 (0.327)	1.19 (0.327)	1.07 (0.303)	1.42 (0.599)	1.39 (0.590)	1.14 (0.498)
무급가족중 사자	2.54** (0.874)	2.91** (1.010)	2.52** (0.898)	1.90 (0.917)	1.81 (0.886)	1.33 (0.677)
가구 형태 (단독가구 기준)						
부부		0.69 (0.181)	1.01 (0.281)		1.05 (0.357)	1.45 (0.522)
부부와 자녀		0.57* (0.140)	0.99 (0.267)		0.56+ (0.183)	0.65 (0.222)
한부모와 자녀		1.89* (0.609)	2.33* (0.787)		0.69 (0.295)	0.68 (0.302)
기타가구		2.31* (0.892)	3.98** (1.622)		1.21 (0.608)	1.24 (0.647)
관측치	1,642	1,642	1,642	897	897	897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12차.

주: 1) ** p< 0.01, * p<0.05, + p<0.1; 괄호안은 SE.

2) 분석은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모델 1은 연령, 연령제곱, 성별을 추가로 통제. 모델 2는 모델 1에 가구형태를 추가하였으며, 모델 3은 모델 2에 교육수준, 거주형태, 거주지역을 추가로 통제함.

<표 V-4> 남성 베이비부머와 이전 세대 코호트 빈곤결정요인

독립변수	베이비부머			이전부머		
	(1)	(2)	(3)	(1)	(2)	(3)
노동계적 유형 (정규직 연금보장 기준)						
불안정노동연금 미보장	3.20**	2.95**	2.01+	2.36+	2.17+	1.76
	(1.091)	(1.027)	(0.760)	(1.037)	(0.961)	(0.812)
불안정노동→ 비경활	-	-	-	3.01*	3.06*	2.58*
	-	-	-	(1.374)	(1.425)	(1.244)
불안정노동연금 보장	1.35	1.29	0.98	-	-	-
	(0.607)	(0.582)	(0.465)	-	-	-
비경활	10.74**	9.64**	6.79**	3.60**	3.40*	2.87*
	(3.812)	(3.489)	(2.659)	(1.739)	(1.671)	(1.427)
자영업	1.58	1.60	1.41	1.57	1.63	1.44
	(0.503)	(0.510)	(0.467)	(0.702)	(0.735)	(0.671)
무급가족종사자	1.08	1.18	0.84	-	-	-
	(1.155)	(1.266)	(0.929)	-	-	-
가구 형태 (단독가구 기준)						
부부 가구		0.56	0.77		0.69	0.78
		(0.240)	(0.361)		(0.473)	(0.550)
부부와 자녀		0.67	1.09		0.45	0.44
		(0.252)	(0.458)		(0.290)	(0.291)
한부모와 자녀		1.29	1.45		0.86	0.76
		(0.720)	(0.866)		(0.692)	(0.624)
기타가구		2.07	3.18+		0.95	0.86
		(1.283)	(2.072)		(0.967)	(0.889)
관측치	741	741	741	416	416	416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12차.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괄호안은 SE.

2) 분석은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모델 1은 연령, 연령제곱을 추가로 통제. 모델 2는 모델 1에 가구형태를 추가하였으며, 모델 3은 모델 2에 교육수준, 거주형태, 거주지역을 추가로 통제함.

152 생애노동 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표 V-5> 여성 베이비부머와 이전 세대 코호트 빈곤결정요인

독립변수	베이비부머			이전부머		
	(1)	(2)	(3)	(1)	(2)	(3)
	노동계적 유형 (정규직 연금보장 기준)					
불안정노동연 금미보장	1.84 (0.795)	1.73 (0.765)	1.62 (0.739)	3.74 (4.061)	4.55 (4.969)	2.55 (2.882)
불안정노동→ 비경활	-	-	-	3.46 (3.716)	3.97 (4.283)	2.17 (2.427)
불안정노동연 금보장	1.25 (0.579)	1.20 (0.568)	1.23 (0.597)	-	-	-
비경활	1.67 (0.672)	1.89 (0.785)	2.17+ (0.919)	3.11 (3.290)	3.41 (3.621)	2.04 (2.239)
자영업	0.53 (0.285)	0.49 (0.270)	0.46 (0.258)	0.85 (1.095)	0.88 (1.145)	0.62 (0.828)
무급가족종사 자	1.45 (0.660)	1.81 (0.857)	2.04 (0.993)	2.20 (2.406)	2.29 (2.520)	1.31 (1.493)
	가구 형태 (단독가구 기준)					
단독가구		0.85 (0.293)	1.12 (0.408)		1.22 (0.490)	1.95 (0.857)
부부와 자녀		0.54+ (0.185)	0.86 (0.316)		0.57 (0.223)	0.71 (0.300)
한부모와 자녀		2.13+ (0.866)	2.39* (1.025)		0.55 (0.291)	0.61 (0.334)
기타가구		2.62+ (1.334)	4.47** (2.403)		1.34 (0.804)	1.50 (0.939)
관측치	901	901	901	476	476	476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12차.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괄호안은 SE.

2) 분석은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모델 1은 연령, 연령제곱을 추가로 통제. 모델 2는 모델 1에 가구형태를 추가하였으며, 모델 3은 모델 2에 교육수준, 거주형태, 거주지역을 추가로 통제함.

VI.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불안정 노동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다(신광영, 2018, 5-6p). 현재의 근로연령층이 노동시장의 불안정(고용불안, 소득불안, 사회적 임금의 불안정성) 노동계층으로 남아있을 경우, 향후 노인 진입 시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듯 생애과정을 통틀어서 개인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과 공적연금 보장 여부가 향후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생애 주기별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노동궤적과 가족생애주기 그리고 빈곤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2000년대 초반과 후반의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연령코호트(age cohort)와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 이전 코호트를 중심으로 한 출생코호트(birth cohort)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와 공적연금 제도의 확대, 그리고 가족생애주기를 통한 가구형태가 빈곤에 미친 영향을 보다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4차부터 21차 자료를 이용하여 멀티채널 배열 분석과 군집 분석을 통해 노동궤적을 유형화하였으며, 노동궤적과 가족주기 그리고 빈곤궤적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출생코호트(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를 대상으로 중년기 노동궤적과 빈곤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전체 연령의 노동궤적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 가족생애주기 및 빈곤궤적을 배열 분석한 결과,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노동생애궤적의 차

이와 공적연금 가입 격차는 컸다. 여성은 20대 이후 남성보다 빨리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비경황 상태인 여성 비율이 높고, 전 연령대에 걸쳐서 정규직 비율 또한 4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전 연령대의 여성의 노동궤적을 살펴보면, M자형 분포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임신과 출산 후에 노동시장 재진입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이 우세하였다.

가족생애주기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략 여성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35세까지 신혼기와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성립기를 경험하고, 35세부터 45세 때 대략 초기정착기(첫째 자녀 기준 6-12세)를 지나 후기 정착기(첫째 자녀 기준 13-19세)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높아, 65세의 노인을 기점으로 단독가구 비율이 매우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은 대략 79세까지도 자녀와 함께 동거하거나 혹은 노부부(2인 가족)의 형태를 지나다가 79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비율을 보인다.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의 근로연령층 연령코호트 별 노동 궤적 유형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30대, 40대, 50대 연령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노동궤적 유형은 '정규직-연금보장',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비경황-연금미보장' 유형이다. 그 외의 유형은 연령코호트 별로 차이를 보인다.

30대 연령 코호트는 2010년 코호트는 2001년 코호트와 달리 불안정 노동이지만, 공적연금 보장률이 대략 50%는 되는 유형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 “비경황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새롭게 포착되었다. 이 유형은 여성 비율이 90%로 매우 높았으며, 임금 근로로 전환함과 동시에 공적연금 가입은 증가하였다. 이는 30대에 경력단절 후 재

취업 형태가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족생애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혼인 출산이 2010년 코호트의 경우 지연되면서 비경활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이행하는 여성 집단이 따로 포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생애노동 궤적 그래프에 따라서 보면, 대략 M자 유형에서 두 번째 봉우리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다. 출산 및 육아를 마치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간 여성들로 보인다. 2001년 여성 코호트의 경우 비경활 상태(48.5%)이거나 불안정 노동(29.2%)인 상태인 반면 2010년 코호트는 비경활 상태(33.5%)는 15%p 감소하였고 비경활에서 불안정 노동(19.4%)으로 이동하고 있다.

40대 연령 코호트는 2001년 코호트와 달리 ‘불안정노동_연금보장’유형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 이 유형의 여성 비율은 대략 70%로 남성보다 높았다. 기존의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의 남녀 비율이 대략 50%로 비슷한 것에 비해 공적연금이 보장되는 불안정 노동은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 및 직종(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및 공공기간의 계약직 등)인 것으로 보인다. 2001년 40대의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은 전체의 20.3%를 차지한데 비해 2010년의 경우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과 보장’ 유형의 합이 대략 20%를 차지하여 규모면에서는 증가 추세는 찾을 수 없었다. 2001년 코호트와 비교할 때 2010년 코호트의 여성 정규직 종사 비율이 4.2%p 증가하였으며, 비경활 비율은 1.5%p 감소하는데 그쳤다. 2010년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01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50대 코호트에서도 30대, 40대와 동일하게 ‘불안정 노동_연금 보장’유형이 2010년 도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30대와 40대의 ‘불안정 노동_연금보장’유형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30대 40대의 유형별 성별 비율이 여성이 더 높았다면, 50대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한 남성의 비율이 66.5%로 여성보다 더 높았다. 이는 해당 유형의 그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50대의 노동궤적은 불안정 노동에 종사를 하면서 연금 수급으로 넘어가는 패턴을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 가입→연금 미가입→연금 수급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며, 이는 50대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남성들이 불안정 노동에서 다시 재취업하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와 연금수급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소득절벽을 보여준다. 즉 이들은 연금을 수급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기 보다는 주로 영세자영업이나 자영업, 일부는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 ‘부분 은퇴’한 집단으로 보인다.

60대 코호트에서 2001년과 2010년 두 코호트에서 동일하게 도출된 유형은 ‘비경활_연금미보장’과 ‘불안정 노동 연금미보장’ 유형이며, 2001년 코호트의 경우, 비경활 비율이 전체 코호트의 74.8%를 차지하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0년 코호트의 경우 비경활 비율은 47.9%에 불과하였다. 2001년 코호트의 경우 (영세)자영자 집단이 연금 미보장인 비율이 높아 ‘(영세)자영자_연금미보장’ 유형이 도출되었지만, 2010년 코호트의 경우 같은 ‘(영세)자영자’라고 하더라도 연금을 수급하는 집단이 대략 40% 정도 수준이었다. 또한 비경활과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혼재하지만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유형이 도출되어, (부분)은퇴 연금 수급 유형이 도출되었다. 60대 연령코호트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10년 코호트에서 본격적으로 공적 연금을 수급 하는 유형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연령코호트 결과를 정리하자면, 대략 10년의 전후로 연령코호트를 비교한 결과, 불안정 노동 형태에서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함께 증가하였다. 또한 예상한 대로 여성 고용률 증가가 컸으며, 특히 30대에서 여성 고용률이 증가한 것은 혼인과 출산이 2001년보다 지연되거나 독신가구의 증가의 영향이 크다.

또한 50대의 경우 2001년 코호트와 달리 2010년 코호트에서 불안정 노동에서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유형이 새롭게 포착되었으며, 이들 유형은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 공적연금 수급연령까지의 소득절벽 상황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60대 유형의 경우 비경활/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 연금을 수급하는 유형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 빈곤율은 ‘불안정 노동_연금미보장’ 유형과 ‘비경활_연금미보장’ 유형 보다는 낮았지만, ‘(영세)자영자’ 집단 보다는 높았다. 이는 연금수급을 하지만 연금급여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연령대에서 빈곤궤적의 경우에도 2001년 코호트에 비해 2010년 코호트에서 감소 경향이 포착되었으며, 특히 50대 여성의 빈곤율과 60대 남성의 빈곤율이 2001년 코호트 대비 감소하였다. 가족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가족의 형성과 출산과 가족주기의 성장이 지연되는 현상이 포착되었다.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출생 코호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7세에서 63세까지 같은 연령대의 출생코호트를 비교한 결과, 남성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규직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은 이전부머 코호트와 비슷하였으며, 자영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도 이전부머 보다 노동시장 종사 비율이 높았지만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은 약간 높았으며, 불안정 임금 노동 종사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가입의 경우, 47세 기준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40.5%(남성 61.06%; 여성 23.45%)이었으며 이전부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39.34%(남성 62.16%; 여성 12.58%)로 공적연금 가입률이 약간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코호트 간 공적연금 가입률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앞서의 노동궤적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일자리들이 자영업자나 불안정 임금 노동과 같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에 가입한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경우 공적연금제도 도입과 확대에 의해 이전부머 코호트 보다 젊은 나이에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은 1988년 1월이며 전국민 확대는 1999년 4월로, 1999년 기준 이전부머 코호트의 연령대는 45세에서 54세에 분포하였으며, 베이비부머의 경우 36세에서 44세에 분포하였다. 즉 베이비부머의 경우 중고령자 시기의 공적연금 가입 비율이 비슷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길어, 연금수급 연령 도달 후의 연금 급여액이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10.9%p 증가하였다. 정리하자면, 베이비부머 남녀 모두에서 노동시장 참여가 고령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형태는 불안정 노동 혹은 (영세)자영업이 주를 이루었다. 베이비부머 코호트 남성코호트의 공적연금 가입률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입기간이 더 길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 코호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크게 증가하였다.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노동궤적 유형과 가구형태가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세대 빈곤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정규직 연금보장 집단'에 비해 '불안정 노동 연금 미보장 집단'이 빈곤할 확률은 대략 2배에서 3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불안정 노동 연금보장' 집단의 경우 정규직 연금보장 집단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1.3배에서 1.7배 정도 높았으나, 여러 가지 통제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에서부터 통계적 유의도는 사라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반면 '비경활' 집단은 빈곤할 확률이 대략 3.5배에서 4배 가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전부머의

경우에도 ‘정규직 연금보장’ 집단에 비해서 ‘불안정 노동에서 비경활’로 진입한 집단과 비경활 집단의 빈곤확률이 2.2배에서 3.12배 가까이 높았다. 한가지 특징적인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계적 유형 중 불안정 노동이면서 공적연금이 보장된 유형이 세분화되었으며, 이들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정규직 연금보장 유형의 집단보다 빈곤할 확률이 높긴 하였지만, ‘불안정 노동 연금미보장’ 집단보다는 낮았다. 가구형태와 빈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코호트는 단독가구에 비해서 한부모 자녀와 기타가구가 빈곤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부와 자녀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없었다. 이전부머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서 한부모 자녀와 기타가구의 빈곤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출생코호트의 중고령기 노동계적과 빈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계적과 가구 빈곤이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둘째,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중고령기 노동경력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베이비부머 코호트가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이나 부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짐작된다.

2. 학술적·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제언

다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 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노인세대와 가까운 미래에 노인으로 진입할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곤 문제는 공적연금만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공적연금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시기인 1999년에 36세에서 44세에 분포하였기 때문에 이전부머 세대보다 생애기간에 걸쳐 더 오래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연금급여액 또한 이전부머 세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이전부머 코호트 보다 공적연금 가입률이 대략 11%p 정도 증가하였다. 안서연, 이은영(2019)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같은 연령대(54세부터 62세)의 소득과 자산의 수준과 분포를 비교한 결과, 베이비부머가 이전부머 코호트보다 소득과 자산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노인빈곤율의 감소를 예측하였다. 이로 미뤄볼 때 베이비부머가 노인으로 진입할 경우, 경제적 자원이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공적연금 소득을 추가할 경우, 노인빈곤율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적연금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국민연금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급여액이 92만 원이며(국민연금연구원, 2019), 이 금액은 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2인 가구 87만 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공적연금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 비율은 최저생계비 기준 7.4%,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6.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여유진, 2019). 이로 인해 현재의 노인세대와 곧 노인에 진입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는 결국 노년기 확보된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3가지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전세대 보다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였다는 연구 결과(안서연, 이은영, 2019)를 바탕으로 이들의 축적된 자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예를 들어 주택연금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둘째,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또 다른 도전이다. 가구형태의 변화 즉 단독가구의 증가와 부부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빈곤확률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70.7%(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기준)에 이르고 있다(김태완 외, 2020).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은퇴와 함께 빈곤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 노년기의 단독가구가 되면서 가구 내의 부양자의 부재로 인해 빈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가족 간 연대의식 약화 및 사적 부양책임의 약화로 인해 공적 이전소득의 불충분할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퇴거는 빈곤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비경활 남성의 빈곤확률의 차이에도 확연히 드러났다. 이전부머 남성이 정규직 대비 비경활 집단의 빈곤할 확률이 2.8배 높은데 반해 같은 연령대의 베이비부머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경활 집단이 빈곤할 확률이 6.8배 가까이 높았다.

다만 여성의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 코호트는 본인의 노동궤적과 가구 빈곤은 관계가 거의 없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연령이 47세와 62세 사이의 여성이며, 이들 대부분 비경활 상태이거나, 노동시장에 참가하더라도 이차적인 소득원으로써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남성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 그리고 동거하는 성인 자녀들과의 가구 분리 등의 가구구조 변화가 발생할 경우, 여성 베이비부머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독 가구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후의 여성 빈곤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IV-5] 참조). 이렇듯 가구 내의 부양자의 부재로 인한 빈곤확률의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 증가가 필요하다.

앞서 분석에서 보았듯이, 2001년 연령코호트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성의 고용률과 공적연금 가입률을 살펴봐도, 여성의 고용률이 지난 9년 정도의 차이에도 증가하였으며, 공적연금 가입이 확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 여성만 보더라도 같은 연령대인 60세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빈곤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생애주기에 걸쳐서 노동시장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이 단절되거나 비정규 상태에서도 경제적 부담 수준에 따라 공적연금을 가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겠다. 구체적인 국민연금의 제도로는 출산크레딧의 확대 및 양육크레딧의 신설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관해 보상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유연하지만 일관성 있는 제도 편입 노력이 필요하다. 2001년과 2010년 연령별 코호트를 비교할 때에도 베이비부머와 이전부머의 출생코호트를 비교할 때에도 정규직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률은 매우 높으며, 불안정 노동 및 영세자영자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률은 매우 떨어진다. 2008년과 2017년 불과 9년간의 시차를 두고도 불안정 노동 일자리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대략 10%p 내외(비정규직 가입률, 31.6%→45.44%; 영세자영자, 21.52%→29.44%)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공적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발전 방향은 하향식 공적연금 확대 방식으로 인해 노후빈곤에 가장 취약계층인 불안정 노동집단과 영세자영자들이 공적연금 가입 대상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여유진, 2019). 특히 이들은 강제저축 방식인 국민연금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속에서 자영자와 근로자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및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2020년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팬더믹을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에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팬더믹과 관

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은 자영자/고용주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개월간의 보험료 납부예외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쳤다. 특히 자영자들은 이러한 팬더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바로 타격을 받지만, 보험료의 고지 및 납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공적연금 제도의 신속한 대응은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도 발생 소득과 보험료 고지 및 납부의 시차를 줄임으로써 소득과 보험료 납부를 보다 긴밀하게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팬더믹 같은 상황에서 납부 예외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 등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제껏 종사상 지위와 소득빈곤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들의 생애 주기에 걸친 노동궤적과 가족주기 및 노년기의 빈곤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생애주기별로 노동의 불안정성과 공적연금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여기서 도출된 노동궤적 유형과 노년기의 빈곤의 관계에 관해 연구한 논문은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첫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생애과정 연구들이 종사상 지위(상용직, 비정규직, 시간제, 자영업 등)를 이용한 노동궤적(work histories), 혹은 은퇴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한 반면,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노동궤적을 분석하는데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을 분류하는 국제 기준의 프레임워크를 직접적으로 연구에 사용하여 개인의 노동궤적을 유형화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노동궤적, 은퇴 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중고령자들의 종사상 지위와 공적연금 보장의 측면에서 노동궤적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로 가족생애주기와 빈곤궤적의 조응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노동궤적 유형과 빈곤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베이비부머와 이전세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두 출생코호트를 같은 연령대에서 분석한 코호트 연구는 찾기 힘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코호트의 노동궤적의 차이는 결국 시기(period)와 코호트가 겪은 경험과 상황에 따른 결과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다른 출생코호트의 같은 연령대의 노동궤적과 빈곤과의 관계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사회구조적 변화(IMF 이후의 고용유연화 정책과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와 개인 특성의 변화(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노동궤적과 빈곤과의 관계의 변화를 분명히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가구형태 변화가 가구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가족생애주기와 노동궤적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생애주기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궤적은 혼인 및 양육(parenting)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가족생애와 노동시장 궤적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유형화하지 못하였다. 관련 연구가 추후에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코호트에서 이전부머와는 다르게 은퇴가 지연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들이 단순히 소득이 필요해서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인지, 혹은 사회적 참여에 관한 욕구로 인한 것인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건강상태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학력수준 또한 향상되어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욕구도 이전 세대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분석대상에 따라 사용한 자료 차수가 다르긴 하지만(<표 III-1> 참조), 대부분 짧게는 9개년도에서 길게는 18개년도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다채널 배열분석에서의 DHD의 거리측정 방식을 사용함으로

써 결측치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관측치는 제거하는 방식(List-wise deletion)으로 인해 자료 소실률이 높아, 자료의 대표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부 데이터 차수에서 비임금 근로자의 공적연금 가입 정보 조사가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조사차수 전후의 정보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종사상 지위의 구분에서 은퇴/비경활/실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특히 비경활과 실업상태는 4주간의 구직활동이라는 구분 가능한 기준이 있지만, 은퇴와 비경활의 경우는 특히 중고령층의 경우 구분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조사시점에서 비경활로 응답하였지만 공적연금 수급을 받는 경우를 은퇴로 간주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구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더 긴 시계열 자료의 부재로 인해 베이비부머의 분석은 62세까지 밖에 포괄하지 못하였다. 향후 보다 긴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베이비부머가 법적 노인 연령인 65세를 지난 후의 빈곤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과 관련한 행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남훈. (2013).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 12-42.
- 강성호·이태열. (2020).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시사점. KiRi 고령화리뷰 제36호.
- 강소랑·최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 가계자산,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1-30
- 김경아·김현수. (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김문길, 이주미. (2017).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7(2), 20-37.
- 김수정·김정석. (2011). 노인 부부가구의 빈곤: 성과 직업력 효과. 가족과 문화 23(3): 63-91.
- 김유경. (2014).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2014.5.
- 김윤영. (2018).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2), 27-63.
- 김재호. (2014).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의 노동시장 상태가 빈곤 결정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30(1): 1-26.
- 김태완·신화연·임완섭 외. (2020).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남춘호. (2016). 노동경력 배열분석을 통해 본 코호트별 계급궤적 비교: 노동시장구조변화와 서비스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2), 1-23.

-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성인으로의 이행과정
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349-378.
- 반정호. (2010). 청년층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월
간 노동리뷰, 10, 3-15.
- 박경숙·김미숙. (2016).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 빈곤율 변화에 미
친 영향. 한국사회학 50(1): 221-253.
- 박경하.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방하남. (2011).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리뷰》, 2, 5-
9.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
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 서정희. (2015).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노동정책연구, 15(1), 1-41.
- 석상훈. (2009). 노인빈곤의 동태적 분석. 사회보장연구 25(4): 77-99.
- 석상훈·김현수. (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 생애 근로이
력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5(3): 99-124.
- 송현주·임란.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연구원.
- 신광영. (2018). 불안정 노동의 시대. 월간 복지동향, (233), 5-12.
- 안서연·이은영. (2019).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연구: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
구원
- 여유진. (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13). 중고령층의 생애과정 분석: 분화와 탈정형화 지표를 중

- 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2). pp 36-61.
- 유영주. (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 유호선·박주완·유현경. (2014).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제도 가입확대방안. [NPS] 국민연금공단 정책자료, 2014(14).
- 윤하림·홍백의. (2020). 한국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생애 불안정은 보편화되고 있는가?-세대 및 학력 간 노동궤적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7(2), 31-58.
-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운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영라·이숙종. (2018). “고령층의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57(2), 111-157.
- 이은영. (2019). 가족 구성과 노인 빈곤을 연관성. 연금이슈&동향분석. 제58호. 8-16.
- 이은희·김경자·이성림·현정·차경옥·이영애·이준영. (2015).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2), 197-227.
- 이주미·김태완. (2020).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193-221.
- 이주환·김교성. (2013). 근로빈곤층의 빈곤이력과 노동경력. 사회복지연구, 44(3), 323-346.
- 이현송. (1996).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30: 759-777.
- 임정연·이영민. (2016). 한국 베이비부머 (Baby Boomer) 의 직업이동 특성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 223-230.
- 정경희. (2018). 노인의 가족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10),

6-18. 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김수완·안상훈. (2014).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 현 노인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337-369.
- 조미라. (2017).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본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 유형화 연구: 기혼부부의 시간일지를 결합한 배열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민정. (2017). 경력단절 여성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44(1), 105-133.
- 최옥금. (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 최혜지·정은수. (2018). 고령노령자의 불안정 노동과 삶의 질.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217-237.
- 최혜지. (2018). 중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세대 비교적 관점으로. 노인복지연구. 73(2). 249-272.
- 통계개발원 (2019). 이슈분석 2: 고령화와 노년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 2019년 가을호.
- 통계청 (2010a).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 (2010b).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통계청.
-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 . 사회적 특성분석”, 통계청 2012. 8. 2 보도자료.
- 통계청. (2019).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 한경혜. 이현송, 김수영. (2005).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생애주

- 기 예측.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보건복지부.
- 한신실. (2018). 이행노동시장과 중고령자의 노동경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0): 411-432.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황상민·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Abbott, A., & Tsay, A. (2000).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1), 3-33.
- Beck, U.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찾아서.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원서 출판 1992)
- Birkett, Holly, Fiona Carmichael, and Joanne Duberley. (2017). Activity in the third ag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s and retirement experi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3, 52-65.
- Bruckner, H., & Mayer, K. U. (2005).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What it might mean? And if it means anything, whether it actually took plac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 27-53.
- Cornwell, B. (2015). *Social sequenc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Vol. 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badinho, A., Ritschard, G., Mueller, N. S., & Studer, M. (2011). Analyzing and visualizing state sequences in R with TraMine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0(4), 1-37.

- Hareven, Tamara K.. (1994). Aging and generational relations: A historical and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7-461.
- Hinrichs, K., & Jessoula, M. (Eds.). (2012).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pension reforms: Flexible today, secure tomorrow?*. Springer.
- Kalleberg, A. L. (2000).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341-365.
- Kim, Y. Y., Baek, S. H., and Lee, S. S. Y. (2018). Precarious Elderly Workers in Post-Industrial South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8(3), 465-484.
- Kok, Jan. (2007). Principles and prospects of the life course paradigm. In *Annales de démographie historique*(No. 1, pp. 203-230). Belin.
- Marshall, Victor W., and Margaret M. Mueller. (2002). *Rethinking Social Policy for an Aging Workforce and Society: Insights from the Life Course Perspective*. CPRN Discussion Paper.
- McMunn, A., Lacey, R., Worts, D., McDonough, P., Stafford, M., Booker, C., ... & Sacker, A. (2015). De-standardization and gender convergence in work-family life courses in Great Britain: a 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6, 60-75.
- Moen, P.(2003). *It's about time: Couples and caree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 London, New York.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OECD Publishing, Paris.

저자 약력

- 안 서 연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 ▶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1
- ▶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변화 연구: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1.
- ▶ 노인의 소득-자산 구성과 수준에 관한 연구: OECD 주요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13.

- 유 현 경
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주요 저서>

-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운영방안 연구(공저),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02.
- ▶ 임의계속가입제도 최저기준소득월액 조정방안 연구(공저),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04.
- ▶ 다층연금체계 개혁의 동향 및 평가: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를 중심으로(공저),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2.

연구보고서 2020-04
생애 노동 궤적을 통해 본 소득구성과 빈곤지위

2021년 4월 인쇄

2021년 4월 발행

발행인 : 김 용 진

편집인 : 이 용 하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4 / FAX : 063-900-3250
